

| SRI-기획-2018-15 |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A Study on Out of School Youth Survey and Support Plan in Suwon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근혁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8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8년 11월 15일
발행 2018년 11월 30일
ISBN 979-11-89160-39-5 (933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8.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관련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이 수립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정보 전달체계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15년 관계부처합동으로 추계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약 2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 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된다고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집계현황과 지원정책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특성 그리고 지원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수원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발생하는 원인들을 조사하여, 수원시가 이들에게 지원하고 보살필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FGI)를 활용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은 고등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조사응답자들 중에는 3년 이상과 1년 이상~2년 미만의 학업중단시기를 거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았다. 학업을 중단한 주된 요인으로는 자발적 자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 건강상의 이유, 심리·정신적인 문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등을 들었다. 학업을 중단할 때 부모님(보호자)의 반응은 과거 보수적이고 학업을 중시하던 모습과 달리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을 중단한 이후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서 절반에 가까운 44.4%가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을 그만 둔 이후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선택보다는 학업 및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것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학업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중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자살을 생각해본 경험이 45.9%, 자살을 시도해본 경험이 20.3%로 자살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졌으며, 학교를 그만 둔 현재의 심리상태도 '기분이 울적하거나 외롭다'의 응답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나, 불안정한 심리의 학교 밖 청소년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두고 겪은 어려움(복수응답)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등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가진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상담과 치료가 시급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결과들은 단순한 정책제언 수준을 넘어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판단된다. 즉, 중앙정부의 지원정책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관련 현황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계부처합동으로 추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핵심 지원정책인 '학업지원'과 '취업지원'과 더불어 '의료지원'도 추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미래설계 및 신체적·정신적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발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굴체계의 대안으로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정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 현안에 밝아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초기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이전의 과정은 교육부 중심으로 교육청(학교)에서 담당하고, 학업이 중단된 이후로는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담당하는데, 학업중단 직후에는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와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시설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과 기관 현황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숙려제를 통해 제공하고,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상호 간의 이해도 및 가정·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이 요구된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복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

을 선언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활하다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다시 학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연장 및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교육청의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청소년이 어디에 적(籍)을 두느냐에 따라 관심의 차이를 보이며, 상호기관 간의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행정처리 그리고 적응사례와 부적응 사례 등의 선례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교육청 공동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업중단과 학업연장의 경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공동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의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완충지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 학교를 기준삼아 ‘안’과 ‘밖’으로 대치되는 두 글자를 사용한 것부터가 차별적인 언어 표현이다. 의미상으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부르는데, 나머지에 속하는 청소년들에는 어떤 유형이 있으며, 하나의 정의로 포괄하여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이분화 시켜놓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속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을 구분하여 보다 새로운 명칭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명칭으로 정의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예: 전문가, 이해당사자)이 명칭을 정하고 공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한다.

주제어: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인식, 진로설정, 교육훈련, 청소년 지원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 방법	4
 제2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논의	 7
제1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9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9
2. 학교 밖 청소년 발생원인	10
3.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및 특성	11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례	13
1.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13
2. 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17
제3절 소결	23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5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	27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	27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33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45
1. 여성가족부	45
2. 교육부	47
3. 경기도	48

3. 수원시	49
제3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현황	50
1. 여성가족부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50
2.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5
제4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57
1. 전국 학교 밖 청소년 현황	57
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62
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69
제5절 소결	71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7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5
1. 조사 개요	75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76
제2절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78
1. 배경요인	78
2. 학업중단	81
3.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92
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115
5. 교차분석 결과	122
제3절 심층면접조사(FGI) 개요	133
1. 조사 개요	133
2. 조사 대상 및 방법	134
3. 조사 내용	134
제4절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136
1.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136
2.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	139
제5장 결론	143
제1절 연구요약	145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45

2.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148
제2절 정책제언	150
1.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150
2.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151
3. 학교 밖 청소년 초기 홍보 강화	152
4.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복귀 시스템 구축	153
5. 학교 밖 청소년 명칭 변경	154
참고문헌	157
부록	161

표 차례

〈표 2-1〉 학교 밖 청소년 발생원인	11
〈표 2-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12
〈표 2-3〉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우수 지원 사례 내용	14
〈표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계기관 현황	16
〈표 2-5〉 미국 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 제정 및 지원 현황	18
〈표 2-6〉 미국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 제정 및 지원 현황	19
〈표 2-7〉 영국 Centrepont 지원 정책 및 내용	21
〈표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28
〈표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추진과제 부처별 협조사항	36
〈표 3-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	43
〈표 3-4〉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연도별 성과지표	44
〈표 3-5〉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44
〈표 3-6〉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 둔 시점	50
〈표 3-7〉 학교를 그만 둔 이유(상위 5가지 - 중복응답)	51
〈표 3-8〉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후회 경험 유무	52
〈표 3-9〉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불이익 경험	53
〈표 3-10〉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별 필요성 평가(상위 5순위)	54
〈표 3-11〉 학업중단 경험 유무	55
〈표 3-12〉 학업중단 주된 이유	56
〈표 3-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	57
〈표 3-14〉 최근 5년 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58
〈표 3-15〉 최근 5년 간 전국 8세~19세 인구 변화 현황	58
〈표 3-16〉 학년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59
〈표 3-17〉 초·중등학생 학년별 학업중단 학생 사유	60
〈표 3-18〉 고등학생 학년별 학업중단 학생 사유	61
〈표 3-19〉 고등학생 부적응에 따른 자퇴 세부 사유	61
〈표 3-20〉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62

〈표 3-21〉 초등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63
〈표 3-22〉 중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64
〈표 3-23〉 고등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65
〈표 3-24〉 초·중등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66
〈표 3-25〉 고등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사유	67
〈표 3-26〉 고등학생 지역별 부적응에 따른 자퇴 세부 사유	68
〈표 3-27〉 연도별 경기도,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69
〈표 3-28〉 연도별 수원시 초·중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69
〈표 3-29〉 연도별, 유형별 수원시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70
〈표 4-1〉 설문문항의 영역별 구성	76
〈표 4-2〉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기법 및 자료 수집 현황	77
〈표 4-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78
〈표 4-4〉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78
〈표 4-5〉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79
〈표 4-6〉 친부모님의 혼인 상태는?	80
〈표 4-7〉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80
〈표 4-8〉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81
〈표 4-9〉 학교를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81
〈표 4-10〉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는 언제입니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82
〈표 4-11〉 귀하가 그만 둔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83
〈표 4-12〉 학교를 그만 둔 후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84
〈표 4-13〉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를 그만 둔 형태는 무엇입니까?	84
〈표 4-14〉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가장 큰 이유를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85
〈표 4-15〉 학교를 그만 둘 무렵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87
〈표 4-16〉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	88
〈표 4-17〉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89
〈표 4-18〉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귀하의 부모님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90

〈표 4-19〉 학교를 그만두기 전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91
〈표 4-20〉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91
〈표 4-21〉 귀하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92
〈표 4-22〉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93
〈표 4-23〉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	93
〈표 4-24〉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94
〈표 4-25〉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95
〈표 4-26〉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어떤 친구(선·후배 포함)와 주로 어울립니까? ..	96
〈표 4-27〉 학교를 그만 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주시오.(복수응답)	96
〈표 4-28〉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학생신분이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97
〈표 4-29〉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주로 시간을 보낸 활동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98
〈표 4-30〉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주로 시간을 보낸 활동의 평균 시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99
〈표 4-31〉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99
〈표 4-32〉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귀하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00
〈표 4-33〉 학교를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습니까?	101
〈표 4-34〉 귀하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102
〈표 4-35〉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103
〈표 4-36〉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까?	103
〈표 4-37〉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하였습니까?	103
〈표 4-38〉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평균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104
<표 4-39>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105
<표 4-40> 귀하가 하였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05
<표 4-41> 학교를 그만 둔 후,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를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106
<표 4-42>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107
<표 4-43>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108
<표 4-44>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09
<표 4-45>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110
<표 4-46> 다음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직업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11
<표 4-47> 다음은 평소 귀하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	112
<표 4-48>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이 경험한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113
<표 4-49> 최근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해 보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14
<표 4-50> 학교를 그만 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복수응답)	115
<표 4-5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이나 사업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16
<표 4-5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이나 사업지원의 만족도와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117
<표 4-53>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 중 이용경험에 있어 불편한 점을 선택해주십시오.	118
<표 4-5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지원' 중 이용경험에 있어 불편한 점을 선택해주십시오.	118
<표 4-55>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필요성의 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120
<표 4-5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학업 및 진학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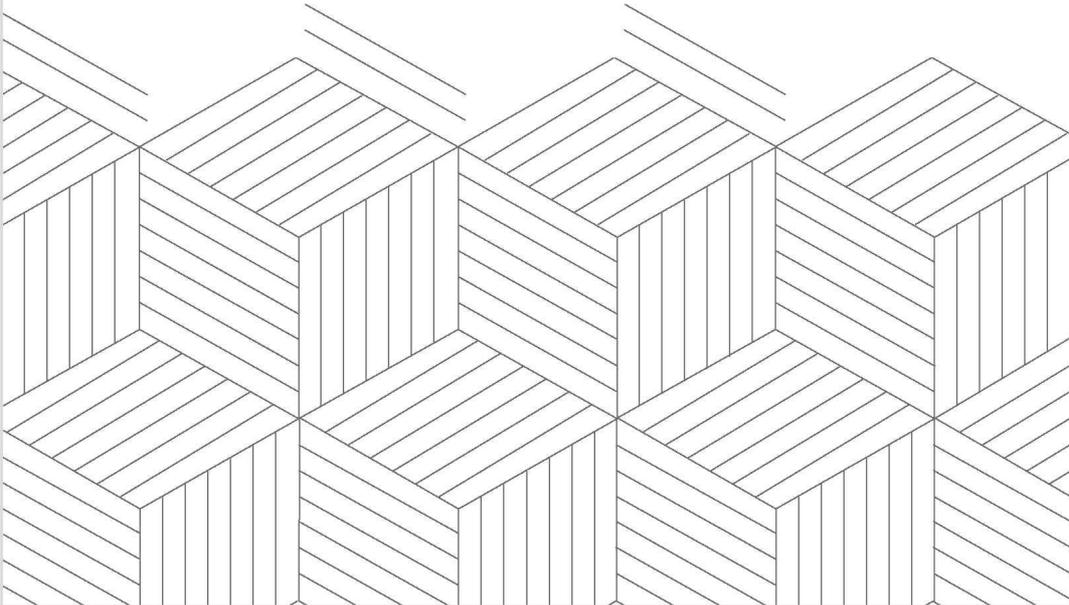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표 4-5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22
〈표 4-58〉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정보제공 경험 유무와의 관계	123
〈표 4-59〉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진로와의 관계(1)	125
〈표 4-60〉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진로와의 관계(2)	127
〈표 4-61〉 학교를 그만 둔 기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정도의 관계	129
〈표 4-62〉 학교를 그만 둔 지역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지원과의 관계	130
〈표 4-63〉 가족 구성원과 학교를 그만 둔 당시 학교성적과의 관계	131
〈표 4-64〉 가족 구성원과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관계	132
〈표 4-65〉 가족 구성원과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고민)과의 관계	133
〈표 4-66〉 심층면접조사(FGI) 집단구분 및 조사내용	135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기본 방향	35
〈그림 3-2〉 관계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37
〈그림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진체계	40
〈그림 3-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흐름도	41
〈그림 3-5〉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체계	42
〈그림 3-6〉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46
〈그림 3-7〉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47
〈그림 3-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48
〈그림 3-9〉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4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고 건강검진, 학업지원 및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교실 확대 등 학교 밖 청소년 및 예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를 위한 제도와 지원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정제영 외, 2017)

매년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와의 단절과 낙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6만여 명씩 나타나고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누계는 약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와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주변인들의 관심 그리고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하게 될 때, 대안적 경로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안점은 무엇인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적 측면에서의 문제와 사회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의 연구가 전국대상 조사를 제외하고는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실태조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황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부처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집행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탐색이 지속적이고, 지역별로 필요한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이후부터 적응이 지속될 경우 개인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비용의 지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남기곤, 2011; Dryfoos, 1991; 조강원, 2017).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지니는 특성을 구분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원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전반(시기, 이유),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 실태조사 범위를 세분화하고, 각 조사 범위 간의 연계성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과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개발 교육 및 훈련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주고, 부족한 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당사자 및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을 확인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기본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책과 국내·외 사례정리 및 기존의 가용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지원방안을 도출·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수원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4개 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적 범위는 2018년 단년으로 설정하여 실증조사를 시행하는데 기준이 된다.

내용적 범위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 학교 밖 청소년 국내·외 지원 사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의 실태조사 결과 분석,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제시 등으로 한정한다.

2. 연구 방법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관한 개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지원방안의 타당성(validity)과 적실성(relevance) 제고를 위해서 본 연구는 최적의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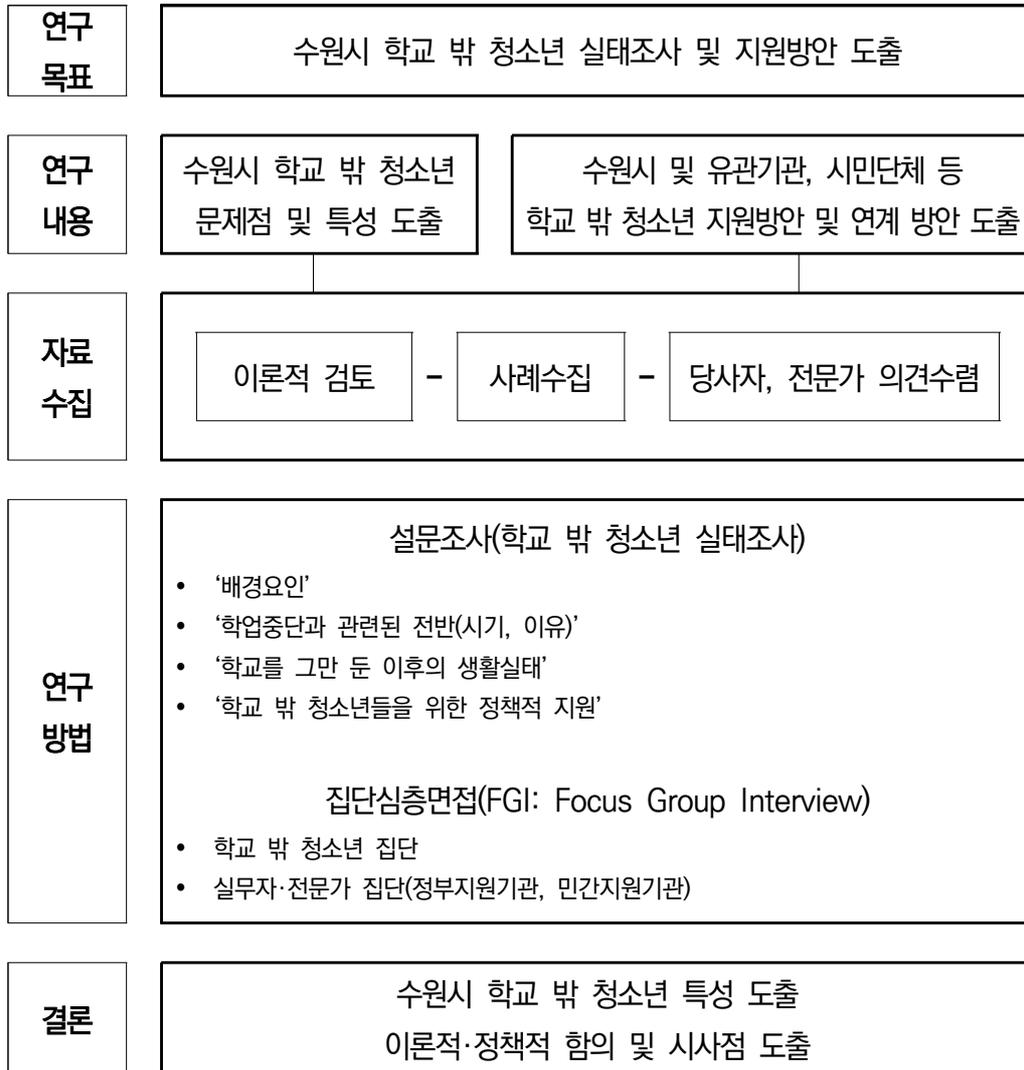
구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와 방향을 명료화하고자 한다. 연구에 참고한 국내·외 연구보고서, 학술지, 정책·법령자료, 일반서적, 인터넷 자료 등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세부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정의, 유형 구분,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지는 문제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정책·법률 등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수원시의 전반적인 통계현황을 조합하여 분석한다.

둘째, 당사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의 경우 1차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회의를 통해 설문지 문항의 적절성, 질의 문항의 민감성, 신규 문항 추가 등 설문지를 확정한다. 전문가 2차 자문에는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들을 우선 인터뷰하며, 그 외 대안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위탁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한다. 전문가 자문에 있어 대상을 구분하는 이유는 전문가들 간의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이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기관과 민간 지원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 및 기관운영에 있어 정책적, 재정적 환경에 따라 차이점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기관들의 의견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의 대상을 구분하였다.

셋째,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배경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전반(시기, 이유)',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확인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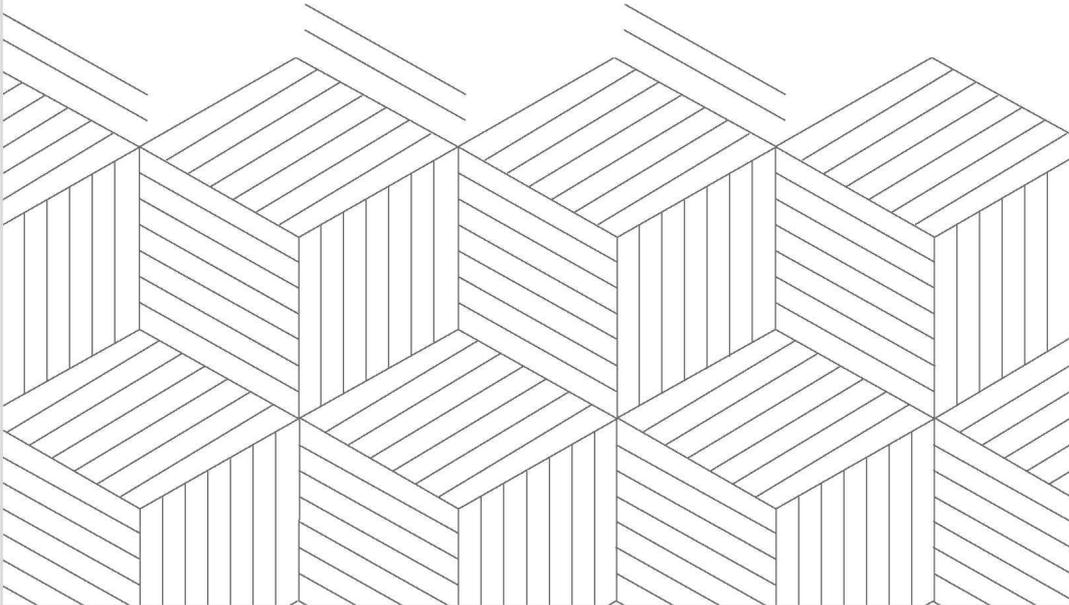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제2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논의

제1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례

제3절 소결



제2장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논의

제1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을 의미하는 용어는 상이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학교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칭한다. 1980년대 말의 학교 밖 청소년은 중도탈락, 중퇴라는 용어로 설명함으로써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였다. 1990년대 말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중도탈락 등 개인적 측면이 아닌 학교제도 및 사회적응 등 가치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의미로 정의되었다(배미경, 2016).

‘학업중단’이란 2002년부터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과거 사용해오던 중도탈락이란 용어가 부정적이라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중립적 개념의 학업중단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업중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긴 했지만, 개인이 아닌 사회 시스템 전반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이병환, 2007; 정경숙, 2013 재인용).

이후 「청소년 기본법」을 기준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규 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학업중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제적·자퇴처분을 받은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칭하며, 입학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자’,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재학 중 학업중단자’, 상급 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학령기에 있지만 미취학, 미진학, 학업중단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정제영 외, 2013)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발생원인

학교 밖 청소년이 탈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수업 및 교과과정, 규율과 규칙을 통한 억압과 통제, 교사의 권위주의적인 태도 등 한국사회의 학교 내 교육이 지니는 문제들과 같은 원인들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총체적 어려움이 극한에 달하게 되는 상황이나, 누적되어 오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상황과 같이 극도의 갈등적 상황에서 하나의 해결책으로 탈학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오랜 고민과 노력 끝에 탈학교의 결실을 맞이하게 되거나, 부모의 권유와 설득에 대한 수용의 과정에서 탈학교를 결정하기도 한다(배미경, 2016).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김민(2001)은 자아존중감, 공격성, 건강문제, 학습장애 등의 개인적 요인과 결손 가족 구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불화 등의 가정적 요인, 비행청소년과의 유대 등 또래집단 요인, 낮은 학업성취도, 경직된 학교교육, 학교 무관심 등의 학교요인, 유해환경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청소년이 학교 중퇴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문용린 외 (2009)는 학업동기 부족, 학교생활에서의 좌절감, 소외감, 학교부적응 등의 개인심리적 요인, 결손가정, 경제적 빈곤 등의 가정적 요인, 교육과정의 획일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학교요인, 상업주의적 소비문화 등의 사회적 요인 등을 학교 중퇴를 선택하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박창남 외(2003)는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중퇴의도 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습내용과 불만, 학교교칙의 불만, 교사의 낙인 등 학교의 구조적·제도적 측면이 학교중퇴의도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기도 하였다(이경상 외, 2005).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 즉 학교중단의 원인은 크게 학교요인, 가정요인, 개인요인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정경숙, 2013).

첫째, 학교요인은 과거의 빈곤과 생계 등의 경제적 이유와 가정의 불화, 해체 등의 가정적 이유 그리고 일탈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이유가 주된 요인이었다면, 최근에는 학습 의욕 및 능력의 저하 그리고 다양한 이유의 학교부적응 요인들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도 ‘학교부적응’요인이 청소년 학교 중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성적저하, 무단 지각과 결석의 반복, 교칙위반, 교사와의 불화, 처벌 및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계(따돌림 포함) 등이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제도와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의 구조적 변화가 청소년들의 학교소속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가정요인이다. 불안정한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부모

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한부모가정, 해체위기의 가정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결함이 학교중단의 원인이 되며,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지지 등 가정의 기능적 특성 또한 학교중단에 영향을 미친다(이자영 외, 2010).

셋째, 개인요인이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성격적, 행동적 특성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교중단 결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경숙, 2013). 학교중단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변인에는 부정적인 자아개념,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능력 및 외적 통제력 저하와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있다(김민, 2001). 또한 개인의 충동성이나 공격성, 우울, 포기성향과 같은 성격적 변인도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효능감이 낮고, 학업에 대한 포부도 낮아 학교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양국선 외, 2001).

〈표 2-1〉 학교 밖 청소년 발생원인

구분	주요 요인
학교요인	입시위주의 교육, 교사의 권위적 태도, 일상의 통제, 교육제도, 학습의욕 저하, 학교 부적응,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 등
가정요인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구조적 결함, 경제문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등
개인요인	부정적 자아개념, 낮은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능력 부재, 통제력 저하, 성격적 변인 등

3. 학교 밖 청소년 유형 및 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 되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다양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과거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창남 외(2001)는 학업중단자를 현재의 상태와 욕구에 따라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나누었다. 정착형은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진학형, 취업을 원하는 취업형,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직업훈련형으로 세분화하였다. 비정착형은 범죄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아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시설수용형, 가출을 하여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방치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경상 외(2005)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유형을 기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첫째, 중단된 학업을 마치고 난 뒤 직업을 희망하는 순수진학형, 둘째, 중단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채 취업이나 창업에 나서는 취업형, 셋째, 아르바이트를 갖고 생화비와 용돈을 충당하면서 독학,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단된 학업을 마치려는 생

각도, 취업할 생각도 없는, 즉 아르바이트만을 하며 지내는 아르바이트형 등으로 구분하였다.

윤철경(2013)은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학업형은 정규 학교에 복학하거나 대안학교 진학, 검정고시 준비 등을 하는 청소년, 직업형은 직업 기술을 배우거나 근로현장에서 8시간 일을 하는 청소년, 니트형은 혼자 또는 또래들과의 놀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비행형은 가출하여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소년부류심사원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윤철경,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아이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고했다. 첫 번째 유형은 의무기관 초등학교, 중학교에 처음부터 취학하지 않은 사람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학교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며, 세 번째 유형은 의무교육기관을 졸업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이다.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5)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중단 이후를 기준으로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하였다. 학업형은 검정고시를 공부하거나, 대학입시 준비, 복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업형은 특정한 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직업형은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와 아르바이트·취업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비행형은 가출하거나 보호시설 및 사법기관의 감독을 받는 경우, 은둔형은 집에서 나오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 각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업형 42.0%, 무업형 23.0%, 직업형 17.9%, 비행형 8.9%로 나타났다(관계부처합동, 2015).

〈표 2-2〉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연구자	학교 밖 청소년 유형	
	유형 분류 기준	유형 구분
박창남 외(2001)	학업중단자 상태 및 욕구	정착형(진학형, 취업형, 직업훈련형) 비정착형(시설수용형, 방치형)
이경상 외(2005)	학업중단 후 진로설정	순수진학형, 취업형, 아르바이트형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이후 경험	학업형, 직업형, 니트형, 비행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학교 진학 여부	의무교육기관 미취학 학교를 다니다 중퇴 의무교육기관 졸업 후 고등학교 미취학
여성가족부(2015)	학업중단 이후 상태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례

1.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국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이 제정된 2014년 이후부터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1:1 상담을 진행하며,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원의 주된 내용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이에 따라 학교복귀나 상급학교 진학 등 학업 취득을 위한 기초학습 역량이 제고되거나, 진로체험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의 두 가지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뿐 아니라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6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에서 우수 지원 사례로 꼽힌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례는 다음과 같다(〈표 2-3〉 참조).

〈표 2-3〉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우수 지원 사례 내용

구분	내용
대상자	박 ○ ○ (남자, 20세)
주요문제	보호체계없음, 진로 설계, 독립을 희망함
인테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지역 출신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충청북도에서 학교를 다니다 자퇴, 육상선수로 활동 후 비행 등을 겪고 광주로 이사 독립을 위해 검정고시와 아르바이트, 기술교육등이 필요한 상황 친구의 추천으로 대안학교와 생각하는 손 연결 작은 문신들과 차가운 얼굴표정과 조용한 말투, 큰 키로 위압감이 느껴짐 어른들에게 예의바른 행동을 하지만. 경계하는 모습도 함께 보임 진로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고, 특별히 잘 하는 것이 없다고 함 흡연과 운동으로 인한 부상 등으로 허리 등 몸이 좋지 못함 하지만, 친구의 표현으로 의리가 있고 예의 바르며, 변화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함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수업, 또래관계 형성 생각하는 손(청소년직업장)에서는 기술교육과 일경험(훈련수당 지급), 또래 관계 형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9월부터 생각하는 손 참여 2017년 2월 이후 단계별 교육훈련과정 진행, 진로교육 및 기술교육(1개월), 일경험활동(3개월), 2017년 5월부터 생각하는 손 직원으로 채용(4대 보험 적용, 보조강사 역할)
결과 및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공분야에 대한 진로 결정 취업으로 인한 안정적 생활 가능 가구제작 기능사 등 목공예자격과정 준비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자료집」

위의 사례는 직업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로서, 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자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습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성과들은 기사문에도 나타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서비스 성과 크다

[전북도민일보 2017.5.25. 기사문]

전라북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학습지원 서비스 사업이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상반기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총 179명이 제1회 중·고졸 학력취득 검정고시를 응시, 16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년간 전라북도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무주, 완주, 김제, 남원, 정읍, 순창)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청소년은 총 4,971명이다. 특히, 전라북도실태조사(2016.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학 및 학습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10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춰 기존 검정고시 공부방의 전문성을 강화, 꿈드림 멘토단의 학습멘토가 지도해주는 1:1 학습멘토링과 인터넷 강의를 지원했다.

또한 합격 이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학입시설명회,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부터 제2회 학력취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공부방이 전라북도 내 10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문의는 063)1388 또는 www.jb1388.kr로 가능하다.

이방희 기자

<https://blog.naver.com/leebangheui/22101415628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2014년 10월부터 삼성SDS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7개 학교 밖 청소년 연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건강한 디지털매체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보 리플렛).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프로그램 교육 및 효과성 검증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및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앱(청소년을 위한 사이버 안전지킴이)의 고도화 개발을 하였다. 또한 '점프(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계기관 문화공연 및 전시개최)' 및 학교 밖 청소년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개최, 디지털 역기능예방정책 현

장업무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은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관마다 운영방식에서 차이가 크며 대부분의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프로그램 진행 등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것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종사자들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을 소개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보 리플렛).

세부적인 내용 구성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방법(직접 모집, 기관 연계 모집, 아웃리치 노하우), 학교 밖 청소년 건강상태 확인(신체적, 심리적 정신 상태 파악), 기관 생활규칙 안내 및 관계하기(생활규칙 정하기 및 안내, 청소년 접근 노하우), 청소년 문제 및 욕구 파악 방법(청소년 생애 이해, 욕구조사), 프로그램 연계 및 진행방법(학습, 직업훈련, 특기적성활동, 문화 활동 등), 프로그램 평가(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활용), 사례관리(초기면접, 영역별 사정, 개입·실행과정, 점검 및 재사정, 평가 후 사후관리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기(물적, 인적 자원 등), 종결 및 사후관리 등(시설에서의 마무리, 퇴소 후 타기관 연계, 사례관리방안 등)을 제시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홍보 리플렛).

〈표 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계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주요사업내용
들꽃청소년세상	경기도 안산시	• 인턴십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지원, 아웃리치 및 드롬인센터 운영, 청소년 스마트폰 영상제 등 개최
세상을품은아이들	경기도 부천시	• 위기청소년 보호·생활시설 운영, 음악, 미술, 춤 등 문화예술 분야 활동 지원, 청소년 창업 및 자립 지원
대전광역시 청소년남자쉼터	대전광역시 중구	•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지원 연계방 구축, 상담·정서, 목공·수공예, 영상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해운대 종합사회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개인상담과 자립동기 프로그램 운영, 검정고시 준비 및 응시 지원, 진로탐색과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민들레학교	경기도 수원시	• 야간 무료식당운영과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청소년 가출 팜 발굴, 상담 및 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 거리 상담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공방과 락다방 등을 통한 일자리 발굴과 자립지원 제공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 미디어 작업을 통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발달 단계에 따른 개별 또는 집단별 미디어 프로젝트 운영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계기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방송콘텐츠 제작과 TV 방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앱 제작, 웹툰 제작 등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3년차) 리플렛」

2. 해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례

1) 미국

미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Child Trends Data Bank를 통해 공식적인 통계에서 만 16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연령에서 발생하는 정규교육과정(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등록률 대비 중도에 그만 둔 비율을 매년 보고하고 있다. Child Trends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장기 무단결석, 부모의 낮은 학력, 취업 또는 가족 부양 책임, 비행 또는 범죄, 전학, 낮은 학업 성취도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범죄에 연루되거나 비숙련 노동에 집중된 낮은 취업률과 저임금, 높은 실업률, 고용불안, 취약한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낮은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송미경, 2015).

미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되어 '가출 청소년(Runaway youth)', '거리 청소년(Homeless youth)' 등으로 설명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 가정이나 양육 및 보호시설 등에서 보호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나가 24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는 청소년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또는 반(半)항구적으로 가정이나 양육 및 보호시설에서 벗어난 상태의 청소년을 말한다(백혜정 외, 2015). 거리 청소년은 가족 해체나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법적으로 양육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보호자가 부재하고, 항구적으로 거처할 집이나 양육 및 보호시설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백혜정 외, 2015). 이러한 미국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미국사회에서는 정책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2차 현상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가출 청소년과 거리청소년이 발생한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정책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정부 전달체계는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Family & Youth Services Bureau), 복건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가족 및 청소년 서비스국과 복지부는 기초적인 생계 보장을 비롯한 주거 안정, 정신 건강 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관리,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대학 진학 및 성공적인 졸업을 위한 학업 및 생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위탁을 위한 교사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위탁 아동이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정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백혜정 외, 2015). 미국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교통 및

기초생활 지원, 의료 및 보건 지원 등 통합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이들이 성공적이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 및 지원책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표 2-5〉 미국 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 제정 및 지원 현황

연방 법/관련 주 법령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The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87(Title VII of the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대상) 노숙/집 없는 아동/청소년 • (주요 목적)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학업 수행 및 상급학교 진학을 통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자립 목적 • (주요 내용) 학교등록, 학비 및 생활지원, 교육 서비스 지원, 가족이나 부모와의 유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The Fostering Connection Act of 2008 / The College Cost Reduction Act(CCRAA) & The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y Act(HEOA) of 2008 / The Uninterrupted Scholar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대상) 위탁 아동/청소년 • (주요 목적) 기존의 혜택이 18세로 정해진 연령 제한을 21세로 연장하여 위탁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기술, 건강, 주거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 주거 지원, 교육 안정화, 직업 및 대학 지원, 건강 및 의료 혜택, 친인척보호를 위한 지원, 형제자매의 위탁 보호지역/보호자에 대한 인위적인 분리금지 서비스, 위탁청소년의 위탁 보호의 지속(21세까지 위탁 보호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과 독립을 도모함)
California : SB 1568, Chapter 5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교육청(Local Educational Agency)은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이 상급 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함
Maryland : SB 605, Chapter 5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이 원한다면 학교의 위치에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 및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며, 필요 시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Oklahoma : HB 1734, Chapter 3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S는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의료 보건 관련 기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해당 위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Passport 로 발급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RHYA)(P.L.110-378) of 2013 /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nd Trafficking Prevention Act(RHYTPA) of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대상) 무연고·가출·거리 아동 및 청소년 • (주요 목적) 기초적인 생활 및 주거안정, 학업 지속, 건강 및 의료지원 • (주요 내용) (필수) The Basic Center Program, Transitional Living Program, Street Outreach Program / (선택)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Intervene with Already-Homeless Youth, Independent Housing Options,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Juvenile Corrections and Foster Care Program
Illino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까지 위탁 및 거리 청소년(교정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청소년도 포함)의 성공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및 고용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주요 지원 부처는 아동 및 가족국(The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과 (청)소년 법원(The Juvenile Court)

연방 법/관련 주 법령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Ind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 및 빈곤 청소년을 위한 임시 보호소(Emergency Shelter)와 지원 서비스(A Shelter Care Facility) 제공
Minnes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 및 노숙 청소년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매년 4백만 달러를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JohnH.Chaf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CFC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대상) 현재 위탁 보호 중이거나 과거 위탁 보호를 경험한 18세-21세 청소년 (주요 목적)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자립 지원 및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성장지원 (주요 내용) 교육 및 훈련 바우처 제공(The Educational and Training Vouchers Program, ETV)

자료: Committee on Ways and Means(2014). Child welfare legislative histor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greenbook.wavasndmeans.house.gov/book/export/html/303>.;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ves.(2013). Educating children in foster care; State legislation. 2008-2012. <http://www.ncsl.org>.; NCSL.(2015). Fostering connections act; State action. <http://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fostering-connections-state-action.aspx>.;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세미나 자료 정리」

〈표 2-6〉 미국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 제정 및 지원 현황

관련법	프로그램명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Upward B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만 13세~19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지원하는 학생이 가족 내에서 최초의 대학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 (운영 신청 기관) 대학 교육 관련 담당자, 민간/사설 기관 및 조직, 고등학교 (목적)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진학 준비 (주요 지원 내용) 학업 지원(읽기, 쓰기, 학습방법), 학업 및 재정 관련 상담 및 워크숍, 개별 학습 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아카데미 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 참여 지원, 고등교육과정 및 대학 교육 기획에 대한 정보 제동, 대학 입학 및 제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Talent 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대상) 사회적 취약 또는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자 (운영 신청 기관) 대학 교육 관련 담당자, 민간/사설 기관 및 조직, 고등학교 (목적)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 진학 준비 (주요 지원 내용) 고등학교 재등록/재입학 또는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 재정, 경력 또는 진로, 개인적인 상담; 경력/진로 탐색 및 적성 검사; 개별 학습 지원; 2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 관련한 정보 제공; 대학 캠퍼스 탐문;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한

관련법	프로그램명	주요 대상, 목적 및 내용
		정보 제공(대학 입학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지원 포함);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지원; 멘토링; 고등학교 1학년~3학년 시기에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 제공 및 가족을 위한 워크숍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The Trailing Program for Federal TRIO progr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 TRIO program을 직접 수행하는 지도자 및 교사, 프로젝트 책임자 및 관련 운영자 • (운영 신청 기관) 공공 내지 민간 비영리 기관 또는 조직, 대학 기관 • (목적) TRIO program을 직접 수행하는 지도자 및 교사 등의 관련 지식 및 기술,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 지원 내용) 컨설팅 서비스; TRIO program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스트/검사 지원 서비스; 특수한 TRIO program 참여자와의 공동 연대활동; 법률적 및 행정적 요건 및 절차 수행의 위한 지원; 프로그램 평가; 대상 학생의 적절한 재정 지원을 위한 조력; TRIO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실행을 위한 지원; 직원/관련 운영자를 위한 직무 훈련/연수 지원; 교수법/교육공학 활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적절한 인적 및 예산 운영을 위한 지원

출처: National Dropout Prevention Center/Network.(2015). <http://dropoutprevention.org/services-certifications/>; ETS(2015). Dropping out of high school: Prevalence, risk factors, and remediation strategies. <http://www.ets.org.>; PCCY.(2014). How does access to childcare affect high school completion in Philadelphia's multiple pathways to graduation program? Philadelphia, PA: PCCY.: U.S.; Department of Education, & Federal Trio Programs(2008). A profile of the Federal TRIO programs and 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 program. <http://www.edpubs.org>. www.ed.gov/ope/trio/.;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12). Facing the dropout dilemma. Washington, DC.;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세미나 자료 정리」

2) 영국

영국은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한 이해와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유(교육 수당의 감소), 이사, 퇴학, 가정폭력이나 기타 여러 가정의 문제, 학습지원의 부족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그 외 니트족(NEET)의 증가를 또 하나의 발생요인으로 보고 있다(박선영, 2015).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은 2011년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의무 조항을 포함시켰다. 의무조항으로는 첫 번째, 정학 6일차부터 전일제 수업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두 번째,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점검, 세 번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네 번째, 결석하는 아동에게

학교 출석 명령 발행, 다섯 번째, 출석에 협조하지 않는 학부모에 대한 고소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1996년 교육법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일제 수업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지방정부 법정 지침에는 Children missing education(2015년 1월 교육부), Education and inspection Act(학부모에 대한 책임 부여, 학교에 대한 책임 강화 - 출석률 관리와 징계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지방정부의 의무를 두고 있는데 학대나 방임 아동 청소년, 집시(Gypsy) 청소년, 군자녀, 실종 아동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 수감 중인 청소년, 별다른 이유없이 결석이 많은 아동 청소년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정부와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구축 및 School2School로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박선영, 2015).

민간지원 정책으로는 센터포인트(Centrepoint)가 1969년 설립되어 노숙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적 자선단체로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얻고 가정을 꾸리며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다(정익중, 2009). 센터포인트의 주요 지원 정책은 주거지원, 건강지원, 학습지원, 독립지원, Centrepoint 의회 운영, 파트너십 구축 등 총 6가지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행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지속관리하고 있다.

〈표 2-7〉 영국 Centrepoint 지원 정책 및 내용

구분	내용
주거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8,400여명의 청소년 주거 지원 응급 야간 쉼터, 단기쉼터(9일), 중장기 쉼터(2년): (대상) 미혼부모와 소년원 출신의 청소년, 기타위기 청소년 Empty Homes Community Grant Fund 운영: 2015년 기준 영국 전역의 5개 도시에서 운영(향후 74개의 공동 주택 시설을 운영할 예정)
건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노숙자 쉼터를 이용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8배 이상 높으며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할 확률은 11배가 높음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무기력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 상담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운동 치료 병행 Centrepoint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33%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나, 7%만이 관련 진단을 받음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지원 및 학습지원 직업체험을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이력서·지원서 작성, 인터뷰기술, 직업박람회 참가) 디지털 문해 교육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 교육 기초 생활 기술 교육, 경제교육
독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독립생활로의 이행지원 입소 기간이 끝난 뒤에도 6개월 가량은 지속적 지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제공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관리와 건강관리 교육 Lifewise라는 워크숍을 운영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정보 제공
Centrepoint 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세에서 25세의 청소년 대표가 12개월의 임기동안 의회 운영 캠페인과 로비활동 수행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해외 사례 세미나」 자료집 정리

3) 일본

일본은 초·중등 교육기간을 9년으로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기간에 초·중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이 아닌 부등교(不登校)의 개념을 적용하며,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중도퇴학(高等學校 中途退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최현주, 2015). 일본 문부과학성 학교 기초조사(2015)에 따르면 2014년 장기결석자(30일 이상 결석자) 중 ‘부등교’를 이유로 하는 학생은 12만 2,902명으로 초등학생이 2만 5,866명, 중학생 9만 6,789명(전체 학생의 1.21%,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생 비율 대비 중학생은 36명 중 1명, 초등학생은 255명 중 1명이 부등교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부등교와 중도퇴학 학생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는 법률적 대책으로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있다. 아동·청년육성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니트·은둔형 외톨이·등교거부·발달장애 등과 같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연결망을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

일본은 법령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년지원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지역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고용, 보건·의료, 복지, 교정,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단체와 전문가와 상호 연계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쿄도 교육위원회, 문부과학성, 내각부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등교와 고등학교 중도퇴학자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부등교에 경우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 연계 네트워크에 의한 지원의 중요성 강조, 사회적 자립을 위한 학교교육의 의의와 역할 강조, 주병과의 접촉·관계 형성의 필요, 보호자와 가정을 지원하는 등을 구분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중도퇴학자 지원의 관점에서는

다양하고 개성적인 학생의 실태를 반영해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화·유연화·개성화를 추진 및 도모하고, 학교 지도 내실화와 가정 연계를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접근, 학습 지도의 개선 및 내실화를 추진, ‘참여하는 수업’, ‘알기 쉬운 수업’ 실시 등 매력적 교육활동 전개, 새로운 진로 선택 시 학생의 의지를 존중하면서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도방향 설정 등 대상에 따른 관점을 구분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민간지원정책으로는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이 대표적이며, 지역 내 고등학교 중도퇴학자를 고립시키지 않고, 사회와의 접점을 유지하며 새로운 취학, 취업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지원·설립되었다(백혜정, 2015). 후생노동성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으로 지역 내 NPC(Non Profit Organization)등에 사업을 위탁해 설치한 것으로 2011년 기준 전국에 11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커리어 컨설팅과 같은 전문적 상담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방문지원 담당자를 고용하여 자택 방문지원 실시, 학교교육에서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조기 자립·진로결정에 도움을 준다(최현주, 2015).

일본은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자립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을 단지 학교 돌아가게 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자립 차원의 문제로 연결시켜 부등교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정혜원 외, 2017).

제3절 소결

학교 밖 청소년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규 교육 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은 과거 중도탈락, 중퇴 등 부정적인 의미로 정의되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닌 학교제도 및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되므로, 이러한 의미가 반영되어 가치중립적인 입장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기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 외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의 특성, 부모의 특성을 포함한 가정적 특성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선행연구자들의 공통된 요인은 한국적 교육제도, 교사의 태도, 학교 부적응, 교유관계 등의 학교요인과 부모의 지위, 가정의 구조적 결함, 경제문제 등을 포함한 가정요인, 낮은 자존감 및 성격적 변인 등의 개인요인 등을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원인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적 해결이 아닌 사회 및 제도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유형화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업형, 진학형, 비행형, 은둔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원인분류와 마찬가지로 특정 기준이 아닌 선행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법률 및 정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정책지원과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강하며,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삶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적 접근은 단순한 학업중단 측면이 아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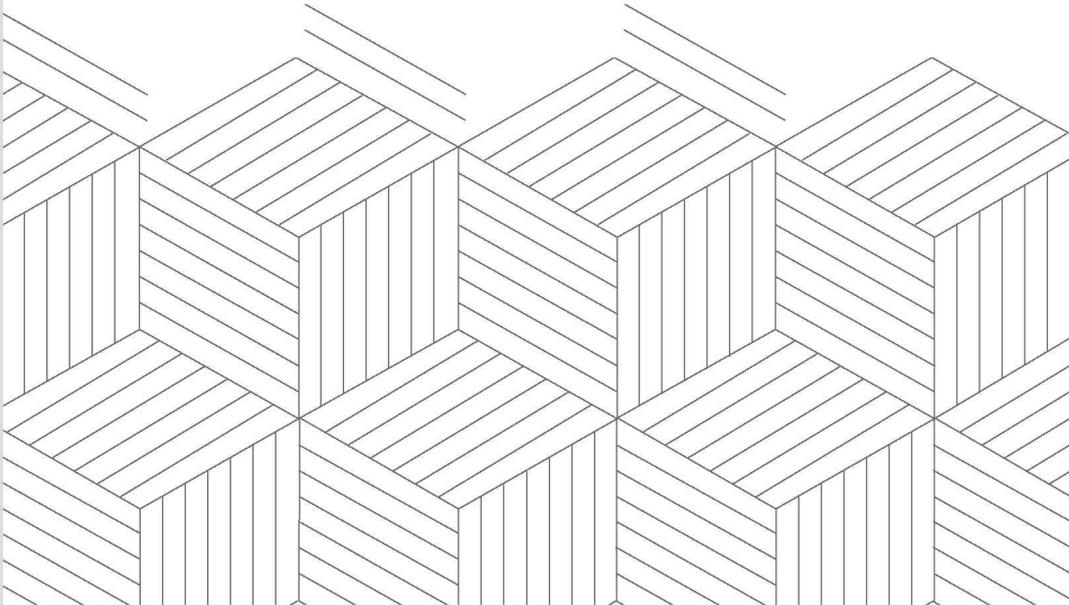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제3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현황

제4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제5절 소결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제1절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지원 정책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률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중단 예방과 중단 후 학력취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정경숙, 2013).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는 2012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수원시는 2015년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16곳, 부산광역시 12곳, 대구광역시 6곳, 인천광역시 7곳, 광주광역시 6곳, 대전광역시 3곳, 울산광역시 5곳, 세종특별자치시 1곳, 경기도 28곳, 강원도 3곳, 충청북도 5곳, 충청남도 12곳, 전라북도 4곳, 전라남도 15곳, 경상북도 2곳, 경상남도 5곳, 제특별자치도 1곳 등 총 131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17곳의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표 3-1〉 참조).

〈표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구분	법률	조항	내용
중앙부처	헌법	제34조 제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2항	청소년복지의 향상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7조	학교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 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운영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10조	기본계획 수립
		제11조	대안교육지원센터 설립
경기도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지원 조례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시행계획 수립
		제9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수원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1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자료: 정제영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재구성

1)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중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조항은 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4조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헌법」 주요 내용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8조). 특히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49조).

「청소년기본법」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14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3조).

특히,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중 학업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5)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조).

도지사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학습장애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교육 및 학습장애 지원
2.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등 활동 지원 사업[신설 2017.11.13.]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신설 2017.11.13.]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신설 2017.11.13.]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수원시의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제4조).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지원 사업,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7조).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1) 중앙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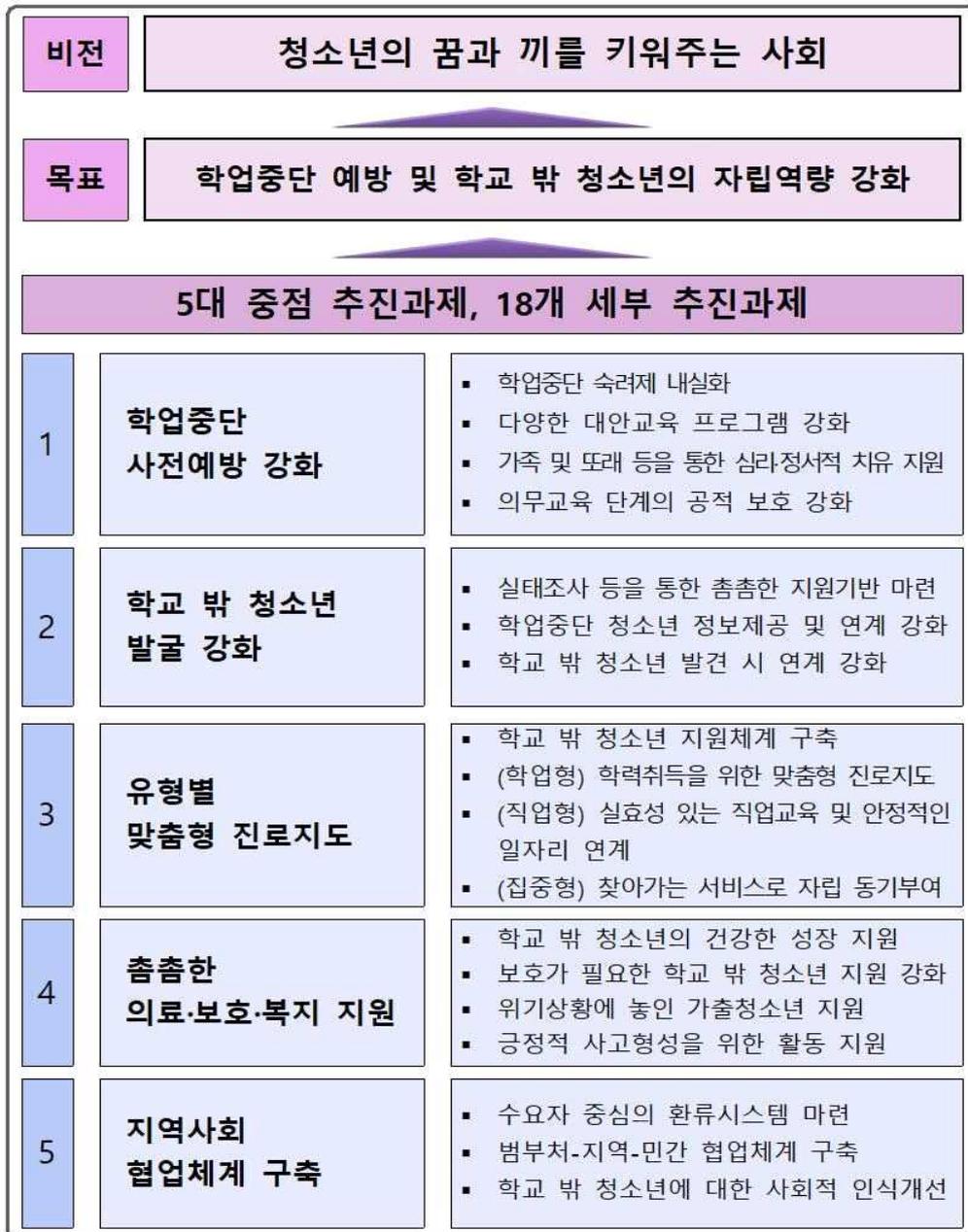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은 누적 28만 명으로 추정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 범죄율 증가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비해 국가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관계부처합동, 2015). 특히 학교와 학교 밖의 실질적 연계 체계 부족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생원인 등 실태파악 미흡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5.5.29.)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부처를 지정하게 된 이유는 집중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각 관계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프라 등을 활용한 연계방안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관계부처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있다.

정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비전인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사회’와 목표인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대 핵심 과제 18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대 핵심은 ①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②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③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④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이다(관계부처합동, 2015).

〈그림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기본 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

〈표 3-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추진과제 부처별 협조사항

추진과제	소관부처
1. 학업중단 사전예방 강화	
1-1.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	교육부
1-2.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강화	교육부
1-3. 가족 및 또래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유 지원	교육부·여가부
1-4.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 강화	경찰청·교육부 등
2.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강화	
2-1. 실태조사 등을 통한 촘촘한 지원 기반 마련	여가부·미래부
2-2.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제공 및 연계 강화	여가부·교육부
2-3.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연계 강화	여가부, 관계부처
3. 유형별 맞춤형 진로지도	
3-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여가부
3-2. (학업형)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	여가부
3-3. (직업형)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여가부·교육부·고용부
3-4. (집중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자립 동기부여	여가부·법무부
4. 촘촘한 의료·보호·복지 지원	
4-1.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복지부
4-2.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 강화	여가부, 관계부처
4-3. 위기 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 지원	여가부
4-4. 긍정적 사고형성을 위한 활동 지원	여가부·문체부
5.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5-1. 수요자 중심의 환류시스템 마련	여가부
5-2. 범부처-지역-민간 협업체계 구축	여가부, 관계부처
5-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여가부, 관계부처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

〈그림3-2〉 관계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학업중단 위기 학생은 교육부, 교육청(학교),

WEE센터 등이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지원을 위한 주된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그림 3-2〉 관계부처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도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

(1) 교육부

관계부처합동 학교 밖 지원 정책에서 교육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학업중단 숙려제 내실화로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이 있으며 출석률, 학업성취도 등 변인에 따라 학생의 학업중단 가능성을 예측하는 ‘학업중단 예측모형’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두 번째,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대안교실 활성화를 통한 대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프로그램 제공기관을 대학,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안학교 프로그램 질의 제고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안학교 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세 번째, 가족 및 또래 등을 통한 심리·정서적 치유를 지원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족 간 유대감·친밀감 증대 등 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대학생, 전문직업인, 학부모 등이 상담 등을 제공하는 꿈키움 멘토단을 확대·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를 강화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 미취학자, 중학교 미입학자 등 의무교육 전 단계에 걸친 정보 연계망을 구축하고 경찰이 학업이탈 학생을 발견한 경우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교육부가 연계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이탈을 예방하고,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거나,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유도적 교육방침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과 함께 연계 프로그램들은 구축하여 건강 및 가정 지원, 의무교육 이탈 방지 정보망 공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2)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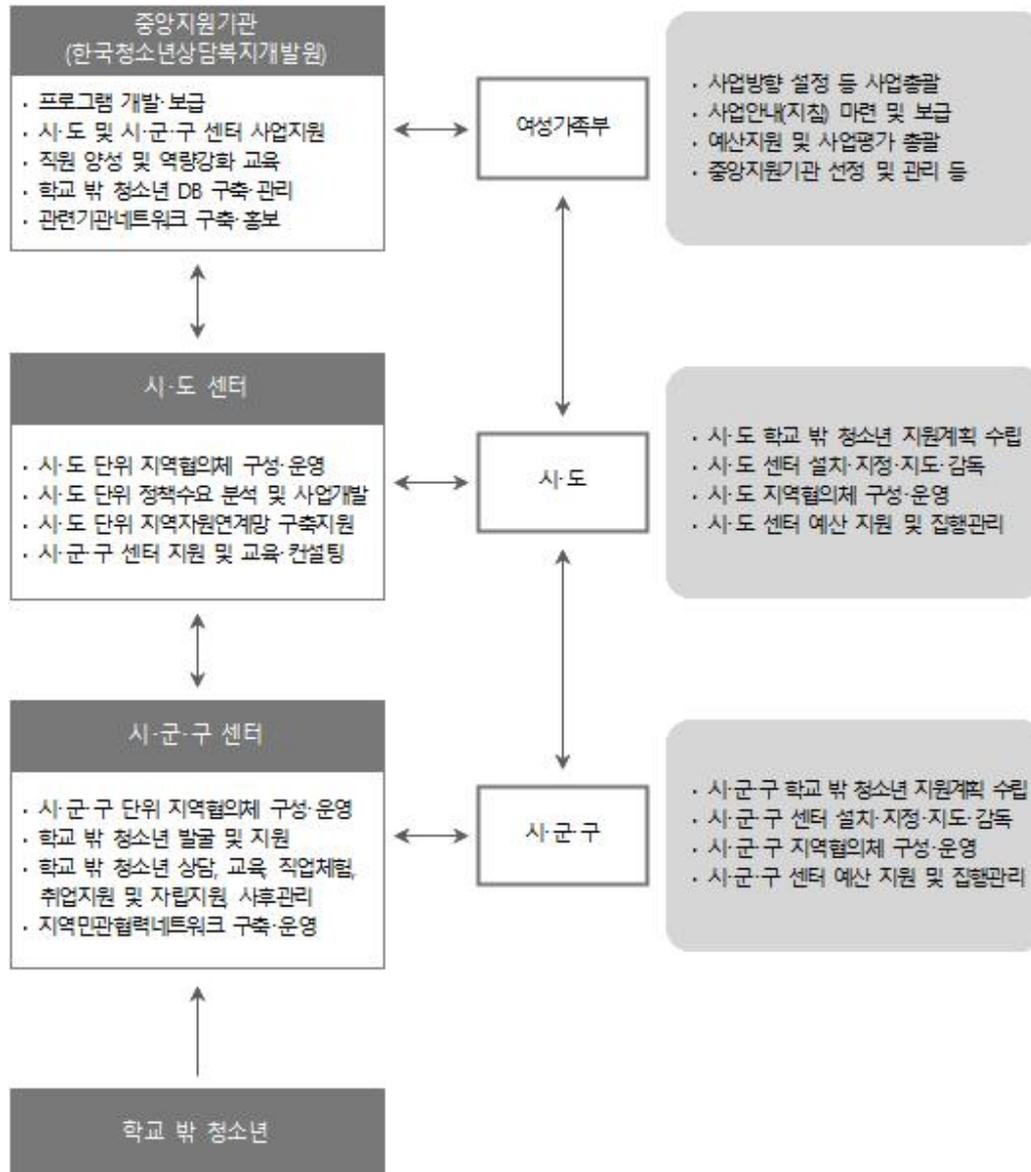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욕구·생활실태 및 지원체계·정책과제 등을 파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앞서 교육부와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제공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원프로그램을 안내 및 지정·설립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

진로지도에 있어 유형별 맞춤형 진로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쉼터·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더불어 사회진출 이후 원만한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상담 및 멘토링 등 일정기간 이후까지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꿈드림멘토링단을 구성하여 청소년관련학과 대학생 등이 참여, 학습지원, 자존감 회복, 진로지도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을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다른 지원 정책도 달리 시행하고 있다. 학업형의 경우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무업형은 상담,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진로를 설정한 후 학업형·직업형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설정하였다. 직업형은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비행형의 경우 소년원 입소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 자립의식 고취 교육을 법무부와 함께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마지막으로 은둔형에게는 찾아가는 동반자 전담 배치를 통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고, 가족상담, 자조모임 및 자립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이용 청소년은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치료도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그림 3-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추진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그림 3-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흐름도



자료: 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사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업인 두드림존과 해밀사업이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하여 시작되었다(선다솜, 2017). 그 후부터 두드림존 사업운영기관을 매년 추가하였고, 2011년에는 '상설 두드림존'을 16개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선다솜, 2017). 2015년 5월 29일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개소하였고, 현재 202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두드림·해밀 사업이「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확대·변경되면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의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선다솜, 2017).

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 및 연계를 시작으로 초기면접을 통하여 희망진로를 탐색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 청소년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에 따라 추가서비스 요청 시 지원이 가능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마친 뒤 서비스는 종결된다(선다솜, 2017).

제공되는 주요서비스는 5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째, 상담지원으로는 초기상담 및 욕구파악, 심리·진로·가족관계 등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둘째, 교육지원으로는 재취학 및 재입학 등의 복고지원, 상급학교, 검정고시에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이 제공된다(선다솜, 2017). 셋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으로는 진로교육,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선다솜, 2017). 넷째, 자립지원으로는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에 관련한 서비스가 제공된다(선다솜, 2017). 마지막, 기타서비스로는 건강검진서비스, 지역특성화프로그램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15년 3만 4천여명의 청소년이 상담, 학업, 취업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4천950여명이 검정고시를 취득, 상급학교에 진학해 학업에 복귀하고 4천여명이 직업훈련 참여, 자격증 취득, 취업 성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박민선, 2016).

2)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사업 총괄 및 조정,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발달, 도비 확보 및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시·군 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군 지자체는 주로 사업 운영 지도 감독,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 등의 역할을 하며, 시·군 센터는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담당한다(정제영 외, 2017).

〈그림 3-5〉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체계



자료: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2017.; 정제영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재인용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주요 사업은 전문상담 프로그램과 다릿돌 거점공간 운영이다.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활용한 도 및 시·군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며, 지원 사업 예산은 전문상담프로그램과 다릿돌 거점 공간 운영여부를 기준으로 편성된다. 전문상담프로그램과 다릿돌 거점 공간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총 예산은 124,500천 원이고, 전문상담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경우 69,500천 원, 다릿돌 거점 공간만을 운영하면 55,000천 원으로 책정된다. 도와 시·군 보조율은 각각 30%, 70%이다(정제영 외, 2017).

〈표 3-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전문상담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활동지원, 기타지원 • 멘토링: 학습멘토링, 직업 멘토링, 성장 멘토링 • 인턴십: 지역 내 사회적 기업, 각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기관 활용
다릿돌 거점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영역: 상담지원, 복지지원, 학습지원, 진로지원, 문화예술 체험 및 동아리 운영 • 선택영역: 문화공간, 캠프

자료: 정제영 외,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재구성

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꿈드림)은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들의 공간이다. 진로·이성·가족 문제 등 분야별 상담, 기초학습 지원 및 특기적성 교육, 직업(취업)체험 제공 및 자격취득 지원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 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청소년 길라잡이 나침반 사업으로 63,000천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연도별 성과는 총 3가지 성과지표로 구분하며(사례관리 및 상담, 맞춤형지원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지표들을 참여 학생수 및 횟수를 통해 평가하고 있다. 사례관리 및 상담은 2014년 1,293명에서 2015, 2016년 1,000명 이하로 극감하였다가 2017년, 2018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2014년 1,219명에서 2015년에 6,815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6년에 4,881명으로 감소한 후 2017년, 2018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은 2014년 0회에서 2015년 15회, 2016년 15회, 2017년 46회, 2018년 50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수원시 내부자료).

〈표 3-4〉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연도별 성과지표

성과지표	단위	연도별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례관리 및 상담	명	1293	746	932	1173	1200
맞춤형지원 프로그램	명	1219	6815	4881	5919	6000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회	0	15	15	46	50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또한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2018년까지 도비를 제외한 국비와 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비에 경우 2015년부터 투자되어 2018년도에는 110백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도비는 37백만 원, 시비는 198 백만 원이 확보되었다.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지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비용의 절반 이상은 수원시에서 확보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업무수행에 있어 보다 자주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표 3-5〉 참조).

〈표 3-5〉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확보	집행									
계												계획
국비	-	127	127	191	191	264	264	248	248	345	109	345
도비	-	-	-	47	47	77	77	81	81	110	46	110
시비	-	89	89	107	107	107	107	120	120	198	50	198
민간자본	-	-	-	-	-	-	-	-	-	-	-	-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본격화

수원시가 올해부터 학업중단 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가정 사정이나 자퇴, 퇴학,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리나라 학업중단 학생이 지난해 말 기준 6만여명(2014년 교육부 통계)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1인당 1억원에 달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사례관리 및 상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으로 추진된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지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육성재단 내 청소년 희망등대사업과 연계해 진로, 직업 멘토링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제공할 교육기부자를 확보(1대 1 매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지속·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내 유관 사회복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 사업에는 올해부터 2018년 이후까지 국·도·시비 등 7억6400만원이 투자된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달 제310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내달 본격 시행된다. 시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청소년 지원위원회도 설치해 행·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 뉴스1. 2015년 3월 21일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1324481>

제2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1.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주무부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관 산하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를 두고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관련 업무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그림 3-6〉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의 주요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며,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 공표하게 되어 있으며,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2. 교육부

교육부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학생지원국 산하 교육기회보장과에서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안교육과 학력인정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맡고 있다. 또한 교육통계과를 통하여 관련 통계를 집계하여 공공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관련 업무로는 학업중단·대안학교 관리 및 지원,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탈북학생 교육지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탈북학생교육지원, 학업중단 학생의 학력인정 사업 지원,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글로벌 브릿지,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학생 통계 등이 있다(교육부 홈페이지).

〈그림 3-7〉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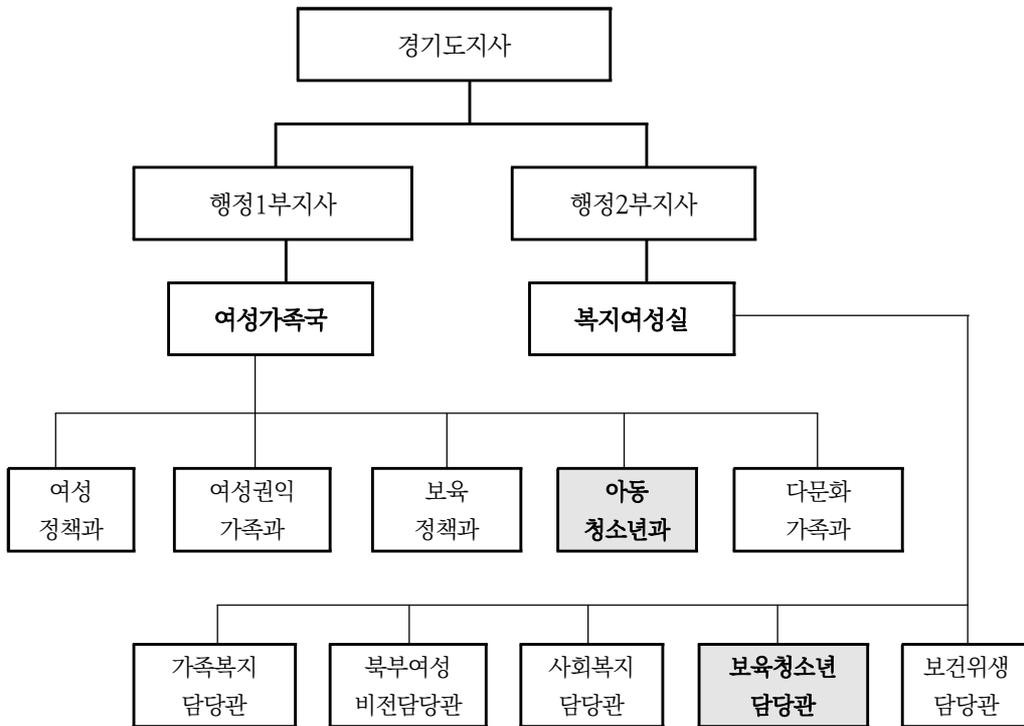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3. 경기도

경기도는 넓은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행정2부지사가 경기 북부지역의 행정을 맡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2개의 담당 부서가 존재한다.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로 구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데, 행정1부·2부로 업무 구분하는 가장 큰 분류요인으로는 행정1부지사는 경기남부 지역을 중점적으로 맡아 업무를 수행하며, 행정2부지사에는 경우는 북부 10개 시군을 주로 관할지역으로 업무 중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도 조직도상엔 구분되어 있으나, 업무는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행정1부지사 산하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 대책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에 포함하여 진행 중이다. 또한 행정2부지사 산하 복지여성실의 보육청소년 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북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경기도청 홈페이지).

〈그림 3-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자료: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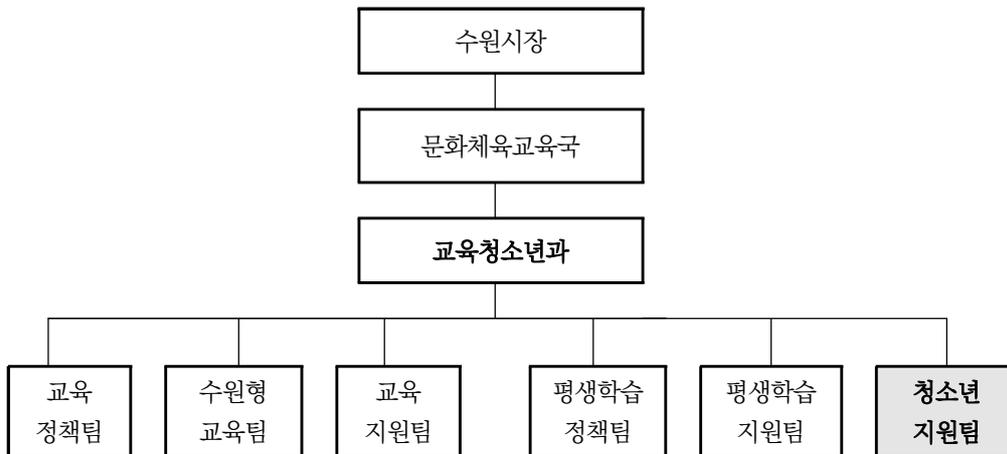
3. 수원시

수원시는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제1부시장 산하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청소년과에는 청소년지원팀을 두고 있다.

주요 담당업무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자유공간 시설관리,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추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추진, 청소년기본계획수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상담센터 지원, 청소년의회, 청소년육성공모사업,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장학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등이 있다(수원시청 홈페이지).

수원시에 경우 조직도에 학교 밖 청소년과 직접 관련하여 있는 업무는 청소년기본계획수립, 청소년육성재단 운영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업무는 포괄적으로만 관련되어 있는 수준으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하기에는 조직도상 업무 및 조직현황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3-9〉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 현황



자료: 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제3절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현황

1. 여성가족부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성함으로써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취업사관학교, 소년원, 보호관찰소, 쉼터 등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으로 총 315개 기관에서 5,13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5).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근 정규 학교를 그만 둔 시점은 고등학교가 50.3%로 가장 빈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이어서 중학교와 초등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6〉 참조).

〈표 3-6〉 가장 최근 학교를 그만 둔 시점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무응답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531	11.3	1,794	38.2	2,358	50.3	8	0.2	
성별	남성	309	10.1	1,111	36.2	1,640	53.5	7	0.2
	여성	222	13.7	683	42.1	717	44.2	1	0.1
	무응답	0	0.0	0	0.0	2	100.0	0	0.0
연령	9세~12세	111	97.4	3	2.6	0	0.0	0	0.0
	13세~15세	309	37.7	409	49.9	102	12.4	0	0.0
	16세~18세	101	3.2	1,239	39.1	1,818	57.4	7	0.2
	19세 이상	9	1.6	138	23.8	432	74.5	1	0.2
	무응답	1	9.1	4	36.4	6	54.5	0	0.0
기관 유형	학교밖지원센터	50	4.4	341	29.7	753	65.5	5	0.4
	취업사관학교	0	0.0	8	30.8	18	69.2	0	0.0
	단기쉼터	8	3.9	75	36.4	120	58.3	3	1.5
	이동쉼터	1	2.1	12	25.5	34	72.3	0	0.0
	미인가대안학교	462	34.9	658	49.7	204	15.4	0	0.0
	보호관찰소	7	0.4	571	34.0	1,101	65.6	0	0.0
	소년원	3	1.2	128	49.4	127	49.0	1	0.4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를 그만 둔 주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어나기 힘들어서’와 ‘공부하기 싫어서’가 각각 27.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22.3%, ‘검정고시 준비’가 15.3%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어나기 힘들어서’와 ‘공부하기 싫어서’와 같이 단순히 생활과 습관에 따른 단순한 이유에 있어서 남성의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와 같이 자신의 주관에 따른 이유에서 여성의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 특이점으로 9세~12세의 초등학생 응답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의 응답 비율이 높게 조사됨으로써 연령이 어리더라도 자신의 주관에 따른 의사결정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참조).

<표 3-7> 학교를 그만 둔 이유(상위 5가지 - 중복응답)

(단위 : 명, %)

구분	일어나기 힘들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검정고시 준비		학교분위기와 맞지 않아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289	27.5	1,276	27.2	1,047	22.3	717	15.3	675	14.4	
성별	남성	937	30.6	912	29.7	574	18.7	477	15.6	390	12.7
	여성	352	21.7	364	22.4	472	29.1	240	14.8	285	17.6
	무응답	0	0.0	0	0.0	0	0.0	0	0.0	0	0.0
연령	9세~12세	3	2.6	2	1.7	70	60.9	9	7.8	12	10.4
	13세~15세	142	17.3	189	23.0	288	35.1	89	10.8	111	13.5
	16세~18세	939	29.7	866	27.4	629	19.9	563	17.8	470	14.8
	19세 이상	203	35.1	212	36.6	60	10.4	54	9.3	81	14.0
	무응답	2	18.2	6	54.5	0	0.0	2	18.2	0	0.0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후회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 결과는 ‘후회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6.9%로 ‘후회한 적이 없다’ 42.8%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후회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 비율로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후회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년원과 보호관찰소에서 조사된 결과에서 후회 경험 빈도가 다른 유형과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음 의도와 다르게 범죄에 노출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되어서

야 비로소 뒤늦게 후회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8〉 참조).

〈표 3-8〉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후회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분		후회한 적 있다		후회한 적 없다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2,670	56.9	2,009	42.8
성별	남성	1,763	57.5	1,300	42.4
	여성	906	55.8	708	43.6
연령	9세~12세	25	21.7	90	78.3
	13세~15세	426	51.9	395	48.1
	16세~18세	1,814	57.3	1,341	42.4
	19세 이상	399	68.9	180	31.1
기관 유형	학교밖지원센터	606	52.7	543	47.2
	취업사관학교	16	61.5	10	38.5
	단기쉼터	133	64.6	74	35.9
	이동쉼터	26	55.3	20	42.6
	미인가대안학교	529	39.9	787	59.4
	보호관찰소	1,163	69.3	516	30.7
	소년원	197	76.1	59	22.8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불이익을 당한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요금을 더 많이 냄'이 전체의 30% 비율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대중교통을 비롯한 각종 요금과 입장권 등 학생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면서 직접적인 생활에서 즉시 느끼는 부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가능하다. 이어서 '사고 발생시 의심 받음'이 8.9%, '취업제한'과 '공모전 참여제한'이 각각 7.5%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의심받을 확률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취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 가능하다(〈표 3-9〉 참조).

〈표 3-9〉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불이익 경험

(단위 : 명, %)

구분	요금을 더 많이 냄		사고발생시 의심 받음		취업제한		공모전 참여제한		대학진학시 불이익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체	1,409	30.0	417	8.9	353	7.5	352	7.5	219	4.7	
성별	남성	889	29.0	320	10.4	231	7.5	198	6.5	118	3.8
	여성	520	32.0	96	5.9	122	7.5	153	9.4	101	6.2
	무응답	0	0.0	0	0.0	0	0.0	1	50.0	0	0.0
연령	9세~12세	0	0.0	0	0.0	0	0.0	3	2.6	0	0.0
	13세~15세	164	20.0	44	5.4	23	2.8	52	6.3	22	2.7
	16세~18세	1,029	32.5	304	9.6	231	7.3	235	7.4	151	4.8
	19세 이상	215	37.1	68	11.7	99	17.1	60	10.4	46	7.9
	무응답	1	9.1	0	0.0	0	0.0	2	18.2	0	0.0
기관유형	학교밖 지원센터	337	29.3	77	6.7	87	7.6	97	8.4	60	5.2
	취업 사관학교	10	38.5	5	19.2	4	15.4	4	15.4	1	3.8
	단기쉼터	68	33.0	41	19.9	37	18.0	25	12.1	16	7.8
	이동쉼터	15	31.9	6	12.8	5	10.6	4	8.5	3	6.4
	미인가 대안학교	263	19.8	32	2.4	32	2.4	89	6.7	70	5.3
	보호관찰소	620	36.9	206	12.3	160	9.5	111	6.6	53	3.2
	소년원	94	36.3	48	18.5	27	10.4	23	8.9	15	5.8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교 밖 청소년 본인들이 직접 꼽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대상자에게 1순위는 '검정고시지원'으로써 2.87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검정고시 지원이 대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특이사항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유형에 따라서는 쉼터와 소년원과 같이 가정 외 공간에 머물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제공'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어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있다는 점이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표 3-10〉 참조).

〈표 3-10〉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별 필요성 평가(상위 5순위)

(단위 : 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M	M	M	M	M
전체		검정고시지원	건강검진제공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진학정보제공
		2.87	2.82	2.78	2.76	2.75
성별	남성	검정고시지원	건강검진제공	각종질병치료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2.78	2.76	2.66	2.65	2.64
	여성	검정고시지원	진로탐색 체험	진학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건강검진 제공
		3.04	3.01	2.98	2.97	2.93
연령	9세~12세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체육활동 지원	활동공간 제공	문화예술지원
		3.00	2.99	2.91	2.86	2.80
	13세~15세	검정고시지원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활동공간 제공	건강검진 제공
		2.86	2.85	2.84	2.83	2.81
	16세~18세	검정고시지원	건강검진제공	진로탐색 체험	진학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2.90	2.84	2.79	2.77	2.76
	19세 이상	검정고시지원	건강검진제공	각종질병치료	진학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2.78	2.77	2.67	2.61	2.59
기관 유형	학교밖지원센터	검정고시지원	진학정보 제공	진로탐색 체험	직업교육훈련	학습 진로멘토
		3.09	3.00	2.96	2.94	2.89
	취업사관학교	직업교육훈련	건강검진제공	각종질병치료	자산관리정보	진로탐색 체험
		3.08	3.07	3.06	3.01	2.98
	단기쉼터	건강검진제공	각종질병치료	검정고시지원	진로탐색체험	직업교육훈련
		2.90	2.87	2.85	2.83	2.82
	이동쉼터	건강검진제공	각종질병치료	검정고시지원	청소년변경	진로탐색 체험
		2.59	2.55	2.53	2.51	2.44
	미인가대안학교	진로탐색체험	활동공간 제공	직업교육훈련	건강검진 제공	문화예술지원
		3.15	3.10	3.04	3.04	3.03
	보호관찰소	검정고시지원	건강검진제공	각종질병치료	진학정보 제공	직업교육훈련
		2.63	2.57	2.43	2.41	2.38
	소년원	건강검진제공	직업교육훈련	각종질병치료	진로탐색체험	가족관계개선
		2.95	2.92	2.86	2.84	2.81

자료: 여성가족부,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 중장기 정책의 비전과 목표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종합적인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관리를 목표로 하는 조사로 2011년, 2014년, 2017년 각각 3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9~24세 청소년 모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전국 5,086가구(청소년 7,676명, 주양육자 5,086명)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실태조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 부분에서 확인가능하다.

최근 실시된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보고된 학업중단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는 “경험 있음”이 0.9%로 조사되었으며, 과거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초등학교 때 보다는 고등학교 때, 농산어촌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학업중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점은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는 초등학교 때 학업중단 경험의 발생 가능성이 낮았을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학업중단 발생 가능성이 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것이다(〈표 3-11〉 참조).

〈표 3-11〉 학업중단 경험 유무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최근 중단 시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전체	99.1	0.9	1.0	23.1	75.9	
연령	13세~18세	99.6	0.4	4.8	42.8	52.3
	19세~24세	98.8	1.2	-	18.1	81.9
성별	남성	99.0	1.0	-	28.0	72.0
	여성	99.2	0.8	2.4	16.4	81.3
지역별	대도시	99.3	1.7	2.6	33.8	63.6
	중소도시	99.0	1.0	-	20.0	80.0
	농산어촌	99.1	0.9	-	8.6	91.4

자료: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또한,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에 있어서, 전체 대상 1순위는 ‘공부하기 싫음’이 차지하여 과거 조사 결과와 유사하였지만, 전체 대상 2순위 이유가 ‘선생님의 차별’로 조사된 것이다. ‘선

생님 차별'에 대한 내용은 높은 연령의 청소년 뿐 아니라 여성 조사 대상에서도 1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 뿐 아니라 교육 일선의 선생님에 대한 조사와 세심한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표 3-12〉 참조).

〈표 3-12〉 학업중단 주된 이유

(단위 :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전체		공부하기싫음 (13.1)	선생님차별 (12.6)	아침기상힘듦 (12.2)	신체건강상 (9.0)	친구의 영향 (8.6)
연령	13세~18세	공부하기싫음 (19.0)	신체건강상 (17.0)	심리정신문제 (14.2)	특기 살리기 (12.6)	학교분위기 (11.6)
	19세~24세	선생님차별 (15.8)	아침기상힘듦 (3.5)	공부하기싫음 (11.6)	친구의 영향 (10.8)	이민해외유학 (7.9)
성별	남성	공부하기싫음 (17.1)	아침기상힘듦 (12.4)	심리정신문제 (11.3)	이민해외유학 (10.8)	친구의 영향 (10.3)
	여성	선생님차별 (18.2)	신체건강상 (13.2)	검정고시준비 (12.4)	아침기상힘듦 (11.8)	공부하기싫음 (7.6)
지역별	대도시	아침기상힘듦 (21.6)	공부하기싫음 (20.2)	이민해외유학 (19.0)	검정고시준비 (13.6)	신체건강상 (9.1)
	중소도시	친구의영향 (19.8)	신체건강상 (12.7)	공부하기싫음 (12.5)	선생님차별 (11.5)	선생님과 싸움 (11.5)
	농산어촌	선생님차별 (41.1)	아침기상힘듦 (21.3)	가정불화 (15.2)	특기살리기 (13.8)	심리정신문제 (8.6)

자료: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 대상자 중 4.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매우 소규모로서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정책과 관심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결과로 볼 수 있다(〈표 3-13〉 참조).

〈표 3-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체		95.5	4.5
연령	13세~18세	86.7	13.3
	19세~24세	97.7	2.3
성별	남성	94.5	5.5
	여성	96.8	3.2
지역별	대도시	100.0	-
	중소도시	92.7	7.3
	농산어촌	92.7	7.3

자료: 여성가족부,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제4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1. 전국 학교 밖 청소년 현황

교육부에서는 매년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초·중·고등학교 현황 중 학업중단 학생 현황으로 가늠하여 집계 가능하다.

2015년 이전 발표된 각종 자료에서는 매년 6만 여명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 발표된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최근 5년을 재집계 결과, 2015년과 2016년 연간 학업중단 학생수는 약 4만 7천여명 규모로 과거 대비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7).

최근 5년 간 전체 증감률은 8.4% 감소한 가운데, 특이점은 초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학생수의 감소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4만 7천여 명의 학생수 규모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 매년 초·중·고등학생 인구가 동기간 연평균 3.4%씩 감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학교 밖 청소년수가 감소 경향으로 전환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표 3-14〉, 〈표 3-15〉 참조).

〈표 3-14〉 최근 5년 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연평균 증감률
합계		47,663	47,070	51,906	60,568	68,188	-8.4
학교구분	초등학생	14,998	14,555	14,886	15,908	16,828	-2.8
	중학생	8,924	9,961	11,702	14,278	16,426	-14.1
	고등학생	23,741	22,554	25,318	30,382	34,934	-8.8

자료: 교육부-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3~2017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표 3-15〉 최근 5년 간 전국 8세~19세 인구 변화 현황

(단위 : 만명, %)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연평균 증감률
총인구수		5,111	5,095	5,076	5,056	5,035	0.4
8세~19세 소계		654	675	699	726	753	-3.4
연령구분	8세~13세	283	287	300	319	336	-4.2
	14세~16세	175	186	191	196	203	-3.6
	17세~19세	196	203	208	211	214	-2.1

자료: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2012~2016 조회자료 자체 집계 작성)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학업중단 학생수 현황을 보면, 전체 학생수 572만여 명 중 학업 중단 학생수는 47,663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수 대비 0.8%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여학생이 22,386명을 점유하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남녀 학생의 비율은 53% : 47%로 나타나 남학생의 중단 비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년별로 유사 규모의 학생수가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13,748명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872명으로 가장 낮은 수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시기에는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자아형성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입시과정이 시작됨에 따른 학교생활 부적응과 각종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그에 반하여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중단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입시에 전념하는 기간으로 더 이상의 이탈 발생률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단,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중단 학생수의 남녀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이 40.8%로 남학생에 비하여 10%p 가까이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입시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극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표 3-16〉 참조).

〈표 3-16〉 학년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전체		여학생		
		인원수	전체 학생수 대비 비중	인원수	학업중단 학생수 대비 비중	
총계	5,725,260	47,663	0.8	22,386	47.0	
초 등 학 생	소 계	2,674,227	14,998	0.6	7,107	47.4
	1학년	454,419	3,160	0.7	1,501	47.5
	2학년	428,855	2,635	0.6	1,273	48.3
	3학년	447,618	2,635	0.6	1,265	48.0
	4학년	471,824	2,556	0.5	1,196	46.8
	5학년	429,475	2,370	0.6	1,120	47.3
	6학년	414,762	1,642	0.4	752	45.8
중 학 생	소 계	1,381,334	8,924	0.6	4,302	48.2
	1학년	452,231	3,358	0.7	1,605	47.8
	2학년	469,168	2,850	0.6	1,404	49.3
	3학년	459,935	2,716	0.6	1,293	47.6
고 등 학 생	소 계	1,669,699	23,741	1.4	10,977	46.2
	1학년	522,374	13,748	2.6	6,456	47.0
	2학년	579,250	8,121	1.4	3,757	46.3
	3학년	568,075	1,872	0.3	764	40.8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초중고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초·중학생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미인정 유학 및 해외 출국’이 70.2%로 월등히 높으며,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79.8%, 중학생의 경우 54.0%로 어릴 수록 해외 유학에 따른 학업중단 사유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17〉 참조).

〈표 3-17〉 초·중등학생 학년별 학업중단 학생 사유

(단위 : 명, %)

구분	학업중단 학생수 계	학업중단 사유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기타	
총계 (비중)	23,922 (100.0)	492 (2.1)	75 (0.3)	16,785 (70.2)	6,570 (27.5)	
초등학생	소계	14,998 (100.0)	137 (0.9)	11 (0.1)	11,967 (79.8)	2,883 (19.2)
	1학년	3,160	53	3	2,133	971
	2학년	2,635	18	2	2,166	449
	3학년	2,635	17	1	2,197	420
	4학년	2,556	13	2	2,162	379
	5학년	2,370	15	3	1,986	366
	6학년	1,642	21	0	1,323	298
중학생	소계	8,924 (100.0)	355 (4.0)	64 (0.8)	4,818 (54.0)	3,687 (41.3)
	1학년	3,358	94	6	1,721	1,537
	2학년	2,850	119	18	1,567	1,146
	3학년	2,716	142	40	1,530	1,004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초중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사유는 법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중학생과 달리 자퇴와 퇴학, 제적 등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학교 내 퇴출이 가능함에 따라 그 사유의 괴를 달리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발적인 학업중단인 ‘자퇴’가 95.7%를 점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분류가 어려운 ‘기타’ 사항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학교 부적응’이 30.4%로 매우 높게 점유하고 있다(〈표 3-18〉 참조).

〈표 3-18〉 고등학생 학년별 학업중단 학생 사유

(단위 : 명, %)

구분	학업중단 학생수 계	학업중단 사유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소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고등 학생	소계	23,741 (100.0)	22,712 (95.7)	993 (4.2)	346 (1.5)	7,208 (30.4)	3,938 (16.6)	10,227 (43.1)	777 (3.3)	252 (1.1)
	1학년	13,748	13,240	515	169	4,226	2,465	5,865	396	112
	2학년	8,121	7,790	359	126	2,350	1,283	3,672	255	76
	3학년	1,872	1,682	119	51	632	190	690	126	64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고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고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학업관련’ 문제로서, 2, 3학년생에 비하여 1학년생에게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학교를 거쳐 본격적인 입시를 준비하게 되는 고등학생의 심리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표 3-19〉 참조).

〈표 3-19〉 고등학생 부적응에 따른 자퇴 세부 사유

(단위 : 명, %)

구분	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 학생수 계	부적응에 따른 자퇴 세부 사유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고등 학생	소 계	7,208 (30.4)	3,707 (15.6)	315 (1.3)	344 (1.4)	2,842 (12.0)
	1학년	4,226	2,177	179	211	1,659
	2학년	2,350	1,193	113	107	937
	3학년	632	337	23	26	246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고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지역별 학업중단 전체 학생수 현황을 보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지역 내 전체 학생수 대비 0.9% 비중인 14,330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위험에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 학생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서 1.2%인 10,950명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의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학업중단 학생수와 비중이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남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20〉 참조).

〈표 3-20〉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전체		여학생	
		인원수	전체 학생수 대비 비중	인원수	학업중단 학생수 대비 비중
서울	938,302	10,950	1.2	5,045	46.1
부산	331,244	2,459	0.7	1,115	45.3
대구	280,265	1,994	0.7	887	44.5
인천	327,491	2,346	0.7	1,150	49.0
광주	195,065	1,449	0.7	678	46.8
대전	182,971	1,657	0.9	746	45.0
울산	140,877	772	0.5	389	50.4
세종	37,005	306	0.8	149	48.7
경기	1,523,636	14,330	0.9	6,802	47.5
강원	167,595	1,306	0.8	617	47.2
충북	180,076	1,312	0.7	602	45.9
충남	244,912	1,734	0.7	817	47.1
전북	217,835	1,341	0.6	659	49.1
전남	206,506	1,295	0.6	626	48.3
경북	278,474	1,711	0.6	781	45.6
경남	392,080	2,263	0.6	1,095	48.4
제주	80,926	438	0.5	228	52.1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초중고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 중 학생 현황(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지역별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현황을 보면, 학업중단을 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지역 내 전체 학생수 대비 0.7% 비중인 5,104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어서 학업중단 초등학생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서 1.0% 비중인 4,412명을 차지하고 있다(〈표 3-21〉 참조).

〈표 3-21〉 초등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전체		여학생	
		인원수	전체 학생수 대비 비중	인원수	학업중단 학생수 대비 비중
서울	428,333	4,412	1.0	2,057	46.6
부산	150,863	693	0.5	337	48.6
대구	124,708	465	0.4	230	49.5
인천	156,470	636	0.4	329	51.7
광주	88,189	398	0.5	175	44.0
대전	84,240	608	0.7	254	41.8
울산	66,016	216	0.3	112	51.9
세종	20,764	151	0.7	73	48.3
경기	733,941	5,104	0.7	2,420	47.4
강원	75,722	308	0.4	155	50.3
충북	84,240	238	0.3	108	45.4
충남	116,963	403	0.3	197	48.9
전북	97,383	243	0.2	120	49.4
전남	93,233	227	0.2	114	50.2
경북	127,642	324	0.3	145	44.8
경남	186,619	440	0.2	219	49.8
제주	38,901	132	0.3	62	51.7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초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지역별 학업중단 중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을 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로 지역 내 전체 학생수 대비 0.8% 비중인 2,860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이어서 학업중단 초등 학생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서 1.0% 비중인 2,228명을 차지하고 있다(〈표 3-22〉 참조).

〈표 3-22〉 중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전체		여학생	
		인원수	전체 학생수 대비 비중	인원수	학업중단 학생수 대비 비중
서울	227,001	2,228	1.0	1,033	46.4
부산	80,719	499	0.6	242	48.5
대구	68,893	273	0.4	138	50.5
인천	78,826	476	0.6	233	48.9
광주	47,900	235	0.5	106	45.1
대전	44,961	322	0.7	160	49.7
울산	32,931	149	0.5	69	46.3
세종	8,602	52	0.6	26	50.0
경기	366,856	2,860	0.8	1,384	48.4
강원	41,274	216	0.5	114	52.8
충북	43,530	215	0.5	114	53.0
충남	57,544	267	0.5	126	47.2
전북	53,303	244	0.5	132	54.1
전남	49,642	188	0.4	89	47.3
경북	65,906	261	0.4	127	48.7
경남	93,843	342	0.4	160	46.8
제주	19,603	97	0.5	49	50.5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중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학생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지역별 학업중단 고등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을 중단한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로 지역 내 전체 학생수 대비 1.5% 비중인 6,366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초·중학생과 달리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은 울산과 제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해당 지역의 전체 학생수 대비 1.3%~1.5%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은 상대적으로 지역적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23〉 참조).

〈표 3-23〉 고등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학생수	학업중단 학생수			
		전체		여학생	
		인원수	전체 학생수 대비 비중	인원수	학업중단 학생수 대비 비중
서울	282,968	4,310	1.5	1,955	45.4
부산	99,662	1,267	1.3	536	42.3
대구	86,664	1,256	1.4	519	41.3
인천	92,195	1,234	1.3	588	47.6
광주	58,976	816	1.4	397	48.7
대전	53,770	727	1.4	332	45.7
울산	41,930	407	1.0	208	51.1
세종	7,639	103	1.3	50	48.5
경기	422,839	6,366	1.5	2,998	47.1
강원	50,599	782	1.5	348	44.5
충북	52,306	859	1.6	380	44.2
충남	70,405	1,064	1.5	494	46.4
전북	67,149	854	1.3	407	47.7
전남	63,631	880	1.4	423	48.1
경북	84,926	1,126	1.3	509	45.2
경남	111,618	1,481	1.3	716	48.3
제주	22,422	209	0.9	117	56.0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chedi.re.kr>)-학교기본통계-고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학생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초·중학생의 지역별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전 지역에서 ‘미인정 유학 및 해외 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의 경우 5,443명으로 학업중단 학생의 82.0%가 유학 관련 사항으로 이탈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경기도가 5,506명, 69.1%의 규모를 점유하고 있어, 수도권일수록 타 지역에 비하여 어린 시절 유학에 따른 공교육 이탈 빈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4〉 참조).

〈표 3-24〉 초·중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학업중단 학생수 계	학업중단 사유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기타
서울	6,640	70	11	5,443	1,116
부산	1,192	43	9	765	375
대구	738	27	2	520	189
인천	1,112	21	6	716	369
광주	633	12	1	347	273
대전	930	10	3	549	368
울산	365	7	2	287	69
세종	203	1	0	177	25
경기	7,964	123	13	5,506	2,322
강원	524	13	3	280	228
충북	453	29	8	273	143
충남	670	21	5	427	217
전북	487	21	4	289	173
전남	415	22	5	204	184
경북	585	32	2	349	202
경남	782	33	1	516	232
제주	229	7	0	137	85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초중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학생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고등학생의 지역별 학업중단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발적인 학업중단인 ‘자퇴’ 중에서도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하여 부적응 사유 비중은 낮지만 ‘해외 출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초·중학생의 사유와 유사성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5〉 참조).

〈표 3-25〉 고등학생 지역별 학업중단 학생 사유

(단위 : 명, %)

구분	학업중단 학생수 계	학업중단 사유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계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고 등 학 생	서울	4,310	4,180	208	57	1,074	1,151	1,690	82	48
	부산	1,267	1,199	48	13	423	192	523	43	25
	대구	1,256	1,168	50	16	568	132	402	82	6
	인천	1,234	1,162	68	15	214	196	669	62	10
	광주	816	768	52	6	253	89	368	17	31
	대전	727	692	48	6	247	127	264	31	4
	울산	407	379	15	6	121	65	172	26	2
	세종	103	99	4	0	41	15	39	3	1
	경기	6,366	6,170	244	46	1,663	1,287	2,930	140	56
	강원	782	745	29	12	265	62	377	32	5
	충북	859	833	32	9	432	61	299	16	10
	충남	1,064	1,002	35	25	322	122	498	51	11
	전북	854	818	28	30	330	86	344	24	12
	전남	880	835	42	49	353	72	319	36	9
	경북	1,126	1,062	37	33	496	71	425	49	15
	경남	1,481	1,397	48	20	390	153	786	77	7
	제주	209	203	5	3	16	57	122	6	0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고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학생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또한, 지역별 고등학생의 학교 부적응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학업관련 문제로서, 학업의 어려움에 따른 부적응은 지역적 차이가 없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표 3-26〉 참조).

〈표 3-26〉 고등학생 지역별 부적응에 따른 자퇴 세부 사유

(단위 : 명, %)

구분	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 학생수 계	부적응에 따른 자퇴 세부 사유				
		학업관련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고등 학생	서울	1,074	525	65	112	372
	부산	423	228	15	6	174
	대구	568	451	16	22	79
	인천	214	129	5	6	74
	광주	253	109	12	8	124
	대전	247	126	12	13	96
	울산	121	74	3	4	40
	세종	41	9	3	1	28
	경기	1,663	752	83	64	764
	강원	265	143	15	9	98
	충북	432	204	31	32	165
	충남	322	158	14	6	144
	전북	330	172	7	8	143
	전남	353	165	10	18	160
	경북	496	229	8	17	242
	경남	390	223	16	16	135
	제주	16	10	-	2	4

자료: 교육부-2017교육통계연보(<https://kess.kedi.re.kr>)-학교기본통계-고등학교 학교별 개황 및 학업중단학생현황 (2017교육통계연보 발간자료 자체 집계 작성)

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연도별 경기도와 수원시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은 2015년, 15,463명, 2016년 14,143명, 2017년 14,330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2015년 1,608명, 2016년 1,363명, 2017년 1,484명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 다시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표 3-27〉 참조).

〈표 3-27〉 연도별 경기도,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학교 밖 청소년 수	구분		학교 밖 청소년 수
경기도	2015년	15,463	수원시	2015년	1,608
	2016년	14,143		2016년	1,363
	2017년	14,330		2017년	1,484

자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부자료

연도별 수원시 초·중학교 학업중단자는 ‘자퇴’, ‘퇴학’, ‘제적’ 없이 유예와 면제로만 현황이 집계되었으며, 초등학생의 유예 현황은 2016년(154명)에 잠시 증가하였다가 다시 떨어졌으며, 초등학생의 면제는 2017년(380명)에 크게 증가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유예는 연도별로 감소추세이며, 면제는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28〉 참조).

〈표 3-28〉 연도별 수원시 초·중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¹⁾	면제 ²⁾
초등학교	2015년	-	-	-	132	360
	2016년	-	-	-	154	339
	2017년	-	-	-	134	380
중학생	2015년	-	-	-	280	99
	2016년	-	-	-	189	104
	2017년	-	-	-	165	123

자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부자료

- 1) 유예: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해당학년 취학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
- 2) 면제: 질병이나 부모 1인 이상 동행하는 유학, 부모의 해외파견·취업 등으로 인한 해외출국 등으로 교육의무를 면하는 것

연도별, 유형별 수원시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을 보면 일반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자가 가장 많았으며,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특목고등학교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5년 일반고등학교의 학업중단자 중 자퇴가 가장 많았으며, 시기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면제를 통한 학업중단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퇴로 인한 학업중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29〉 참조).

〈표 3-29〉 연도별, 유형별 수원시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자퇴	퇴학	제적	유예	면제
일반 고등학교	2015년	561	5	1	-	-
	2016년	465	2	3	-	-
	2017년	560	6	1	2	-
특목 고등학교	2015년	9	2	-	-	-
	2016년	6	-	-	-	-
	2017년	5	-	-	-	-
특성화 고등학교	2015년	147	1	-	-	-
	2016년	86	1	-	1	-
	2017년	98	2	-	-	-
자율 고등학교	2015년	9	2	-	-	-
	2016년	13	-	-	-	-
	2017년	8	-	-	-	-

자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부자료

제5절 소결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 밖 청소년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는 학령인구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단순 수치로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업중단의 경우, 자발적인 자퇴가 대다수로, 이들은 개인적인 이유와 학교 부적응을 자퇴의 이유로 언급하였다. 특히, 학교 부적응의 경우 학업관련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큰 것으로 유추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학업중단 학생수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서 살펴본 학업중단 이유와 연계해 볼 때, 서울과 경기도 학생의 학업부담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 둔 이유로 기상시간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관찰소 및 소년원 등에서 후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학교를 그만 둔 후 불이익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검정고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마치려는 욕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향후 지속적인 학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이 많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범죄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원인분석 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직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지원 및 정책개발보다는 업무수행 및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별, 도시유형별, 사회환경별 유형 및 특성이 구분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조직구조의 권한이 수직적이기 보다 완만한 수직 및 수평에 이르는 구조로써 자발적이고 유연한 지원조직구조의 형태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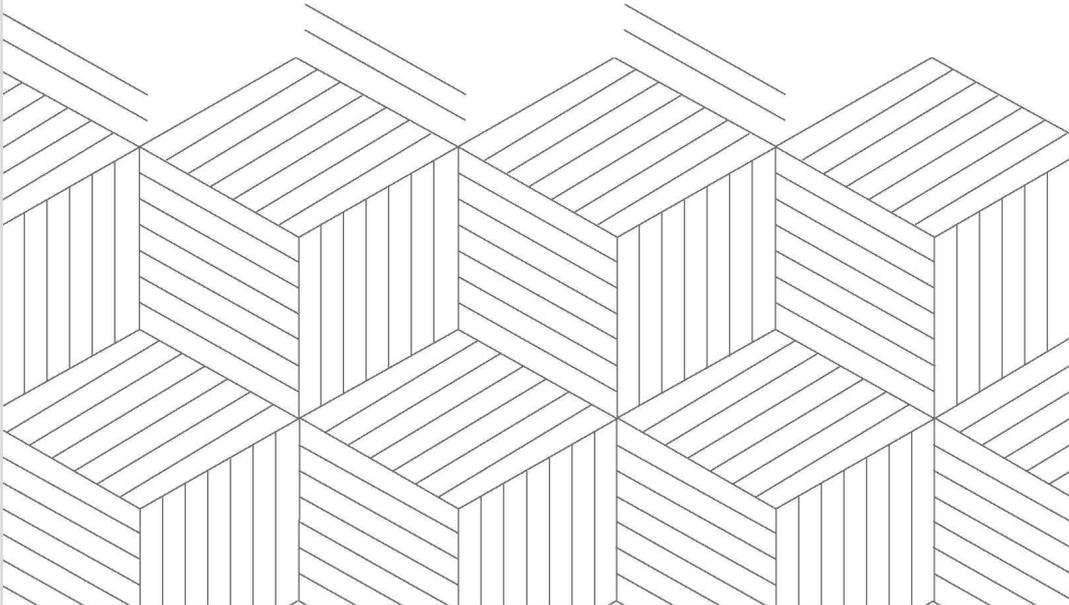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3절 심층면접조사(FGI) 개요

제4절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제4장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본 설문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수원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 학계의 연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되고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즉 ‘배경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전반(시기, 이유)’,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정량적 지표로 측정하는데 있다.

둘째,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혹은 요구사항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지원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수원시만의 차별적이거나 차등적인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수원시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내실 있는 각종 지원 사업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수집된 계량적 지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영향 및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심층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논거를 제시한다.

2)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조사목적에 맞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분석 영역과 변수를 선정하였다. 배경요인 영역을 포함하여 4개 영역, 39개 설문

문항, 세부설문문항 포함 총 55개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배경요인’에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과 부모님의 혼인, 직업, 학력 등의 관계를 물어 학교 밖 청소년과의 연관성을 확인해보고, ‘학업중단’ 영역에서는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시기와 그만 둔 당시의 전반적 상황, 부모님 및 가족의 태도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영역에서는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심리상태, 아르바이트 및 동아리 활동여부 등을 묻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설 및 사업 등이 얼마나 인지되고 있으며, 활용되어지는지 여부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표 4-1〉 참조).

〈표 4-1〉 설문문항의 영역별 구성

영역	내용
배경요인	가족 구성원, 부모님 혼인 상태, 부모님 직업 여부, 부모님의 학력, 그만 둔 학교 지역, 성별, 출신연도, 자유의견
학업중단	학교를 그만 둔 시기, 현재까지 기간, 그만 둔 당시 형태, 그만 둔 이유, 함께 의논한 사람, 그만 둔 당시 정보제공, 부모님의 태도, 가족관련 질의,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 성적, 행동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를 그만두고 후회 여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경험, 친구관계, 생활장소, 학생신분이 아니어서 경험한 것, 주요생활실태, 본인의 변화정도, 아르바이트 경험, 동아리활동 참여경험, 진로 관련 질의, 직업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기준, 자신에 대한 평가, 심리상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학교를 그만 둔 후 겪는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시설지원 및 사업지원 인지여부, 경험 유무, 사업지원 및 시설지원 만족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간 필요도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 수집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부 및 수원시의 지원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시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대상자와의 직접조사방법으로 시행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공부방 제공, 진로 및 적성 수업 진행, 상담실시 등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수업 보다는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른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보다 장기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수원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 기관에 자주 방문하므로, 그들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각 세부문항에 대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SPSS 23.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사안에 대한 인식정도와 분포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기법 및 자료 수집의 빈도분석 현황은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기법 및 자료 수집 현황

구분	분석방법		비고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SPSS 23.0		빈도분석, 교차분석
구분	설문지 수	비율	조사기간
권선청소년수련관	83	62.4	18.05. ~ 18.09.
대안학교	50	37.6	18.05. ~ 18.07.
총계	133	100.0	-

제2절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배경요인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배경요인’ 영역은 응답자인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연령, 가족 등 기본 정보와 부모님의 혼인상태, 직업여부, 학력 등을 함께 물어본 영역으로 응답자와 부모와의 연관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기본 응답자 정보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는 남성 55명(41.4%), 여성 75명(56.4%)으로 여성 학교 밖 청소년이 약 20명 이상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률은 3명(2.3%)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남자	55	41.4
여자	75	56.4
무응답	3	2.3
총계	133	100.0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은 8세 이상 ~ 13세 이하는 3.8%(5명), 14세 이상 ~ 16세 이하 32.3%(43명), 17세 이상 ~ 19세 이하 53.4%(71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은 고등학생 나이에 속하는 17세 이상 ~ 19세 이하 연령의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응답률은 1명(0.8%)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표 4-4〉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8세 이상 ~ 13세 이하	5	3.8
14세 이상 ~ 16세 이하	43	32.3
17세 이상 ~ 19세 이하	71	53.4
20세 이상	13	9.8
무응답	1	0.8
총계	133	100.0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의 가족 구성형태(56명, 42.2%)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14명, 10.6%), 친어머니(12명, 9.0%)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경우는 6.8%(9명)였으며 동성 친구, 동성 선후배와 사는 경우는 1.5%(2명)로 조사되었다. 무응답률은 2.3%(3명)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5〉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표본수(명)	비율(%)
혼자	9	6.8
부모님	14	10.6
부모님, 형제, 자매	56	42.2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	2	1.5
부모님, (외)할머니	2	1.5
부모님, (외)할머니, 형제, 자매	6	4.5
친아버지	2	1.5
친아버지, 형제, 자매	1	0.8
친아버지, (외)할머니, 형제, 자매	1	0.8
친아버지, 친척	1	0.8
친아버지, 형제, 자매, 동성 친구, 동성 선후배	1	0.8
친아버지, 새어머니, 형제, 자매	4	3.1
친어머니	12	9.0
친어머니, 형제, 자매	8	6.0
친어머니, (외)할머니·할아버지, 형제, 자매	1	0.8
친어머니, 새아버지	1	0.8
친어머니, 새아버지, (외)할머니	1	0.8
친어머니, 새아버지, 형제, 자매	5	3.8
(외)할머니, 형제, 자매, 친척	1	0.8
동성 친구, 동성 선후배	2	1.5
무응답	3	2.3
총계	133	100.0

2) 가족 기본 응답자 정보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부모님은 아버지(79명, 59.4%), 어머니(80명, 60.2%) 모두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혼, 재혼 그리고 별거 등 혼인 상태의 변화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도 상당 수(재혼, 별거, 이혼의 아버지, 어머니 합계 평균 9.7%)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6〉 친부모님의 혼인 상태는?

(단위 : 명, %)

구분	돌아가심	첫 번째 결혼 유지	재혼	별거	이혼	잘 모르겠음
아버지	3(2.3)	79(59.4)	7(5.3)	6(4.5)	25(18.8)	8(6.0)
어머니	0(0.0)	80(60.2)	16(12.0)	5(3.8)	19(14.3)	6(4.5)

부모님(보호자)의 직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경우 82.0%(109명)가 있다에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어머니의 경우도 66.9%(89명)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버지와 비교하면 차이를 있었다. 보호자의 경우 22.6%(30명)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 부모님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7〉 참조).

〈표 4-7〉 부모님(보호자)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명, %)

구분	부/모님(보호자)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잘 모르겠음
아버지	6(4.5)	109(82.0)	6(4.5)	6(4.5)
어머니	5(3.8)	89(66.9)	30(22.6)	5(3.8)
보호자	36(27.1)	30(22.6)	2(1.5)	7(5.3)

부모님의 학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48명, 36.1%)이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55명, 41.4%)이 가장 많았다. 보호자는 잘 모르겠음(13명, 9.8%)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비교적 학교 밖 청소년 부모님들의 학력은 저학력(무학, 초등, 중학교 졸업)보다 고학력(고

등학교 이상 졸업자)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8〉 부모님(보호자)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부/모님 (보호자)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아버지	3(2.3)	2(1.5)	1(0.8)	8(6.0)	40(30.1)	48(36.1)	15(11.3)	15(11.3)
어머니	3(2.3)	0(0.0)	2(1.5)	12(9.0)	55(41.4)	35(26.3)	11(8.3)	14(10.5)
보호자	33(24.8)	0(0.0)	0(0.0)	2(1.5)	5(3.8)	12(9.0)	1(0.8)	13(9.8)

2. 학업중단

‘학업중단’ 설문은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그만 둘 당시의 심리상태, 부모님의 도움과 형태, 주변 기관 및 시설들로부터 정보취득 여부 등을 물어보는 영역으로 전반적인 학업중단 이전과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며, 부모님과 가족이 학업중단 이후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여 왔는지 함께 확인해보고자 한다.

1)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형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85명, 64.9%), 중학교(28명, 21.1%), 초등학교(12명, 11.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응답률은 3.8%(5명)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고등학교 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표 4-9〉 학교를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초등학교	15	11.3
중학교	28	21.1
고등학교	85	63.9
무응답	5	3.8
총계	133	100.0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교 때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은 3학년(3명, 20%) 때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5명, 33.3%),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은(4명, 26.7%)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인 3학년(13명, 46.4%) 때 학업중단이 보다 많이 이루어졌으며, 반대로 고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인 1학년(60명, 70.6%), 2학년(18명, 21.2%) 때 고학년인 3학년(6명, 7.1%) 보다 높은 학업중단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표 4-10〉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는 언제입니까?(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표본수(명)	비율(%)
초등학교	1학년	0	0.0
	2학년	1	6.7
	3학년	3	20.0
	4학년	0	0.0
	5학년	0	0.0
	6학년	2	13.3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음	4	26.7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음	5	33.3
	무응답	0	0.0
	총계	15	100.0
중학교	1학년	7	25.0
	2학년	8	28.6
	3학년	13	46.4
	무응답	0	0.0
	총계	28	100.0
고등학교	1학년	60	70.6
	2학년	18	21.2
	3학년	6	7.1
	무응답	1	1.2
	총계	85	100.0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둘 때 학교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권선구(40명, 30.1%)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팔달구(30명, 22.6%), 기타(29명, 22.3%), 영통구(19명, 14.3%), 장안구(9명, 6.8%)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11〉 참조).

무응답률은 4.5%(6명)로 나타났으며 기타응답에는 경기도 군포시, 오산시, 화성시, 안양시, 성남시, 의왕시, 평택시 등 경기도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서울시 중구와 전주시 등 그 외 지역도 조사되었다.

〈표 4-11〉 귀하가 그만 둔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었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장안구	9	6.8
권선구	40	30.1
팔달구	30	22.6
영통구	19	14.3
기타	29	22.3
무응답	6	4.5
총계	133	100.0

학교를 그만 둔 후 현재까지 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3년 이상(30명, 22.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 이상 ~ 2년 미만(26명, 19.5%),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25명, 18.8%), 2년 이상 ~ 3년 미만(12명, 9.0%), 6개월 이상 ~ 1년 미만(11명, 8.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12〉 참조).

무응답률은 13.5%(18명)였으며, 학교를 그만 둔지 1년 이상(51.1%)인 경우가 1년 미만(35.1%)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학교를 그만 둔 후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1개월 미만	11	8.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5	18.8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1	8.3
1년 이상 ~ 2년 미만	26	19.5
2년 이상 ~ 3년 미만	12	9.0
3년 이상	30	22.6
무응답	18	13.5
총계	133	100.0

학교를 그만 둔 형태에 대해서는 자발적 자퇴(91명, 68.4%)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타(11명, 8.2%), 비자발적 자퇴(9명, 6.8%), 징계로서의 퇴학(6명, 6.8%), 유예(4명, 3.0%), 보호처분(2명, 1.5%),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1명, 0.8%)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13〉 참조).

무응답률은 6.8%(9명)였으며, 기타응답으로는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재미가 없기 때문에, 유학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표 4-13〉 학교를 그만 둔 당시 학교를 그만 둔 형태는 무엇입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자발적 자퇴	91	68.4
비자발적 자퇴	9	6.8
징계로서의 퇴학	6	4.5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1	0.8
유예	4	3.0
보호처분	2	1.5
기타	11	8.2
무응답	9	6.8
총계	133	100.0

2) 학교를 그만 둔 이유와 정보공유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해 1순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17명, 12.7%)와 신체 건강상의 이유(16명, 12.0%)를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2순위로는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15명, 11.3%),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12명, 9.0%)를 응답하였으며, 3순위에는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잘 맞지 않아서(14명, 10.5%), 학교가 너무 멀어서(10명, 7.5%)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표 4-14〉 참조).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는 본인의 육체적·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가 멀어서 등 외부 환경요인도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학교의 규칙, 선생님의 차별과 체벌 등 학교생활문제는 학교를 그만 두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분위지만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가장 큰 이유를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16	12.0	1	0.8	1	0.8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9	6.8	15	11.3	6	4.5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17	12.7	12	9.0	7	5.3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	1.5	5	3.8	3	2.3
부모님과 갈등으로 인해	0	0.0	3	2.3	2	1.5
부모님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3	2.3	1	0.8	0	0.0
부모님의 폭력 때문에	0	0.0	0	0.0	1	0.8
부모님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2	1.5	1	0.8	2	1.6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6	4.4	2	1.5	5	3.8
검정고시를 준비하려고	2	1.5	8	6.0	7	5.3
공부하기 싫어서	6	4.4	11	8.3	8	6.0
내 특기를 살리려고	6	4.4	11	8.3	5	3.8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3	2.3	2	1.5	0	0.0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2	1.5	6	4.5	6	4.5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9	6.8	8	6.0	3	2.3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7	5.3	6	4.5	4	3.0
이성문제로 인해	0	0.0	1	0.8	2	1.5
학교를 그만 둔 친구의 영향으로	0	0.0	2	1.5	3	2.3
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2	1.5	3	2.3	7	5.3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0	0.0	1	0.8	0	0.0
선생님과 사위서	2	1.5	2	1.5	2	1.5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4	3.0	5	3.8	7	5.3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3	2.3	3	2.3	0	0.0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9	6.8	6	4.5	14	10.5
학교가 너무 멀어서	3	2.3	3	2.3	10	7.5
전학이 잘 안되서	1	0.8	1	0.8	1	0.8
유해환경(유해업소, 폭력집단 등) 때문에	1	0.8	0	0.0	0	0.0
아르바이트로 피곤해서	2	1.5	0	0.0	0	0.0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0	0.0	0	0.0	1	0.8
기타	12	9.1	1	0.8	3	2.4
무응답	4	3.0	13	9.8	23	17.3
총계	133	100.0	133	100.0	133	100.0

학교를 그만 둔 무렵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부모님(89명, 34.8%)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51명, 19.9%), 담임선생님(27명, 10.5%), 형제자매(24명, 9.4%)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16명, 6.3%), 아무도 없었다(16명, 6.3%, 담임 외 교과 선생님(11명, 4.3%), 학교 상담선생님(7명, 2.7%), 선후배(4명, 1.6%),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4명, 1.6%), 학원 선생님(2명, 1.6%), 인터넷 상 모르는 사람(1명, 0.4%), 기타(1명, 0.4%)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15〉 참조).

전반적으로 학교를 그만 두는데 있어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지인을 통한 고민 상담이 주를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 전문가 및 교내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과의 고민상담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학교를 그만 둘 무렵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표본수(명)	비율(%)
부모님	89	34.8
형제자매	24	9.4
친구	51	19.9
선후배	4	1.6
담임선생님	27	10.5
담임 외 교과 선생님	11	4.3
학원 선생님	2	0.8
학교 상담선생님	7	2.7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4	1.6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16	6.3
친척	3	1.2
인터넷 상 모르는 사람	1	0.4
아무도 없었다.	16	6.3
기타	1	0.4
총계	256	100.0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제시된 문항에 대해 학교로부터 정보 제공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모든 문항에 대해 정보 제공 경험보다 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학업중단속려제’ 58.6%(78명),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68.4%(91명),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57.9%(77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61.7%(82명),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56.4%(75명), ‘진로나 직업교육 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센터)’ 75.9%(101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 대한 정보’ 66.9%(89명)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즉,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둘 당시에 필요하거나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6〉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제공 받은 경험	
	있다	없다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46(34.6)	78(58.6)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34(25.6)	91(68.4)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46(36.1)	77(57.9)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42(31.6)	82(61.7)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49(36.8)	75(56.4)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센터)	22(16.1)	101(75.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 대한 정보	35(26.3)	89(66.9)

3) 학교를 그만 두기 전·후 상황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은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이해 및 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은 문항 ① ~ ⑥에 해당되며, 두 번째, 무관심 및 육체적·정신적 상해 여부에 대한 질문은 문항 ⑦ ~ ⑩에 해당한다. 첫 번째 질문에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질문에는 부정적인 행위나 폭언 등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7〉 참조).

특히, 매우 그렇다 응답 중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셨다’ 24.1%(32명), ‘공부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셨다’ 26.3%(35명) 등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 하며, 과거 학업중단에 반대가 강하던 부모님들의 모습과는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찬가지로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대와 폭언 등은 매우 그렇다 비율이 3% 미만으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의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이 29.3%(39명)로 자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학업중단이 발생 하여도 부모님과의 보완책 혹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4-17〉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셨다.	17(12.8)	17(12.8)	36(27.1)	25(18.8)	32(24.1)
②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12(9.0)	22(16.5)	38(28.6)	25(18.8)	30(22.6)
③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셨다.	16(12.0)	18(13.5)	40(30.1)	26(19.5)	27(20.3)
④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15(11.3)	14(10.5)	48(36.1)	21(15.8)	29(21.8)
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셨다.	15(11.3)	9(6.8)	56(42.1)	19(14.3)	28(21.1)
⑥ 공부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셨다.	13(9.8)	20(15.0)	37(27.8)	22(16.5)	35(26.3)
⑦ 나보다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39(29.3)	24(18.0)	43(32.3)	12(9.0)	8(6.0)
⑧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42(31.6)	23(17.3)	42(31.6)	11(8.3)	9(6.8)
⑨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리셨다.	93(69.9)	11(8.3)	19(14.3)	1(0.8)	3(2.3)
⑩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셨다.	69(51.9)	17(12.8)	26(19.5)	13(9.8)	2(1.5)

부모님과 가족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보인 행위에 대해서 부모님이 서로 다투시거나(전혀 그렇지 않다 36.1%), 부모님 간에 폭력이 발생(전혀 그렇지 않다 53.4%)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을 쏟았다(보통 29.3%)’, ‘우리 가족은 하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보통 33.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지하였다(보통 31.6%)’ 등은 보통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도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아 다수의 가족들은 가족 간의 유대감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4-18〉 참조).

〈표 4-18〉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귀하의 부모님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부모님은 서로 다투셨다.	48 (36.1)	21 (15.8)	21 (15.8)	10 (7.5)	7 (5.3)	22 (16.5)
부모님 간에 폭력이 발생하였다.	71 (53.4)	13 (9.8)	14 (10.5)	2 (1.5)	5 (3.8)	24 (18.0)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은 쏟았다.	18 (13.5)	18 (13.5)	39 (29.3)	20 (15.0)	18 (13.5)	16 (12.0)
우리 가족은 하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18 (13.5)	8 (6.0)	44 (33.1)	23 (17.3)	21 (15.8)	15 (11.3)
우리 가족은 서로 의지하였다.	14 (10.5)	13 (9.8)	42 (31.6)	22 (16.5)	22 (16.5)	16 (12.0)

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36명, 27.1%)',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40명, 30.1%)' 등 보통 정도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학업 친구들과 관련하여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34명, 25.6%)'의 문항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43명, 32.3%)',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들었다(43명, 32.3%)' 등 보통 정도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표 4-19〉 참조).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보통정도의 생활을 하였으며, 학교 친구들과 관련된 문항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전 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는 평균 응답률이 17.9%로 부정적인 학교생활을 보낸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9〉 학교를 그만두기 전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26(19.5)	17(12.8)	36(27.1)	32(24.1)	12(9.0)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23(17.3)	20(15.0)	40(30.1)	29(21.8)	12(9.0)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24(18.0)	11(8.3)	32(24.1)	34(25.6)	23(17.3)
나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29(21.8)	14(10.5)	41(30.8)	24(18.0)	16(12.0)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20(15.0)	19(14.3)	43(32.3)	26(19.5)	16(12.0)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들었다.	21(15.8)	29(21.8)	43(32.3)	14(10.5)	17(12.8)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하위권(58명, 43.6%)에 속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하위권(23명, 17.3%), 중위권(22명, 16.5%), 중상위권(16명, 12.0%), 상위권(7명, 5.3%) 순으로 조사되었다. 무응답률은 5.3%(7명)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표 4-20〉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하위권	58	43.6
중하위권	23	17.3
중위권	22	16.5
중상위권	16	12.0
상위권	7	5.3
무응답	7	5.3
총계	133	100.0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생활과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빈도를 물어본 결과 지각의 경우 거의 매일(38명, 28.6%)과 전혀 없었다(31명, 23.3%)는 상반되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단결석은 전혀 없었다(54명, 40.6%)가 가장 많았다. 두발·

복장 등 규정위반, 숙제를 하지 않음, 수업을 몰래 빼 먹음, 선생님에게 대들,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1〉 참조).

지각과 관련하여 앞서 〈표 4-14〉의 학교를 그만 둔 이유 중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가 본 문항과 연관 지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4-21〉 귀하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지각	31(23.3)	22(16.5)	13(9.8)	25(18.8)	38(28.6)
무단결석	54(40.6)	12(9.0)	16(12.0)	21(15.8)	27(20.3)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80(60.2)	3(2.3)	16(12.0)	13(9.8)	17(12.8)
숙제를 하지 않음	62(46.6)	8(6.0)	12(9.0)	9(6.8)	38(28.6)
수업을 몰래 빼 먹음(무단조퇴)	73(54.9)	9(6.8)	13(9.8)	18(13.5)	17(12.8)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94(70.7)	8(6.0)	12(9.0)	7(5.3)	9(6.8)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79(59.4)	23(17.3)	10(7.5)	7(5.3)	11(8.3)

3.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의 설문은 학교 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친구관계, 활동범위, 심리적 변화 등을 확인하고자 하며, 아르바이트 및 동아리 활동 등 학업중단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 활동실태와 경제활동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서는 44.4%(59명)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후회를 하지 않는 비율 48.9%(59명)로 조사되어 후회보다는 후회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응답률은 6.8%로 조사되었다(〈표 4-22〉 참조).

〈표 4-22〉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예	59	44.4
아니오	65	48.9
무응답	9	6.8
총계	133	100.0

학교를 그만 둔 후 가장 후회했던 것에 대해서는 1순위, 2순위 모두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1순위 22명, 16.5% / 2순위 11명, 8.3%),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1순위 15명, 11.3%, 2순위 14명, 10.5%)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3순위에는 졸업장을 못 받는 것(13명, 9.8%),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11명, 8.3%) 등을 응답하였다(〈표 4-23〉 참조).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관련된 것(친구 사귄, 다양한 경험)을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졸업장 수여 및 소속감을 갖지 못하는 것도 후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	22	16.5	11	8.3	10	7.5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6	4.5	6	4.5	6	4.5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15	11.3	14	10.5	8	6.0
졸업장을 못 받는 것	13	9.8	6	4.5	13	9.8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5	3.8	11	8.3	11	8.3
학생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못 누리는 것	0	0.0	8	6.0	7	5.3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6	4.5	10	7.5	9	6.8
기타	0	0.0	0	0.0	0	0.0
없음	3	2.3	1	0.8	1	0.8
무응답	63	47.3	66	49.6	68	51.0
총계	133	100	133	100	133	100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1순위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40명, 30.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9명, 6.6%)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36명, 27.0%), 취업(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14명, 10.3%) 순으로 응답하였다. 3순위는 학교 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17명, 12.9%),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13명, 9.8%),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13명, 9.8%)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4-24〉 참조).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움을 들 수 있으며, 학업스트레스와 학교 규칙에 자유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해방감을 느끼게 되어 후회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24〉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40	30.0	8	6.0	10	7.7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9	6.6	36	27.0	13	9.8
취업(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	8	6.0	14	10.3	10	7.7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2	1.5	5	3.8	13	9.8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0	0.0	3	2.3	2	1.5
학교 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7	5.3	5	3.8	17	12.9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것	0	0.0	1	0.8	2	1.6
선생님의 차별과 체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1	0.8	1	0.8	2	1.6
기타	4	3.1	0	0.0	0	0.0
없음	5	3.8	1	0.8	5	3.8
무응답	57	42.9	59	44.4	58	43.6
총계	133	100	133	100	132	100

2)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후 검정고시 공부를 가장 많이 경험(64명, 50.4%)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상담을 받음(53명, 39.8%),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50명, 37.6%)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로와 정신적 치료 및 고민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5〉 참조).

하지만 검정고시 공부를 제외 한 대안학교, 대학입시 등의 학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진로상담, 직업기술 등 진로선택을 위한 방안, 그리고 심리상담 및 병원 입원 등 육체적·정신적 치료 문항 모두 경험해 본 응답보다 경험하지 않은 응답률이 높아, 기타 다른 활동 혹은 아직 무언가 활동할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5〉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경험 유무	
	있다	없다
대안학교에 다님	29(21.8)	96(72.2)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67(50.4)	59(50.4)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 학원 등)	20(15.0)	106(79.7)
진로상담을 받음	53(39.8)	74(55.6)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23(17.3)	103(77.4)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50(37.6)	77(57.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15(11.3)	110(82.7)

학교를 그만 둔 후 친구유형은 기존의 학교 친구(24명, 18.1%) 보다 학교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35.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32명, 24.1%)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친구를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 보내는 학교 밖 청소년(20명, 15.0%)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6〉 참조).

〈표 4-26〉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어떤 친구(선·후배 포함)와 주로 어울리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기존의 학교 친구	24	18.1
학교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47	35.3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	32	24.1
친구를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 지냄	20	15.0
무응답	10	7.5
총계	133	100.0

학교를 그만 둔 후 본인이 집 이외에 지낸 장소가 있는지의 여부와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집 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적이 없는 경우(72명, 41.6%)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친구 집에서 지냄(33명, 19.1%), PC방 같은 곳에서 지냄(18명, 10.4%), 보호시설(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에서 지냄(14명, 8.1%), 모텔 여관 등에서 지냄(9명, 5.2%), 찜질방 등 불규칙한 거리생활(7명, 4.0%), 원룸, 쪽방, 고시원 등에서 지냄(6명, 3.5%), 기타(5명, 2.9%),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3명, 1.7%), 그룹홈, 시설 등에서 지냄(4명, 2.3%), 지하철이나 기차역(2명, 1.2%)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27〉 참조).

일시적이거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공간에서 지내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28.9%(50명)로 적지 않아 청소년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표 4-27〉 학교를 그만 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주시시오.(복수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친구 집에서 지냄	33	19.1
PC방 같은 곳에서 지냄	18	10.4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3	1.7
보호시설(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에서 지냄	14	8.1
그룹홈, 시설 등에서 지냄	4	2.3
원룸, 쪽방, 고시원 등에서 지냄	6	3.5
모텔, 여관 등에서 지냄	9	5.2
찜질방 등 불규칙한 거리생활	7	4.0
지하철이나 기차역	2	1.2
기타	5	2.9
해당사항 없음(집 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적 없음)	72	41.6
총계	173	100.0

학교를 그만 둔 후 학생신분이 아니어서 겪어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문항마다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받은 경험(122명, 91.7%)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8〉 참조).

하지만 버스승차나 공원 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돈을 더 많이 낸 경험(30명, 22.6%)이 다른 문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학생신분이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경험 유무	
	있다	없다
버스승차나 공원 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돈을 더 많이 낸 경험	30(22.6)	96(72.2)
공모전에서 참여자격이 학생만으로 되어있어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15(11.3)	113(85.0)
취업 시 학생이 아니라고 자격 제한을 받은 경험	10(7.5)	118(88.7)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은 경험	6(4.5)	122(91.7)
대학진학 시 학생이 아니어서 내신관련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	11(8.3)	117(88.0)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주로 시간을 보낸 활동으로 1순위는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20명, 15.0%),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를 했다(19명, 14.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2순위는 채팅 또는 문자를 했다(19명, 14.3%), 취미생활을 했다(19명, 14.3%)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20명, 15%),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15명, 11.3%)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응답으로는 대안학교에 진학하였다(9명, 6.9%)로 조사되었다(〈표 4-29〉 참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집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주된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및 친구들과 채팅 문자, 친구들과의 음주 등의 활동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주로 시간을 보낸 활동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TV 시청	12	9.0	2	1.5	11	8.3
채팅 또는 문자를 했다.	12	9.0	19	14.3	10	7.5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18	13.5	13	9.8	10	7.5
집안일을 했다.	1	0.8	6	4.5	4	3.0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를 했다.	19	14.3	11	8.3	8	6.0
학원에 다녔다.	4	3.0	4	3.0	4	3.0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4	3.0	18	13.5	6	4.5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2	1.5	5	3.8	15	11.3
취미생활을 했다.	13	9.8	19	14.3	13	9.8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6	4.5	8	6.1	4	3.0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모임(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참여했다.	1	0.8	2	1.5	3	2.3
지역사회 기관(수련과/복지관/공부방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5	3.8	2	1.5	3	2.3
종교 생활(교회/절/사당 등)을 했다.	0	0.0	1	0.8	1	0.8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20	15.0	10	7.5	20	15.0
기타	9	6.9	0	0.0	0	0.0
무응답	7	5.3	13	9.8	21	15.8
총계	133	100.0	133	100.0	133	100.0

학교를 그만 둔 후 활동에 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 평균 활동 시간을 살펴보니,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평균 11.2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돈벌이를 위한 활동 시간이 평균 8.1시간으로 나타났다. 채팅 및 취미생활은 평균 3시간 ~ 5시간 이내의 시간을 가졌으며, 친구들과의 음주는 평균 6.1시간으로 채팅 및 취미생활보다 긴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0〉 참조).

친구와의 음주는 3순위의 응답으로 1·2순위 보다는 빈도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청소년의 음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음주의 위험성과 잘못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교육과 상담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0〉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주로 시간을 보낸 활동의 평균 시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평균 시간	비고
1순위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11.2	1순위 1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를 했다.	8.1	1순위 2
2순위	채팅 또는 문자를 했다.	4.3	2순위 1
	취미생활을 했다.	3.2	2순위 1
3순위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4.4	3순위 1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6.1	3순위 2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문항별 변화에 관해서 건강상태는 보통(61명, 45.9%)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상태도 보통(50명, 37.6%)의 상태로 가장 많았으나, 매우 불만족(14명, 10.5%)과 매우 만족의 응답(16명, 12%)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도 보통(51명, 38.3%)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만족(31명, 23.3%), 매우 만족(21명, 15.8%) 등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보통(58명, 43.6%)이 가장 많았으나 긍정응답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표 4-31〉 참조).

〈표 4-31〉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변화정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건강상태	12(9.0)	11(8.3)	61(45.9)	28(21.1)	14(10.5)
심리상태	14(10.5)	19(14.3)	50(37.6)	27(20.3)	16(12.0)
가족관계	8(6.0)	15(11.3)	51(38.3)	31(23.3)	21(15.8)
인간관계(친척, 친구, 지인)	9(6.8)	14(10.5)	58(43.6)	26(19.5)	19(14.3)

학교를 그만 둔 후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부정적 활동에 대해서는 술 마시기(74명, 55.6%), 담배피우기(67명, 50.4%), 자살 생각(61명, 45.9%),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보기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자살 시도(27명, 20.3%)와 성적인 놀림을 당함(12명, 9.0%), 성폭력을 당함(8명, 6.0%), 성매매(2명, 1.5%), 약물(마약류)복용(1명, 0.8%) 등의 경험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2〉 참조).

해당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만의 사회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나므로 각별한 관심과 예방·대응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4-32〉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귀하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집단 따돌림을 당함	12(9.0)	118(88.7)
문자나 메신저로 일반적으로 음란물 받기	5(3.8)	127(95.5)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김	7(5.3)	125(94.0)
심하게 얻어맞음	8(6.0)	124(93.2)
성적인 놀림을 당함	12(9.0)	120(90.2)
성폭력을 당함	8(6.0)	124(93.2)
담배 피우기	67(50.4)	65(48.9)
술 마시기	74(55.6)	58(43.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46(34.6)	86(64.7)
자살 생각	61(45.9)	71(53.4)
자살 시도	27(20.3)	105(78.9)
약물(마약류)복용	1(0.8)	131(98.5)
본드 및 부탄가스 등 흡입	8(6.0)	124(93.2)
가출	31(23.3)	101(75.9)
성매매	2(1.5)	128(96.2)

3) 경제활동 및 동아리 활동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는 46.6%로 동일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으며, 무응답률은 6.8%로 조사되었다(〈표 4-33〉 참조).

〈표 4-33〉 학교를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예	62	46.6
아니오	62	46.6
무응답	9	6.8
총계	133	100.0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서빙 아르바이트(19명, 29.2%)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11명, 16.9%), 카페 아르바이트(8명, 12.3%), 음식점 아르바이트(4명, 6.2%)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단지·물류·배달·손세차·음향설비 등의 아르바이트(각 2명, 3.1%)와 극장·당구장·예식장·요리·웨딩홀·주유소·주차·손모델·키즈카페·공사현장·과외 등의 아르바이트(각 1명, 1.5%)는 적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일(1명, 1.5%), 술집(1명, 1.5%) 등 현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4〉 참조).

〈표 4-34〉 귀하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서빙 아르바이트	19	29.2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11	16.9
카페 아르바이트	8	12.3
음식점 아르바이트	4	6.2
전단지 아르바이트	2	3.1
물류 아르바이트	2	3.1
배달 아르바이트	2	3.1
손세차 아르바이트	2	3.1
극장 아르바이트	1	1.5
당구장 아르바이트	1	1.5
예식장 아르바이트	1	1.5
요리 아르바이트	1	1.5
웨딩홀 아르바이트	1	1.5
주유소 아르바이트	1	1.5
주차 아르바이트	1	1.5
손모델 아르바이트	1	1.5
음향설비	2	3.1
키즈카페	1	1.5
공사현장	1	1.5
과외	1	1.5
밤일	1	1.5
술집	1	1.5
총계	65	100.0

아르바이트에 따른 일자와 시간, 비용에 대해서는 1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4일 정도 일하며, 하루 평균 7.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비용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보다 높은 평균 10,167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35〉 참조).

〈표 4-35〉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평균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였습니까?	평균 약 4일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였습니까?	평균 약 7.3시간
한 시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평균 약 10,167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61.5%(40명)가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대로 38.5%(25명)는 근로계약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표 4-36〉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작성했다.	40	61.5
작성하지 않았다.	25	38.5
총계	65	100.0

미성년자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36명, 55.4%)한 경우가 제출하지 않은(20명, 30.8%) 경우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출하지 않은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으로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13.8%(9명)로 나타났다(〈표 4-37〉 참조).

〈표 4-37〉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하였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제출했다.	36	55.4
제출하지 않았다.	20	30.8
해당사항 없음(만 18세 이상)	9	13.8
총계	65	100.0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평균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19명, 30.2%) 지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17명, 27.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12명, 19.0%), 1주 이상 ~ 1개월 미만(8명, 12.7%), 1주 미만(7명, 11.1%)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38〉 참조).

〈표 4-38〉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평균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1주 미만	7	11.1
1주 이상 ~ 1개월 미만	8	12.7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2	19.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17	27.0
6개월 이상 ~ 1년	19	30.2
총계	63	100.0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도중 부당한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한두 번 경험해 본 일 중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14명, 20.6%),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9명, 13.2%)가 다소 발생하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경우(18명, 26.5%)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험 유무의 빈도와 상관없이 구타나 폭행(2명, 2.9%),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함(3명, 4.4%) 등의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9〉 참조).

해당 문제와 경험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적고 해당문제를 인식하고, 처리하고,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지원 기관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4-39〉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없다	한두 번	세 번 이상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51(75.0)	14(20.6)	0(0.0)
아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47(69.1)	9(13.2)	8(11.8)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62(91.2)	2(2.9)	0(0.0)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54(79.4)	8(11.8)	2(2.9)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61(89.7)	3(4.4)	0(0.0)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다.	50(73.5)	9(13.2)	5(7.4)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40(58.8)	18(26.5)	6(8.8)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57(83.8)	7(10.3)	0(0.0)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61(89.7)	3(4.4)	0(0.0)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서(15명, 25.0%)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이 끝나서(11명, 18.3%), 적성에 맞지 않아서(10명, 16.7%), 보수가 적어서(7명, 11.7%), 기타(5명, 8.3%),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4명, 6.7%),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2명, 3.3%),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1명, 1.7%)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유학을 위해 그만 두었거나, 그만두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갑질로 인해 그만두었다고 응답하였다(〈표 4-40〉 참조).

〈표 4-40〉 귀하가 하였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적성에 맞지 않아서	10	16.7
보수가 적어서	7	11.7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1	1.7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4	6.7
근무 조건 및 환경이 나빠서	5	8.3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2	3.3
계약기간이 끝나서	11	18.3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15	25.0
기타	5	8.3
총계	60	100.0

학교 밖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에 참여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4.8%(33명)를 제외한 69.9%(93명)가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응답률은 5.3%(7명)로 조사되었다(〈표 4-41〉 참조).

〈표 4-41〉 학교를 그만 둔 후,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을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구분	표본수(명)	비율(%)
예	33	24.8
아니오	93	69.9
무응답	7	5.3
총계	133	100.0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중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로 1순위는 재미를 위해(11명, 8.2%), 취미활동의 일환(8명, 6.0%)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 재미를 위해(9명, 6.8%),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6명, 4.4%), 3순위 자기계발(6명, 4.4%), 특별한 이유 없음(5명, 3.8%) 순으로 응답하였다.

공모전 및 진로 그리고 정보습득을 위한 동아리 활동보다는 별다른 의미부여 없이 재미와 취미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42〉 참조).

〈표 4-42〉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재미를 위해	11	8.2	9	6.8	1	0.8
자기계발	4	3.0	5	3.8	6	4.4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2	1.5	0	0.0	1	0.8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0	0.0	2	1.5	2	1.5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4	3.0	3	2.3	3	2.3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0	0.0	0	0.0	0	0.0
취미활동의 일환	8	6.0	5	3.7	3	2.3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2	1.5	1	0.8	3	2.3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2	1.5	2	1.5	2	1.5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2	1.5	6	4.4	2	1.5
복학에 도움	0	0.0	3	2.3	0	0.0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1	0.8	0	0.0	3	2.3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1	0.8	0	0.0	4	3.0
특별한 이유 없음	1	0.8	0	0.0	5	3.8
무응답	95	71.4	97	72.9	98	73.5
총계	133	100	133	100.0	133	100.0

4) 학교를 그만 둔 후 진로설정

본 문항들은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정 정도와 진로설정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 ① ~ ③은 진로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본인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평균 25.3%)와 그렇지 않다(평균 27.3%)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 진로가 설정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항 ④ ~ ⑤는 진로선택 후와 본인 자체의 자신감을 물어보는 것으로 보통이다(평균 28.95%), 그렇다(평균 31.2%)의 응답이 많아 진로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편인 것

로 나타났다.

문항 ⑥ ~ ⑧은 진로상담의 필요성과 진로 관련 정보의 공유정도를 물어보는 것으로 보통이다(평균 41.3%), 그렇다(평균 24.3%)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정부분 필요성을 인지하는 정도이며, 관련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⑨ ~ ⑩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항으로 타인 및 부모님의 권유와 도움 없이는 진로를 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평균 29.7%), 보통이다(평균 35.35%)의 응답을 많았다. 즉, 타인 및 부모님의 권유와 도움이 진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4-43〉 참조).

〈표 4-43〉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13(9.8)	33(24.8)	39(29.3)	19(14.3)	24(18.0)
②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11(8.3)	35(26.3)	33(24.8)	26(19.5)	24(18.0)
③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17(12.8)	41(30.8)	29(21.8)	26(19.5)	16(12.0)
④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8(6.0)	25(18.8)	49(36.8)	36(27.1)	11(8.3)
⑤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10(7.5)	28(21.1)	28(21.1)	47(35.3)	32(24.1)
⑥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4(3.0)	6(4.5)	55(41.4)	36(27.1)	28(21.1)
⑦ 나는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7(5.3)	14(10.5)	52(39.1)	30(22.6)	26(19.5)
⑧ 나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4(3.0)	12(9.0)	57(42.9)	31(23.3)	25(18.8)
⑨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46(34.6)	30(22.6)	40(30.1)	9(6.8)	4(3.0)
⑩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33(24.8)	23(17.3)	54(40.6)	13(9.8)	6(4.5)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45명, 33.8%)이 가장 많아 진로설정에 어려움 혹은 관심을 아직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28명, 21.1%), 검정고시 준비(14명, 10.5%),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12명, 9.1%),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7명, 5.3%), 취업과 진학 병행(7명, 5.3%), 대안학교 진학(6명, 4.5%),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5명, 3.8%), 해외유학(4명, 3.0%)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44〉 참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 다수가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진로 설정을 위해서는 직업을 구하는 것보다 정규학교로 복학 및 진학, 검정고시 등의 학업적인 부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4〉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표본수(명)	비율(%)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45	33.8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28	21.1
대안학교 진학	6	4.5
해외 유학	4	3.0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14	10.5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7	5.3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12	9.1
취업과 진학 병행	7	5.3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5	3.8
무응답	5	3.8
총계	133	100.0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 여부를 물어본 결과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는 보통(44명, 33.1%)과 그렇다(30.1%)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한 인터넷을 검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33.8%)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 받아 본 여부는 그렇지 않다(44명, 33.1%)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관심이 있는 직업의 종사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47명, 35.3%)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직업체험 여부는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각 39명, 29.3%)의 응답이 공통으로 많았다(〈표 4-45〉 참조).

〈표 4-45〉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진로에 대한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6(4.5)	19(14.3)	44(33.1)	40(30.1)	24(18.0)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8(6.0)	19(14.3)	36(27.1)	45(33.8)	25(18.8)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28(21.1)	44(33.1)	35(26.3)	20(15.0)	6(4.5)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22(16.5)	47(35.3)	33(24.8)	20(15.0)	11(8.3)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23(17.3)	39(29.3)	39(29.3)	18(13.5)	14(10.5)

진로선택에 있어 가치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에는 ‘직업선택 시 흥미와 적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51명, 38.3%)’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47명, 35.3%)’ 등 그렇다의 응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가치들은 중요도를 분석하기에 전부 보통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에 한계가 존재하였으며, ‘인간관계’, ‘보수’, ‘인정’, ‘존경’, ‘안정적인 삶’, ‘명예’, ‘정년보장’ 등의 가치들 보다 ‘흥미와 적성의 가치’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46〉 참조).

〈표 4-46〉 다음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직업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직업선택 시 흥미와 적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2(1.5)	2(1.5)	47(35.3)	51(38.3)	31(23.3)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16(12.0)	44(33.1)	49(36.8)	13(9.8)	11(8.3)
적성도 중요하지만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5(3.8)	10(7.5)	66(49.6)	42(31.6)	10(7.5)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7(5.3)	18(13.5)	44(33.1)	37(27.8)	27(20.3)
직업을 가진다면 무엇보다 보수가 높아야 한다.	8(6.0)	14(10.5)	68(51.1)	29(21.8)	14(10.5)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3.8)	6(4.5)	67(50.4)	38(28.6)	17(12.8)
직업은 남이 보았을 때 반듯한 직업이 좋다.	15(11.3)	15(11.3)	58(43.6)	30(22.6)	15(11.3)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2(1.5)	6(4.5)	67(50.4)	43(32.3)	15(11.3)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9(6.8)	12(9.0)	47(35.3)	45(33.8)	20(15.0)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보다는 해오던 일이 편하다.	7(5.3)	19(14.3)	68(51.1)	29(21.8)	10(7.5)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2(1.5)	6(4.5)	47(35.3)	47(35.3)	30(22.6)
성공에 대한 기준을 부로 평가한다.	11(8.3)	30(22.6)	53(39.8)	26(19.5)	13(9.8)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좋다.	5(3.8)	12(9.0)	55(41.4)	43(32.3)	18(13.5)
사회에 헌신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한다.	7(5.3)	20(15.0)	66(49.6)	26(19.5)	14(10.5)
돈 많은 부자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	3(2.3)	16(12.0)	53(39.8)	37(27.8)	24(18.0)
새로운 생활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더 좋다.	2(1.5)	8(6.0)	73(54.9)	28(21.1)	22(16.5)
돈 보다 명예가 중요하다.	5(3.8)	18(13.5)	77(57.9)	17(12.8)	16(12.0)
정년 보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8(6.0)	4(3.0)	59(44.4)	32(24.1)	30(22.6)

5) 학교를 그만 둔 후 심리상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가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보통정도의 평가로 나타났다. 특히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61명, 45.9%)',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61명, 45.9%)' 등이 보통의 응답이 가장 많았

으며, 예외적으로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의 문항에 그렇다의 응답이 40.6%(54명)로 긍정적인 평가결과를 가져왔다(〈표 4-47〉 참조).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보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등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비율이 높아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통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7〉 다음은 평소 귀하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3.0)	11(8.3)	54(40.6)	39(29.3)	24(18.0)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5.3)	8(6.0)	60(45.1)	38(28.6)	19(14.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4(3.0)	10(7.5)	48(36.1)	54(40.6)	16(12.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9(6.8)	9(6.8)	56(42.1)	38(28.6)	20(15.0)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0(7.5)	16(12.0)	52(39.1)	32(24.1)	22(16.5)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6(4.5)	9(6.8)	55(41.4)	46(34.6)	16(12.0)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4(3.0)	17(12.8)	61(45.9)	35(26.3)	15(11.3)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6(4.5)	18(13.5)	61(45.9)	31(23.3)	16(12.0)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12(9.0)	38(28.6)	56(42.1)	18(13.5)	8(6.0)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17(12.8)	40(30.1)	51(38.3)	18(13.5)	6(4.5)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12(9.0)	26(19.5)	57(42.9)	28(21.1)	9(6.8)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10(7.5)	35(26.3)	59(44.4)	20(15.0)	8(6.0)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9(6.8)	18(13.5)	59(44.4)	31(23.3)	15(11.3)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5(3.8)	13(9.8)	69(51.9)	32(24.1)	13(9.8)

최근 한 달 동안의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이 경험한 심리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가장 많지만 기분이 울적하다(22.6%), 외롭다(20.3%),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20.3%) 등 매우 그렇다의 응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48〉 참조).

〈표 4-48〉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이 경험한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외롭다.	15(11.3)	17(12.8)	43(32.3)	31(23.3)	27(20.3)
기분이 울적하다.	13(9.8)	20(15.0)	40(30.1)	30(22.6)	30(22.6)
허무한 느낌이 든다.	10(7.5)	24(18.1)	37(27.8)	36(27.1)	26(19.5)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15(11.3)	30(22.6)	38(28.6)	23(17.3)	27(20.3)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17(12.8)	19(14.3)	45(33.8)	26(19.5)	26(19.5)
긴장이 된다.	17(12.8)	25(18.8)	42(31.6)	27(20.3)	22(16.5)

최근 한 달 동안에 스마트폰과 게임을 통해 겪게 된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과 게임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거나, 다른 일에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려웠다(52명, 39.1%)’,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했다(44명, 33.1%)’,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44명, 33.1%)’ 등 게임은 일상생활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은 게임보다는 긍정응답의 비율이 적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고 즐거웠다(45명, 33.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했다(36명, 27.1%)’,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일을 소홀히 했다(39명, 29.3%)’ 등 보통의 응답률이 많은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표 4-49〉 참조).

〈표 4-49〉 최근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해 보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했다.	44(33.1)	35(26.3)	36(27.1)	11(8.3)	7(5.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44(33.1)	35(26.3)	31(23.3)	15(11.3)	8(6.0)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려웠다.	52(39.1)	37(27.8)	27(20.3)	13(9.8)	4(3.0)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일을 소홀히 했다.	23(17.3)	30(22.6)	39(29.3)	32(24.1)	9(6.8)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졌다.	33(24.8)	37(27.8)	37(27.8)	21(15.8)	5(3.8)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고 즐거웠다.	28(21.1)	28(21.1)	45(33.8)	23(17.3)	9(6.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했다.	34(25.6)	36(27.1)	39(29.3)	18(13.5)	6(4.5)

학교를 그만 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가 15.8%(54명)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와의 갈등(38명, 11.1%)’,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38명, 11.1%)’,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36명, 10.5%)’,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단절(33명, 9.6%)’,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나 혼자라서 불안(29명, 8.5%)’, ‘어려움이 없었음(29명, 8.5%)’,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27명, 7.9%)’,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19명, 5.6%)’,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고 싶은데 일을 구하기 어려움(17명, 5.0%)’,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8명, 2.3%)’, ‘건강이 안 좋음(6명, 1.8%)’, ‘지낼 곳 찾기의 어려움(6명, 1.8%)’,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2명, 0.6%)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50〉 참조).

학교 밖 청소년은 육체적인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기 더욱 힘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고민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방안도 함께 필요하다.

〈표 4-50〉 학교를 그만 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

구분	표본수(명)	비율(%)
부모와의 갈등	38	11.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	54	15.8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	38	11.1
내 적성에 맞는 진로 찾기의 어려움	27	7.9
건강이 안 좋음	6	1.8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	19	5.6
지낼 곳 찾기의 어려움	6	1.8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 나 혼자라서 불안	29	8.5
할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의욕도 없음(무기력함)	36	10.5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고 싶는데 일을 구하기 어려움	17	5.0
비행을 저지르거나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생계가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	8	2.3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술, 담배, 폭력, 절도, 성매매 등)이라도 해야 함	2	0.6
학교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33	9.6
어려움이 없었음	29	8.5
총계	342	100.0

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설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존의 시설지원과 사업지원에 대한 인지여부와 경험 유무를 우선 확인하고, 각 사업별 만족도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문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 영역은 정책적 지원에 앞서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존의 시설지원과 사업지원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기존 시설지원과 사업지원의 인지여부와 이용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설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1.7%(82명)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용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은 월 평균 3.1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 대해서는 64.7%(86명)가 인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5.5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는 52.6%(70명)가 인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3.6회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3개의 시설모두 인지여부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개 시설에 '이용경험이 없다'의 평균이 61.6%로 인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경험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청소년 동반자', '취업사관학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모두 모르는 경우가 평균 76.8%로 인지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 유무에 대해서도 이용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월 평균 이용횟수는 2.2회이며, '이용경험 없다'의 평균은 83.0%로 대다수가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지원을 잘 모르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4-51〉 참조).

〈표 4-51〉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이나 사업지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와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알고 있는지 여부		이용경험 유무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시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82(61.7)	46(34.6)	월 평균 3.1회	79(59.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86(64.7)	41(30.8)	월 평균 5.5회	69(51.9)
	청소년 쉼터	70(52.6)	57(42.9)	월 평균 3.6회	98(73.7)
사업 지원	청소년 동반자	24(18.0)	104(78.2)	월 평균 2.5회	108(81.2)
	취업사관학교	22(16.5)	106(79.7)	월 평균 2.0회	113(85.0)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0(15.0)	108(81.2)	월 평균 2.0회	115(86.5)
	취업성공패키지	31(23.3)	97(72.9)	월 평균 2.6회	110(82.7)
	내일배움카드	27(20.3)	96(72.2)	월 평균 2.0회	106(79.7)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시설지원 및 사업지원 만족도는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다수 존재하였다. 사업지원 만족도의 경우 대체적으로 보통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실제 응답자가 매우 적고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지에 응답한 경우가 다수 있어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의 경우 만족(34명, 25.6%), 보통(22명, 16.5%)의 응답률이 높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불만족(22명, 16.5%)과 보통(20명, 15.0%)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2〉 참조).

〈표 4-52〉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이나 사업지원의 만족도와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위 : 명, %)

구분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시설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5)	22(16.5)	20(15.0)	17(12.8)	17(1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1(0.8)	0(0.0)	22(16.5)	34(25.6)	21(15.8)
	청소년 쉼터	6(4.5)	0(0.0)	23(17.3)	11(8.3)	7(5.3)
사업 지원	청소년 동반자	4(3.0)	0(0.0)	20(15.0)	9(6.8)	6(4.5)
	취업사관학교	4(3.0)	0(0.0)	22(16.5)	7(5.3)	2(1.5)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4(4.3)	0(0.0)	23(17.3)	6(4.5)	2(1.5)
	취업성공패키지	4(3.0)	0(0.0)	24(18.0)	10(7.5)	2(1.5)
	내일배움카드	4(3.0)	0(0.0)	24(18.0)	8(6.0)	2(1.5)

시설지원 중 이용경험에 있어 불편한 점으로는 무응답(55명, 41.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문지가 멀어서 찾아가기 힘들다(26명, 19.5%)’, ‘교통이 불편해서 방문하기 힘들다(25명, 18.8%)’, ‘지원 기관 및 센터가 적어 불편하다(16명, 12.0%)’, ‘지원 기관 및 센터가 부족하다(11명, 8.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53〉 참조).

〈표 4-53〉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 중 이용경험에 있어 불편한 점을 선택해주시시오.

구분	표본수(명)	비율(%)
교통이 불편해서 방문하기 힘들다.	25	18.8
방문지가 멀어서 찾아가기 힘들다.	26	19.5
지원 기관 및 센터가 부족하다.	11	8.3
지원 기관 및 센터가 적어 불편하다.	16	12.0
무응답	55	41.4
총계	133	100.0

사업지원 중 이용경험이 불편한 점으로는 무응답(62명, 46.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편하지 않다(40명, 30.1%)',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19명, 14.3%)', '사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8명, 6.0%)',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4명, 3.0%)'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54〉 참조).

〈표 4-5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지원' 중 이용경험에 있어 불편한 점을 선택해주시시오.

구분	표본수(명)	비율(%)
사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8	6.0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4	3.0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19	14.3
불편하지 않다.	40	30.1
무응답	62	46.6
총계	133	100.0

2)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 정책 요구사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체 지원 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전체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토대로 필요도를 구분해 본 결과 '매우 그렇다'의 응답이 높은 지원 프로그램은 건강 영역 중 신체영역에서 '성교육 제공(28명, 21.1%)', 심리영역에서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24명, 18.0%)'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영역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28명, 21.1%)',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

기 등) 활동 지원(30명, 22.6%)’ 등이 조사되었으며, 기타영역에서는 ‘자유롭게 활용(학습, 동아리활동 등)할 수 있는 공간 제공(37명, 27.8%)’, ‘봉사활동 기회 제공(34명, 25.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36명, 27.1%)’, ‘각종행사 자격기준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변경(38명, 28.6%)’, ‘학교 밖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쉼터, 학습공간, 동아리 활동 등)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앱 제공(33명, 24.8%)’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매우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많았던 정책지원은 ‘복교 절차 및 방법 안내(20명, 15.0%)’,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 치료 지원(24명, 18.0%)’,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20명, 15.0%)’, ‘봉사활동 기회 제공(22명, 16.5%)’ 등으로 조사되었다(〈표 4-55〉 참조).

〈표 4-55〉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필요성의 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단위 : 명, %)

영역	구분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업/ 진학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20(15.0)	13(9.8)	62(46.6)	24(18.0)	12(9.0)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6(4.5)	10(7.5)	51(38.3)	39(29.3)	25(18.8)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5(3.8)	5(3.8)	51(38.3)	43(32.3)	27(20.3)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지원	3(2.3)	1(0.8)	52(39.1)	45(33.8)	30(22.6)	
진로/ 직업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4(3.0)	1(0.8)	54(40.6)	40(30.1)	32(24.1)	
	직업교육훈련	4(3.0)	1(0.8)	54(40.6)	44(33.1)	28(21.1)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15(11.3)	3(2.3)	54(40.6)	32(24.1)	27(20.3)	
	자산관리(본인이 직접 돈이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방법 등)와 관련된 정보 제공	19(14.3)	2(1.5)	50(37.6)	33(24.8)	27(30.3)	
건강	신체	건강검진 제공	14(10.5)	7(5.3)	48(36.1)	32(24.1)	30(22.6)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15(11.3)	6(4.5)	50(37.6)	31(23.3)	29(21.8)
		성교육 제공	19(14.3)	12(9.0)	48(36.1)	24(18.0)	28(21.1)
	심리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제공	18(13.5)	6(4.5)	45(33.8)	32(24.1)	30(22.6)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21(15.8)	10(7.5)	55(41.4)	21(15.8)	24(18.0)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 치료 지원	24(18.0)	11(8.3)	49(36.8)	21(15.8)	26(19.5)
여가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21(15.8)	11(8.3)	46(34.6)	25(18.8)	28(21.1)	
	체육 활동 지원	19(14.3)	7(5.3)	46(34.6)	31(23.3)	28(21.1)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20(15.0)	7(5.3)	47(35.3)	25(18.8)	30(22.6)	
기타	자유롭게 활용(학습, 동아리활동 등)할 수 있는 공간 제공	16(12.0)	3(2.3)	45(33.8)	30(22.6)	37(27.8)	
	봉사활동 기회 제공	22(16.5)	11(8.3)	42(31.6)	22(16.5)	34(25.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17(12.8)	1(0.8)	53(39.8)	24(18.0)	36(27.1)	
	각종행사 자격기준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변경	17(12.8)	5(3.8)	51(38.3)	20(15.0)	38(28.6)	
	학교 밖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쉼터, 학습공간, 동아리 활동 등)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앱 제공	18(13.5)	5(3.8)	54(40.6)	20(15.0)	33(2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학업 및 진학 관련 정책”의 중요 우선순위로는 1순위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40명, 30.1%), 2순위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46명, 34.5%), 3순위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61명, 30.8%)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56〉 참조).

학업 및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우선적으로 선호하였으며, 학습을 위한 멘토 지원 그리고 물질적 지원까지 순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학업 및 진학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26	19.5	11	8.3	9	6.8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22	16.5	46	34.5	36	27.2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40	30.1	32	24.1	29	21.7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36	27.1	32	24.1	61	30.8
기타	2	1.5	0	0.0	2	1.5
무응답	7	5.3	12	9.0	16	12.0
총계	133	100.0	133	100.0	153	1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책”의 중요 우선순위로는 1순위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71명, 53.4%), 2순위 직업교육훈련(59명, 44.4%), 3순위 자산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43명, 32.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57〉 참조).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프로그램 구성을 우선시 하였으며, 추후 창출된 수익에 대한 자산관리 정보도 제공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7〉 다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표본수(명)	비율(%)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71	53.4	28	21.1	17	12.8
직업교육훈련	27	20.3	59	44.4	18	13.5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19	14.3	17	12.8	38	28.6
자산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	6	4.5	17	12.8	43	32.3
기타	0	0.0	1	0.8	2	1.5
무응답	10	7.5	11	8.3	15	11.3
총계	133	100.0	133	100.0	133	100.0

5. 교차분석 결과

교차분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정보제공 경험 유무’, ‘진로’관계 둘째, ‘학교를 그만 둔 기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정도’관계 셋째, ‘학교를 그만 둔 지역’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지원’관계 넷째, ‘가족 구성원’과 ‘학교성적’,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 관계이다. 이를 통해 각 교차 항목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교차분석 결과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정보제공 경험 유무와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은 초등학생(없다, 80.0%), 중학생(없다, 64.3%), 고등학생(없다, 54.1%) 순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는 초등학생(없다, 86.7%), 고등학생(없다, 68.2%), 중학생(없다, 64.3%) 순으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으며, 2개 문항의 교차분석 결과는 초등학생의 정보제공경험(없다, 평균 83.4%)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은 고등학생(없다, 64.7%), 초등학생(없다, 46.7%), 중학생(없다, 42.9%) 순으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은 중학생(없다, 67.9%), 고등학생(없다, 62.4%), 초등학생(없다, 60.0%) 순으로 제공받지 못하여, 해당 2개 문항의 교차분석 결과는 고등학생의 정보제공경험(없다, 평균 63.5%)이 가

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 대한 정보는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의 정보제공경험(없다, 평균 93.3%)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8〉 참조).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들보다 학업중단 시 제공받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8〉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정보제공 경험 유무와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χ^2/p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학업중단속려제에 대한 설명	2 (13.3)	12 (80.0)	6 (21.4)	18 (64.3)	38 (44.7)	46 (54.1)	18.658/ 0.005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1 (6.7)	13 (86.7)	8 (28.6)	18 (64.3)	25 (29.4)	58 (68.2)	17.872/ 0.007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7 (46.7)	7 (46.7)	12 (42.9)	12 (42.9)	29 (34.1)	55 (64.7)	20.925/ 0.002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5 (33.3)	9 (60.0)	5 (17.9)	19 (67.9)	32 (37.6)	52 (62.4)	20.531/ 0.002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0 (0.0)	14 (93.3)	5 (17.3)	19 (67.9)	44 (51.8)	40 (47.1)	36.870/ 0.000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센터)	0 (0.0)	14 (93.3)	2 (7.1)	22 (78.6)	20 (23.5)	63 (74.1)	21.070/ 0.00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 대한 정보	0 (0.0)	14 (93.3)	3 (10.7)	21 (75.0)	32 (37.6)	52 (61.2)	30.360/ 0.000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진로와의 관계(1)를 교차분석한 결과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는 고등학교(평균 3.6), 중학교(평균 3.3), 초등학교(평균 3.0)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는 중학교(평균 3.2), 고등학교(평균 3.1), 초등학교(평균 3.0)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중학교·고등학교(평균 2.9) 그리고 초등학교(평균 2.5)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에 있어 이미 결정된 경우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분석되며, 고학력 학업중단 청소년일수록 진로설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고등학교(평균 3.2), 초등학교(평균 3.1), 중학교(평균 3.0) 순으로 나타났다.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고등학교(평균 3.2), 중학교(평균 3.0), 초등학교(평균 2.4)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의 자신감과 스스로의 자신감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분석되며, 고학력 학업중단 청소년일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59〉 참조).

〈표 4-59〉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진로와의 관계(1)

(단위 : 명, %)

구분	나는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3(20.0)	0(0.0)	4(26.7)	4(26.7)	1(6.7)	3.0	36.937/ 0.005
중학교	2(7.1)	1(3.6)	9(32.1)	6(21.4)	3(10.7)	3.3	
고등학교	7(8.2)	0(0.0)	20(23.5)	28(32.9)	15(17.6)	3.6	
구분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2(13.3)	4(26.7)	4(26.7)	2(13.3)	3(20.0)	3.0	36.092/ 0.003
중학교	1(3.6)	11(39.3)	4(14.3)	5(17.9)	7(25.0)	3.2	
고등학교	7(8.2)	20(23.5)	24(28.2)	19(22.4)	13(15.3)	3.1	
구분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3(20.0)	6(40.0)	3(20.0)	1(6.7)	2(13.3)	2.5	35.999/ 0.002
중학교	1(3.6)	13(46.4)	4(14.3)	7(25.0)	3(10.7)	2.9	
고등학교	12(14.1)	22(25.9)	21(24.7)	18(21.2)	10(11.8)	2.9	
구분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1(6.7)	4(26.7)	3(20.0)	7(46.7)	0(0.0)	3.1	33.308/ 0.004
중학교	2(7.1)	5(17.9)	12(42.9)	8(28.6)	1(3.6)	3.0	
고등학교	5(5.9)	15(17.6)	33(38.8)	20(23.5)	10(11.8)	3.2	
구분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4(26.7)	4(26.7)	4(26.7)	3(20.0)	0(0.0)	2.4	36.044/ 0.002
중학교	1(3.6)	10(35.7)	8(28.6)	7(25.0)	2(7.1)	3.0	
고등학교	5(5.9)	13(15.3)	34(40.0)	21(24.7)	9(10.6)	3.2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진로와의 관계(2)를 교차분석한 결과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는 중학교(평균 3.7), 고등학교(평균 3.6), 초등학교(평균 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실현을 위한 관심과 실천의지는 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는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는 중학교(평균 3.7), 고등학교(평균 3.4), 초등학교(평균 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에 대한 호기심은 중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는 초등학교·고등학교(평균 3.5) 그리고 중학교(평균 3.4)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는 고등학교(평균 2.3), 중학교(평균 2.1), 초등학교(평균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선택에 있어 자신의 확고한 의지는 초등학생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고등학교(평균 2.7), 중학교(2.2), 초등학교(평균 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로결정에 있어 자아실현의지는 초등학생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60〉 참조).

〈표 4-60〉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진로와의 관계(2)

(단위 : 명, %)

구분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2(13.3)	2(13.3)	4(26.7)	2(13.3)	5(33.3)	3.4	40.155/ 0.000
중학교	1(3.6)	0(0.0)	12(42.9)	8(28.6)	7(25.0)	3.7	
고등학교	1(1.2)	4(4.7)	37(43.5)	26(30.6)	15(17.6)	3.6	
구분	나는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4(26.7)	4(26.7)	1(6.7)	2(13.3)	4(26.7)	2.9	56.311/ 0.000
중학교	1(3.6)	2(7.1)	8(28.6)	11(39.3)	6(21.4)	3.7	
고등학교	2(2.4)	8(9.4)	41(48.2)	16(18.8)	16(18.8)	3.4	
구분	나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1(6.7)	2(13.3)	4(26.7)	4(26.7)	4(26.7)	3.5	32.588/ 0.005
중학교	2(7.1)	2(7.1)	14(50.0)	4(14.3)	6(21.4)	3.4	
고등학교	1(1.2)	8(9.4)	37(43.5)	22(25.9)	15(17.6)	3.5	
구분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7(46.7)	5(33.3)	3(20.0)	0(0.0)	0(0.0)	1.7	37.413/ 0.001
중학교	11(39.3)	8(28.6)	5(17.9)	4(14.3)	0(0.0)	2.1	
고등학교	28(32.9)	16(18.8)	30(35.3)	5(5.9)	4(4.7)	2.3	
구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x^2/p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초등학교	4(26.7)	6(40.0)	5(33.3)	0(0.0)	0(0.0)	2.1	38.117/ 0.001
중학교	10(35.7)	5(17.9)	10(35.7)	3(10.7)	0(0.0)	2.2	
고등학교	18(21.2)	12(14.1)	37(43.5)	10(11.8)	6(7.1)	2.7	

2) ‘학교를 그만 둔 기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정도’의 교차분석 결과

학교를 그만 둔 기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상태변화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1개월 미만(평균 3.5), 6개월 이상 ~ 1년 미만(평균 3.4), 3년 이상(평균 3.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평균 3.2), 1년 이상 ~ 2년 미만(평균 2.7), 2년 이상 ~ 3년 미만(평균 2.6) 순으로 나타나, 건강상태는 학교를 그만 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심리상태는 1개월 미만(평균 3.5), 6개월 이상 ~ 1년 미만(평균 3.2), 3년 이상(평균 3.1),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평균 3.1), 1년 이상 ~ 2년 미만(평균 2.7), 2년 이상 ~ 3년 미만(평균 2.3)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심리상태도 학교를 그만 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1개월 미만(평균 3.6), 3년 이상(평균 3.6),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평균 3.4), 6개월 이상 ~ 1년 미만(평균 3.2), 1년 이상 ~ 2년 미만(평균 2.9), 2년 이상 ~ 3년 미만(평균 2.8)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는 학교를 그만 둔 시기가 1개월 미만으로 짧거나 혹은 3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 관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간관계(친척, 친구, 지인)는 6개월 이상 ~ 1년 미만(평균 3.4), 3년 이상(평균 3.3),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평균 3.1), 1년 이상 ~ 2년 미만(평균 3.1), 1개월 미만(평균 3.0), 2년 이상 ~ 3년 미만(평균 3.0) 순으로 나타나, 인간관계는 학교를 그만 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만족이거나 약간 불만족 수준으로 조사되어, 만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표 4-61〉 참조).

〈표 4-61〉 학교를 그만 둔 기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정도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건강상태						x^2/p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개월 미만	0(0.0)	0(0.0)	7(63.6)	3(27.3)	1(9.1)	3.5	58.071 / 0.002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8.0)	0(0.0)	14(56.0)	8(32.0)	1(4.0)	3.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9.1)	0(0.0)	6(54.5)	2(18.2)	2(18.2)	3.4	
1년 이상 ~ 2년 미만	6(23.1)	2(7.7)	13(50.0)	3(11.5)	2(7.7)	2.7	
2년 이상 ~ 3년 미만	1(8.3)	2(16.7)	8(66.7)	0(0.0)	0(0.0)	2.6	
3년 이상	2(6.7)	6(20.0)	8(26.7)	7(23.3)	6(20.0)	3.3	
구분	심리상태						x^2/p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개월 미만	0(0.0)	2(18.2)	4(36.4)	3(27.3)	2(18.2)	3.5	57.269 / 0.002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8.0)	4(16.0)	10(40.0)	7(28.0)	2(8.0)	3.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9.1)	1(9.1)	6(54.5)	1(9.1)	2(18.2)	3.2	
1년 이상 ~ 2년 미만	6(23.1)	3(11.5)	13(50.0)	2(7.7)	2(7.7)	2.7	
2년 이상 ~ 3년 미만	3(25.0)	2(16.7)	6(50.0)	0(0.0)	0(0.0)	2.3	
3년 이상	14(10.5)	19(14.3)	50(37.6)	27(20.3)	16(12.0)	3.1	
구분	가족관계						x^2/p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개월 미만	0(0.0)	1(9.1)	4(36.4)	4(36.4)	2(18.2)	3.6	59.922 / 0.001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8.0)	1(4.0)	10(40.0)	10(40.0)	2(8.0)	3.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18.2)	0(0.0)	5(45.5)	2(18.2)	2(18.2)	3.2	
1년 이상 ~ 2년 미만	4(15.4)	3(11.5)	13(50.0)	3(11.5)	3(11.5)	2.9	
2년 이상 ~ 3년 미만	0(0.0)	4(33.3)	5(41.7)	2(16.7)	0(0.0)	2.8	
3년 이상	0(0.0)	6(20.0)	9(30.0)	5(16.7)	9(30.0)	3.6	
구분	인간관계(친척, 친구, 지인)						x^2/p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1개월 미만	0(0.0)	2(18.2)	7(63.6)	2(18.2)	0(0.0)	3.0	54.224 / 0.004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8.0)	3(12.0)	12(48.0)	6(24.0)	2(8.0)	3.1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9.1)	0(0.0)	6(54.5)	2(18.2)	2(18.2)	3.4	
1년 이상 ~ 2년 미만	3(11.5)	2(7.7)	14(53.8)	3(11.5)	4(15.4)	3.1	
2년 이상 ~ 3년 미만	0(0.0)	2(16.7)	8(66.7)	0(0.0)	1(8.3)	3.0	
3년 이상	9(6.8)	14(10.5)	58(43.6)	26(19.5)	19(14.3)	3.3	

3) ‘학교를 그만 둔 지역’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지원’의 교차분석 결과

학교를 그만 둔 지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과의 관계를 교차분석한 결과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는 권선구(안다, 75.0%), 팔달구(안다, 66.7%), 기타(안다, 65.5%), 영통구(안다, 47.4%), 장안구(안다, 33.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은 권선구(안다, 77.5%), 팔달구(안다, 73.3%), 장안구(안다, 66.7%), 기타(안다, 65.5%), 영통구(안다, 42.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쉼터’는 권선구(안다, 70.0%), 팔달구(안다, 56.7%), 영통구(안다, 42.1%), 기타(안다, 41.4%), 장안구(안다, 33.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권선구에서 학교를 그만 둔 학교 밖 청소년이 시설에 대해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 타 지역에서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수원시에 위치한 학교 밖 시설지원을 이용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청소년들로 장안구, 팔달구, 영통구 보다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쉼터 제외). 나머지 지역은 시설에 따라 인지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62〉 참조).

〈표 4-62〉 학교를 그만 둔 지역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지원과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3 (33.3)	6 (66.7)	30 (75.0)	10 (25.0)	20 (66.7)	8 (26.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6 (66.7)	3 (33.3)	31 (77.5)	9 (22.5)	22 (73.3)	6 (20.0)
청소년 쉼터	3 (33.3)	6 (66.7)	28 (70.0)	12 (30.0)	17 (56.7)	12 (40.0)
구분	영통구		기타		χ^2/p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47.4)	8 (42.1)	19 (65.5)	10 (34.5)	20.078/0.02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8 (42.1)	9 (47.4)	19 (65.5)	9 (31.0)	21.945/0.015	
청소년 쉼터	8 (42.1)	8 (42.1)	12 (41.4)	16 (55.2)	21.272/0.128	

4) '가족 구성원'과 교차분석 결과

가정구성원과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재혼가정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성적이 가장 낮았던 것(9명, 75.0%)으로 분석되었다. 중하위권은 기타(2명, 50.0%), 중위권은 부모님(4명, 30.8%), 중상위권은 일반가정(11명, 18.6%), 상위권은 혼자(1명, 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족 구성원과 상관없이 상위권보다는 중하위권에 성적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차분석의 유의확률은 0.128로 유의수준하의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표 4-63〉 참조).

〈표 4-63〉 가족 구성원과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과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χ^2/p
혼자	5(55.6)	2(22.2)	1(11.1)	0(0.0)	1(11.1)	27.267 / 0.128
부모님	7(53.8)	0(0.0)	4(30.8)	1(7.7)	1(7.7)	
일반가정	17(28.8)	13(22.0)	15(25.4)	11(18.6)	3(5.1)	
편부,편모 가정	16(61.5)	4(15.4)	1(3.8)	4(15.4)	1(3.8)	
재혼가정	9(75.0)	2(16.7)	1(8.3)	0(0.0)	0(0.0)	
기타	2(50.0)	2(50.0)	0(0.0)	0(0.0)	0(0.0)	

가족 구성원과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의 관계를 교차분석 결과 '재혼가정'(8명, 66.7%)의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님(8명, 57.1%), 일반가정(28명, 47.5%)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후회를 가장 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편부, 편모 가정'(5명, 64.0%), 혼자(5명, 62.5%), 일반가정(31명, 52.5%)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후회는 각기 다른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차분석의 유의확률은 0.403으로 유의수준 하의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표 4-64〉 참조).

〈표 4-64〉 가족 구성원과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관계

(단위 : 명, %)

구분	있다	없다	χ^2/p
혼자	3(37.5)	5(62.5)	5.106 / 0.403
부모님	8(57.1)	6(42.9)	
일반가정	28(47.5)	31(52.5)	
편부, 편모 가정	9(36.0)	16(64.0)	
재혼가정	8(66.7)	4(33.3)	
기타	3(75.0)	1(25.0)	

가족 구성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진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의 경우 기타(2명, 50.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은 재혼가정(3명, 25.0%), ‘대안학교 진학’은 부모님(1명, 7.1%), ‘해외 유학’은 일반가정(4명, 6.6%), ‘검정고시 준비’는 재혼가정(2명, 16.7%),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 예정’은 편부, 편모 가정(3명, 12.0%), ‘직업교육훈련’은 기타(1명, 25.0%), ‘취업과 진학 병행’은 일반가정(5명, 8.2%), ‘시간제 근로 및 아르바이트’는 기타(1명, 25.0%)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생각(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과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진로와의 관계는 각기 다른 차이를 나타냈으며, 교차분석의 유의확률은 0.912로 유의수준 하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5〉 참조).

〈표 4-65〉 가족 구성원과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고민)과의 관계

(단위 : 명, %)

구분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함	정규학교로 복학 (대학 진학 포함)	대안학교 진학	해외 유학	검정고시 준비
혼자	3(33.3)	2(22.2)	0(0.0)	0(0.0)	1(11.1)
부모님	6(42.9)	3(21.4)	1(7.1)	0(0.0)	0(0.0)
일반가정	20(32.8)	14(23.0)	3(4.9)	4(6.6)	9(14.8)
편부, 편모 가정	9(36.0)	6(24.0)	1(4.0)	0(0.0)	2(8.0)
재혼가정	4(33.3)	3(25.0)	0(0.0)	0(0.0)	2(16.7)
기타	2(50.0)	0(0.0)	0(0.0)	0(0.0)	0(0.0)
구분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 예정	직업교육훈련	취업과 진학 병행	시간제 근로 및 아르바이트	χ^2/p
혼자	1(11.1)	1(11.1)	0(0.0)	1(11.1)	28.555 / 0.912
부모님	1(7.1)	2(14.3)	0(0.0)	1(7.1)	
일반가정	1(1.6)	4(6.6)	5(8.2)	1(1.6)	
편부, 편모 가정	3(12.0)	2(8.0)	2(8.0)	0(0.0)	
재혼가정	1(8.3)	1(8.3)	0(0.0)	1(8.3)	
기타	0(0.0)	1(25.0)	0(0.0)	1(25.0)	

제3절 심층면접조사(FGI) 개요

1. 조사 개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와 더불어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 FGI)를 통해 조사되지 않은 세부 사례들과 문제점 그리고 정책제언 등을 함께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중단 시기·지역·유형과 가족관계, 주변에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하거나,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반면, 탈선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를 비롯한 지원 기관의 전문가, 실무자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전해 들음으로써 기존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들과 현황들을 확인하고,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정책제언을 통해 관계 기

관 및 수원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절에서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실무자,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기관장 등 실무자·전문가를 모셔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조사(FGI)는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 분석과 더불어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접조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이고 현실고민이 반영된 효과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대상은 크게 당사자와 실무자·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경우 수원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다. 당사자 심층면접조사는 2018년 7월 26일, 1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총 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실무자·전문가의 경우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실무자·전문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대안교육위탁기관장과 대안학교장, 서울시립청소년쉼터 소장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1차 심층면접조사(대안교육위탁기관장, 대안학교장)는 2018년 8월 7일 총 2명, 2차 심층면접조사(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담당 지원 기관)는 2018년 8월 9일 총 4명, 3차 심층면접조사(서울특별시립청소년쉼터 소장, 실무자)는 2018년 11월 6일 총 4명의 실무자·전문가가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당사자, 실무자·전문가용 질문지(가이드라인)를 별도로 구성하여 시행하였으며, 직접 만나 인터뷰를 수행하는 면대면 인터뷰와 라운드테이블 회의방식을 통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3. 조사 내용

심층면접조사에 활용한 구조화된 질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검토 및 설문지 문항구성에 활용한 주요 분석 영역과 변수를 질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실무자·전문가 집단의 구조화된 조사내용은 다음 <표 4-66>과 같다.

〈표 4-66〉 심층면접조사(FGI) 집단구분 및 조사내용

집단구분	주요내용	
당사자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 • 학교를 그만 둔 이유 •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 •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본인의 계획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그만 두기 전과 후의 차이점 • 현재의 생활패턴, 활동반경 • 현재 생활의 만족도 •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좋은 점, 어려운 점, 불편한 점 • 친구관계, 가족관계의 변화
	진로준비 및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준비 및 노력,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 • 학업중단 시기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 •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관
	아르바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는 상황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및 프로그램 인지여부 •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 및 요구사항 • 학업 및 진학, 진로 및 직업(훈련) 우선사항 및 정책요구사항
실무자 · 전문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 경로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Grouping) •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인 관심사, 요구사항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이 기관을 다니면서 달라진 선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기관자체, 종사자 및 개인) •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종사자 본인(학교 밖 청소년)의 만족도와 효과성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중 직접 지원에 도움을 주거나, 업무상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 전문가로서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스템 체계

제4절 심층면접조사(FGI) 분석 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1)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생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는 중학교 졸업 전 및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의 기간이 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는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및 체계가 자신과 맞지 않아 학업을 중단한 경우, 학교선생님과의 갈등, 학급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해 학업 중단 등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시스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생활기록부 관리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가 대충 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차별(예 체능 학생과 일반 학생의 차별, 성적우수자와의 차별)과 비하 발언 및 학생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무성의함을 작성하는데 반영한다. 그리고 학교 시스템은 통일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겨, 개인의 자유와 의견은 무시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교 적응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 대해 다수의 공감을 샀다.

학교 선생님과 갈등, 학급 친구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 주장이 강해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거나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학급생들 간의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밝혀내기 보다는 방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학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외 관심은 없어 대화와 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급 친구들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연약한 친구들에게 원치 않거나 부담이 되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강요(예: 학예회 때 원치 않는데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잔심부름 등을 시킴)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 내 문제가 학업을 중단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선생님과 관련된 문제적 의견들은 전체 선생님과 가지는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 일부 선생님들의 교육방식과 훈육방식에 의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학교 선생님과 상담 후 학업중단이 이루어졌으며, 학업중단 후 관련된 교육이나, 안내책자 등의 정보는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

학교를 그만 둔 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모두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있어 자유롭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만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하지만 학업중단 후 3년이 지난 청소년의 경우 시간이 너무 많은데 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해 답답하며,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다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야외 활동 보다 집에서 주로 활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 둔 후 초기에는 자유로움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지나친 자유로움으로 인해 생활의 만족도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오전 늦게 일어나 오후에 활동을 시작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거리를 활보하면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볼 때가 있으며, 직접적으로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복을 입지 않고 버스를 타거나, 평일 낮 시간에 버스를 탑승할 때, 종종 카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일반인 요금으로 버스기사가 변경하여 다시 찍게끔 조치하여, 정작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오후 늦게 밖에 나가는 버릇이 생겨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를 그만 둔 후 가족과의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부모님들 간의 다툼이 증가한 경우와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겨 가족과 여행 및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더욱 좋아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심층 면접조사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진로준비 및 선택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진로보다 진학을 선택한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진로를 선택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상담 및 멘토링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유튜브(youtube)를 통한 자발적 학습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센터에서 시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중학교 때 학업중단이 이루어진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조건들에 학교 밖 청소년도 고려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직업(훈련)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 멘토링 연결 등 각종 진로선택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원하거나 활용하고 있지만, 정보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4)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아르바이트의 기준이 되는 각종 제약조건들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카페 중 주류 판매 가능업소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음료를 주업종으로 하지만 (학교 밖)청소년들은 주류 판매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학교 밖)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제조업체, 패스트푸드, 술을 판매하지 않는 일반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 장소를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그러나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는 지역에 한정적일뿐만 아니라 경쟁이 심해 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결국 신체를 이용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 주기를 원하였다.

5) 정책지원

정책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원을 연계시켜 주거나, 학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주기를 원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둘째,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및 직업교육훈련이 다양하기를 원했으며, 참여조건 및 지원조건도 학교 밖 청소년을 고려하여 변경되기를 원하였다.

셋째,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지원 및 확대를 요청하였다. 왜냐하면 PC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자가진단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상담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학습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을 지원해주는 시설(예: 수원시 청개구리연못)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주기를 원했으며, 기존의 활동시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별도로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의 지원과 함께 부모교육도 함께 지원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

1)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실무자·전문가의 경험상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이나 교육청 및 경찰청을 통해 유입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오거나, 친구 추천 및 지인의 추천으로 오거나, 섭터를 통해 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주로 대인관계 부적응(학교 선생님 및 친구와의 갈등), 학업부적응(학교 규칙 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 정신건강상의 문제, 가정문제, 비행 청소년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과 상황이 다양하므로, 그들의 특성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는 공통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다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겉으로는 적극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거나 내면적으로는 약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시선과 인식은 내면을 일깨워주기 보다 오히려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차별하는 인식이 강하다.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신체적 건강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의지력이 약화되는 등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심적 부담이 다른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실무자와 전문가가 모두 자발적 활동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까지 소외받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로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이나 대안학교, 그리고 대안교육위탁기관 등에 자발적으로 활동을 신청한 청소년들은 다른 유입경로로 들어오는 청소년들보다 진학과 진로개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문제해결의지도 강해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을 완주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인 의지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우 적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자발적 활동의지를 일깨워 주는 지원정책이 매우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과 대안학교, 대안교육위탁기관 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검정고시 지원과 상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로 인턴십 지원

및 정신과 치료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 있으나, 검정고시 지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예산부족이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주로 지원받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위탁기관, 그리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질 높은 상담, 그리고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은 성과평가 항목에 맞춰 기관을 운영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비해 성과평가 항목들은 일괄적이고, 성과달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은 생각하지도 못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연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지원 기관의 예산이 확보되어도 공간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기관과 기관 간에 프로그램 연계가 힘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이 고용노동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안내, 인솔)을 하지만 고용노동센터에서 해당 지원체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에 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센터에서는 지원을 연계하고 협조하기 위한 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업무처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3) 정책지원

실무자·전문가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차별적인 언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둘째,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와 지원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공무원과 실무자·전문가 등이 모여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할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및 문화활동 등에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기를 요구하였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중 참여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참여조건을 변경 및 확대하여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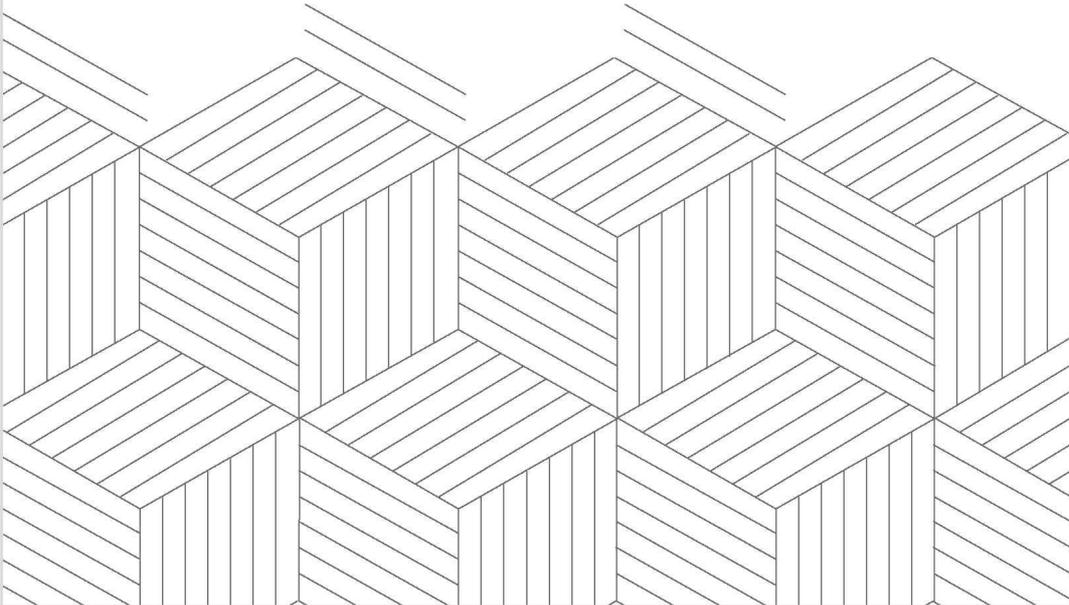
밖 청소년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과평가에 의해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성과를 잘 받기 위한 구조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관에 대한 평가 제도가 수정되거나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가의 전문성이 지속·유지되어야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는 전부 계약직으로 2년 후 재계약이 미정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년을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에 축적된 전문성은 사라지고, 신규로 축적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제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가지 영역인 ‘배경요인’, ‘학업중단’,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경요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은 총 133명으로 성별 구분은 남성 55명(41.4%), 여성 75명(56.4%)이며, 연령 구분은 17세 이상 ~ 19세 이하가 응답자의 53.4%, 14세 이상 ~ 16세 이하가 응답자의 32.3% 순으로 고등학생과 중학생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대체적으로 고등학교(85명, 63.9%) 때가 가장 많았으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중단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을 중단하고 경과된 기간은 3년 이상(30명, 22.6%)과 1년 이상 ~ 2년 미만(26명, 19.5%)이 가장 많았다.

학교를 그만 둔 유형으로는 자발적 자퇴(91명, 68.4%)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많았으며, 학업을 중단한 주된 요인으로는 ‘신체 건강상의 이유’, ‘심리·정신적인 문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등을 꼽았다.

학교를 그만 둔 무렵 고민은 주로 부모님과 가장 많이 상의하고 그 외 친구, 담임선생님,

형제·자매 등이 고민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이 중단될 경우 학교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제공받은 경험이 없는 것(평균 63.7%)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두는 것과 관련해서 부모님(보호자)의 반응은 과거 보수적이고, 학업을 중요시 하시던 모습과 달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조언하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을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에 대해서는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44.4%, 59명)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회하는 이유로는 ‘친구 사귄 기회가 줄어든 것’,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졸업장을 못 받는 것’,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등을 꼽았다. 반대로 후회하지 않는 이유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취업(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 ‘학교 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등을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검정고시(67명, 50.4%) 공부와 진로상담(53명, 39.8%),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50명, 37.6%) 등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주로 보낸 활동은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냄’,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채팅 또는 문자’, ‘취미 생활’, ‘친구와의 음주’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집과 집 이외 장소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대체로 집에서 보내지만,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공간(원룸, 쪽방, 모텔, 여관, 찜질방, PC방, 지하철이나 기차역)에서 지내는 비율도 28.9%(50명)로 적지 않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둔 후 부정적 행위들의 경험여부를 물어본 결과 음주(74명, 55.6%)가 가장 많았으며, 자살 생각(61명, 45.9%), 흡연(67명, 50.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살 시도(27명, 20.3%)의 응답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6.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는 서빙(19명, 29.2%)과 패스트푸드(11명, 16.9%)를 가장 많이 해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부당한 경험을 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적었지만, 임금과 관련하여 한두 번 정도의 문제나 근무 중 상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선택 관련 문항에서는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설정을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것보다 정규학교로 복학 및 진학 혹은 검정고시 등 학업적인 부분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대한 가치기준은 ‘직업 선택 시 흥미와 적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51명, 38.3%)’와, ‘자신의 능력이 발휘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47명, 35.3%)’ 등 흥미와 적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두고 현재의 심리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기분이 울적하다(22.6%)’, ‘외롭다(20.3%)’,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20.3%)’ 등 ‘매우 그렇다’의 응답도 높게 나타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두고 겪고 있는 어려움(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54명, 15.8%)’,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38명, 11.1%)’, ‘부모와의 갈등(38명, 11.1%)’ 등 대체로 육체적 고통보다 심리적 고통이 학교 밖 청소년을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4)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은 전반적으로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용경험 여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6개의 지원사업(청소년 동반자, 취업사관학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인지여부는 평균 18.6%로 매우 적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용경험 여부는 더욱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이 요구하는 지원 정책에서는 “학업 및 진학 관련 정책”으로는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40명, 30.1%)’,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46명, 34.5%)’,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61명, 30.8%)’ 순으로 조사되어 정보 제공, 학습 멘토 지원, 그리고 물질적 지원까지 순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책”은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71명, 53.4%)’, ‘직업교육 훈련(59명, 44.4%)’, ‘자산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43명, 32.3%)’ 순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프로그램 조성을 우선시 하며, 추후 창출된 수익에 대한 자산관리의 정보도 제공받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차분석

교차분석에서는 ‘학교를 그만 둔 시기’와, ‘정보제공 경험여부’, ‘진로’관계, ‘학교를 그만 둔 기간’과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정도’관계, ‘학교를 그만 둔 지역’과 ‘학교 밖 청소년 시설 지원’관계 ‘가족 구성원’과 ‘학교성적’,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후회 여부’, ‘향후 진로에 대한 생각’관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교차 비교문항 간 분석결과에서 특정한 규칙이나 특성(예: 시기의 증감에 따라 비례한 결과값 도출, 기간의 증감에 따라 비례한 결과값 도출, 학교를 그만 둔 지역에 따라 비례한 결과값 도출, 가족 구성원에 따라 특성별 결과값 도출)이 밝혀지기보다는, 각 문항별 차이가 존재하는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쳤다. 이유는 조사응답자 표본의 수가 적어 다수의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 결과

심층면접조사(FGI)는 양적 연구방법으로 도출되지 않는 다양한 사례들과 의견들을 면접조사를 통해 상호보완하는 연구로서, 현실고민이 반영된 효과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크게 당사자와 실무자·전문가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집단별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학교 규칙 등이 맞지 않아서 학업을 중단했다고 이야기했으며,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선생님의 차별과 강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 두기 전 학교와 선생님이 학업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담을 실시하긴 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교육, 안내책자, 시설안내 등의 정보는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불만족의 경우도 자유로운 활동 및 지루함 등의 의견으로 제시되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기 다른 만족을 느끼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미숙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 패턴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을 피하기 위해 주로 늦은 오후시간에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생활패턴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과의 관계는 부정적 관계 보다 긍정적인 관계로 개선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예: 여행,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 보다 진학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을 선택한 경우, 고등학교 진학 및 대학 진학을 위해 검정고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는 유튜브(youtube)와 정부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는데 경로를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통해, 지원정책의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하였다.

정책지원 및 자유의견으로는 검정고시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을 다양화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청하였으며, 학습 및 동아리 활동 공간의 개방시간을 확대 및 시설이 증원되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 가족에게도 지원되기를 요구하였다.

2)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과 대안학교장, 대안교육위탁 기관장 등이 참여하였다. 실무자·전문가가 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유입경로는 꿈드림 전산망, 교육청, 경찰청을 통해 유입되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오는 경우, 친구 추천 및 지인의 추천, 쉼터 등 유입경로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의 이유에는 대인관계 부적응(학교 선생님 및 친구와의 갈등), 학업부적응(학교 규칙 부적응, 학교생활 부적응)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사유에는 정신건강상 문제, 가정문제, 비행 청소년 등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과 인식이,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비판 및 차별 인식이 강해 공통적으로 사회로부터의 상처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고 싶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경우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 배정이 매년 실시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성과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여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다소

해결방식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전문가 집단에서의 정책지원 및 자유의견으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둘째,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주장하였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및 문화 활동 등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주장하였다. 넷째, 직업훈련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제약 없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이 재구성되기를 요구하였다. 다섯째, 성과평가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예산 배정은 오히려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성과평가제도의 구성항목의 수정 및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담당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당 상담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학교 밖 청소년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본 연구의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인 치료의 필요성이다.

실태조사 결과들 중 심리·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문항들을 종합해보면 학업을 중단하게 된 주된 요인으로 ‘신체 건강상의 이유’, ‘심리·정신적인 문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등을 꼽았다. 특히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가장 많이 경험해 본 것 중 하나가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였으며,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경험해 본 부정적 행위들 중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둔 이후 현재의 심리상태는 ‘기분이 울적하거나, 외롭거나,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되는’ 등의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를 그만 두고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하거나,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부모와의 갈등’ 등 대체적으로 육체적 고통보다 심리적 고통이 학교 밖 청소년을 더욱 힘들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결과들은 단순한 정책제언 수준을 넘어서서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수립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관련 현황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여 중앙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사전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지원체계는 심리·진로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지원과 취업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료지원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지원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에 국한하지 말고, 수원시 보건소 및 지역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

2.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 의하면 지원센터 및 위탁기관, 대안학교 등을 찾아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에 관심이 없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이 집이 아닌 외부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외부활동을 통해 적절하게 시간도 소비할 수 있어 기관 및 센터의 방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지원에 관심이 없거나, 지원을 받아보지 못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관련 기관 및 센터에 방문하기까지에 이르는 과정은 학교 밖 청소년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방문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설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누구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활과 진로설정, 학습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이 꼭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학교 밖 청소년 발굴협조 기관들로 구성하여 기관별 정책홍보, 빅데이터 분석, 아웃리치 등의 발굴노력을 하도록 지원 체계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체계는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사건·사고로 인해 발굴된 경우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정복지사 등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상담소 등 지역 곳곳에 위치하여 지역 현안에 밝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담당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업무

상 특성이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와의 연계업무란 가정방문 및 지역 복지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변의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이 발견되면 해당지역과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사 및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 상담사 및 실무자는 전달받은 정보를 통해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만나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에 참여하게 되며, 미래설계 및 신체적·정신적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학교 밖 청소년 초기 홍보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이전의 과정은 학업중단 위기학생으로 해당 학생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학교)에서 담당한다. 학교에서는 학업중단 중단위기가 예측되거나 혹은 자발적인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을 시행한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자발적 자퇴 유형이 가장 많아 실제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기 보다는 1주일에 1번씩 상담시간을 갖고 총 3주에 걸쳐 숙려기간을 가진 후 자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후 해당 학생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 간에 담당부처와 담당기관이 교체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담당기관 및 지원 정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학생을 떠나보내는 학교에서나, 학교 밖 청소년 담당기관에서도 모두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관련 정보만 학교 밖 청소년 담당기관에 전달할 뿐인 것이다. 즉, 자발적 자퇴 혹은 비자발적 자퇴의 유형과 관계없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청소년들은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혼자 남겨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지만,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보완책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중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지원과 기관 현황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시간을 프로그램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숙려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혹은 프로그램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 및 가정·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교육청(학교)이 연계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중에 청소년이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상담가와 상담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학업중단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복귀 시스템 구축

여성가족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56.9%)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학교로 복학하는 비율이 19.9%에 달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는 18.8%에 달하다고 분석되었다.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도 44.4%의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중단을 선언하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생활하다가 선택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서 학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홈페이지를 보면 교육지원에 검정고시와 복고 및 진학이라는 메뉴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제언된 ‘학교 밖 청소년 초기 홍보 강화’ 에서와 동일한 문제로 학교를 다닐 때 학업중단을 선언하게 되면, 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고 필요한 정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자발적으로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 복귀를 원하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고,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송부하라는 정보만 제공하고는 별다른 정보나 지원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 복귀는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지만, 해당 청소년이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누가 하나 책임지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과정’은 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는 과정’은 여성가족부로 업무를 구분하면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청소년들이 학교 복귀로 가장 신중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부족한 정보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본능적 판단에 의지한 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교육청이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행정처리 그리고 적응사례와 부적응 사례 등의 선례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기관 공동의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미리 정보를 제공

받고, 두 기관은 잠재적인 정책 대상자의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추후 변화를 예측하거나 대비하는 차원으로 시스템을 확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

5. 학교 밖 청소년 명칭 변경

사회에서 바라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혹은 과거의 표현을 빗대어 설명하면 비행청소년 혹은 자퇴생 등의 단어와 매칭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 둔 형태는 자발적 자퇴(91명, 68.4%)가 가장 많으며, 그만 둔 이유에도 신체 건강상의 문제 혹은 심리·정신적인 문제 등 비행청소년, 자퇴생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부기관에서도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 경찰청과 학교폭력 근절 공동대응’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상습 폭행 가·피해자,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역할 분담과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한 공동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료 : 경기도교육청, 2018. 보도자료; 전민경, 201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과제」

학교 밖 청소년을 상습폭행 가·피해자, 폭력서클,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범주에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별도로 정의가 제시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위와 같이 부정적 인식으로 잘못 각인되어 있다.

학교를 그만 둔 후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무시’(15.8%)로 꼽았다. 실무자·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학교와 사회로부터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존감이 하락하는 것을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단순히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수준을 벗어나 전반적인 개선과 변화가 요구된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명칭 변경이다. 학교를 기준삼아 ‘안’과 ‘밖’으로

대치되는 두 글자를 사용한 것부터가 차별적인 언어 표현이다. 의미상으로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는데, 학교 밖 나머지는 어떤 유형의 청소년들이 있으며, 하나의 정의로 포괄하여 부르는 것이 합당한지 등의 고민 없이 단순하게 이분화 시켜 놓았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속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을 구분하여 보다 새로운 명칭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명칭을 정의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하기에 특정 집단에서 명칭을 정하고 공표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다수가 인정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경애 외(7명)(201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개발원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관계부처합동(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안)
- 남기곤(2011),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의 경제적 효과 추정, 시장경제연구 40권 3호, pp. 63-94
- 문용린 외(11명)(2009),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드림연구팀)
- 박민선(2016),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보 592호, pp.45
- 박선영(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해외 사례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창남 외(3명)(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창남 외(1명)(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권 3호, pp.207-238
- 배미경(2016), 학교밖청소년의 탈학교 의미 연구: 근거이론 방법으로,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백혜정 외(1명)(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수원시(201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 선다솜(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의식과 진로선택과정, 평택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학위논문
- 송미경(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해외 사례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국선 외(1명)(2001),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권 3호, pp.127-148
- 여성가족부(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윤철경(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외(1명)(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 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권 2호, pp.41-64
- 이병환(2007), 대안교육을 통한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방안, 중등교육연구 55권 1호, pp.69-89
- 이자영 외(4명)(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8권 2호, pp.225-241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정익중(2009),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위탁아동 1기 1, 2차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조강원(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있어 내적·외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민경(2014), 경기도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정책적 제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미경(2018),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현황과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 정경숙(2013),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제영 외(4명)(2013), 주변인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육과학연구 44권 2호, pp.119-143
- 정제영 외(3명)(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혜원 외(3명)(2017), 경기도형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모델 개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최현주(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해외 사례 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3차년) 홍보 리플렛

〈영문 자료〉

Dryfoos, J. G.(1991),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신문 자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찰청과 학교폭력 근절 공동대응, 2018년 7월 4일자 보도자료
금강일보, 범망 밖 청소년, 해외 사례 보면 답 보인다, 2016년 3월 21일자
뉴스1, 수원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본격화, 2015년 3월 21일자

〈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경기도청 <https://www.gg.go.kr/>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http://www.gfwri.kr/>

경기도교육청 www.goe.go.kr/

꿈드림 www.kdream.or.kr

수원시 <http://www.suwon.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홍보물 <http://www.mogef.go.kr/nw/enw/>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 부 록 |

1. 학교 밖 청소년 설문지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p>안녕하십니까?</p> <p>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입니다.</p> <p>본 연구원에서는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본 조사는 수원시 내 학교 밖 청소년이 올바른 진로를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 및 학업복귀가 가능하도록 지원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p> <p>본 조사표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33조에 따라 개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일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5월</p> <p style="text-align: center;">수원시정연구원</p> <p>※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조사주관 : 수원시정연구원</p> <p>○ 문 의 처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이영안 연구위원 031-220-8025</p>

【 면 접 원 기 록 란 】

면접원성명		SV 확인	
면접일시	2018년 월 일 시	검증결과	○ ×

I. 학업중단

문 1. 학교를 언제 그만 두었습니까?

- ① 초등학교 ⇨ 「문 1-1」로 ② 중학교 ⇨ 「문 1-2」로 ③ 고등학교 ⇨ 「문 1-3」로

문 1-1. 초등학교 몇 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⑦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음 ⑧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음

문 1-2. 중학교 몇 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문 1-3. 고등학교 몇 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문 2. 학교를 그만 둔 후 현재까지 기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문 3.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를 그만 둔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자발적 자퇴(내가 그만 둔 것)
 ② 비자발적 자퇴(내 생각보다는 부모, 학교 등 주변 권고로 자퇴)
 ③ 징계로서의 퇴학 ④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⑤ 유예* ⑥ 면제**
 ⑦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
 ⑧ 기타 (_____)

⑤ 유예* : 질병,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해당학년 취학의 의무를 1년(해당학년 말까지)의 범위 내에서 보류하는 것
 ⑥ 면제** : 질병이나 부모 1인 이상 동행하는 유학, 부모의 해외파견 취업 등으로 인한 해외출국 등으로 교육의무를 면하는 것

문 4. 학교를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내용	
① 신체 건강상의 이유로 ③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⑤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⑦ 부모님의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해 ⑨ 부모님의 잦은 싸움 등 불화로 인해 ⑪ 학업성적이 잘 안 나와서 ⑬ 공부하기 싫어서 ⑮ 이민 또는 해외 유학 가려고 ⑰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⑲ 이성문제로 인해 ⑳ 선생님의 차별 때문에 ㉑ 선생님과 싸워서 ㉒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㉔ 학교가 너무 멀어서 ㉖ 유해환경(유해업소, 폭력집단 등) 때문에 ㉘ 비행으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④ 내가 임신을 하거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⑥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⑧ 부모님의 폭력 때문에 ⑩ 부모님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⑫ 검정고시를 준비 하려고 ⑭ 내 특기를 살리려고 ⑯ 취업을 하여 돈을 벌고 싶어서 ⑳ 학교친구들과의 문제(폭력, 왕따 등)로 인해 ㉑ 학교를 그만 둔 친구의 영향으로 ㉒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㉔ 학교의 규칙이 엄격해서 ㉖ 학교 분위기(문화, 동아리, 자치활동 등)가 나와 잘 맞지 않아서 ㉘ 전학이 잘 안되서 ㉚ 아르바이트로 피곤해서 ㉜ 그 외 (_____)

문 5. 학교를 그만 둔 무렵,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③ 친구 |
| ④ 선후배 | ⑤ 담임선생님 | ⑥ 담임 외 교과 선생님 |
| ⑦ 학원 선생님 | ⑧ 학교 상담선생님 | ⑨ 성직자(목사님, 신부님, 스님 등) |
| ⑩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⑪ 친척 | ⑫ 인터넷 상 모르는 사람 |
| ⑬ 아무도 없었다. | ⑭ 기타 (_____) | |

문 6. 학교를 그만 둔 당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항목	제공 받은 경험	
	있다	없다
1)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②
2)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①	②
3)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②
4)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②
5)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②
6)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센터)	①	②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 대한 정보	①	②

문 7.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부모님(보호자)께서 귀하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2)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3) 진학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4) 올바른 공부 태도와 사는 방식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6) 공부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셨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보다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9) 내 몸이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문 8. 학교를 그만 둘 당시 귀하의 부모님과 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학교를 그만 둘 당시 부모님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⑤ 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사항 없음
1) 부모님은 서로 다투셨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부모님 간에 폭력이 발생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시간과 관심은 쏟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우리 가족은 하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우리 가족은 서로 의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9. 학교를 그만두기 전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여 잘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가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항목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1) 지각	①	②	③	④	⑤
2) 무단결석	①	②	③	④	⑤
3)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①	②	③	④	⑤
4) 숙제를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을 몰래 빼 먹음(무단조퇴)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①	②	③	④	⑤
7)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①	②	③	④	⑤

II.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생활실태

문 12.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2-1」로 ② 아니오 ☞ 「문 12-2」로

문 12-1.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친구 사귀기 기회가 줄어든 것 ② 지식 습득 기회가 줄어든 것
 ③ 다양한 경험(수학여행, 여러 활동 등)을 못하는 것 ④ 졸업장을 못받는 것
 ⑤ 소속감(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⑥ 학생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못 누리는 것
 ⑦ 교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 것 ⑧ 기타 (_____)
 ⑨ 없음

문 12-2. 학교를 그만 둔 후 후회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순서대로 세 가지를 고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②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③ 취업(아르바이트)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된 것 ④ 학업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⑤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⑥ 학교규칙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⑦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것 ⑧ 선생님의 차별과 체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⑨ 기타 (_____)
 ⑩ 없음

문 13.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항목	경험여부	
	있다	없다
1)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2) 검정고시 공부를 함(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3) 대학입시 공부를 함(대입 학원 등)	①	②
4) 진로상담을 받음	①	②
5) 직업기술을 배움(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①	②
6)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7)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문 14.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지금까지 어떤 친구(선·후배포함)와 주로 어울리니까?

- ① 기존의 학교 친구
- ② 학교친구 이외의 기존 친구
- ③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새로 사귀 친구
- ④ 친구를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 지냄

문 15. 학교를 그만 둔 후 본인의 집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곳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친구 집에서 지냄
- ② PC방 같은 곳에서 지냄
- ③ 가출랭과 함께 생활함
- ④ 보호시설(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에서 지냄
- ⑤ 그룹홈, 시설 등에서 지냄
- ⑥ 원룸, 쪽방, 고시원 등에서 지냄
- ⑦ 모텔, 여관 등에서 지냄
- ⑧ 찜질방 등 불규칙한 거리생활
- ⑨ 지하철이나 기차역
- ⑩ 기타 (_____)
- ⑪ 해당사항 없음 (집 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한 적 없음)

문 16.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학생신분이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목	경험여부	
	있다	없다
1) 버스승차나 공원입장 시 학생증이 없어 돈을 더 많이 낸 경험	①	②
2) 공모전에서 참여자격이 학생만으로 되어있어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①	②
3) 취업 시 학생이 아니라고 자격 제한을 받은 경험	①	②
4) 도난 등의 사고 발생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받은 경험	①	②
5) 대학진학 시 학생이 아니어서 내신관련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은 경험	①	②

문 17.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주로 시간을 보낸 활동과 평균 시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시간	2순위	() 시간	3순위	() 시간
평균	() 시간	평균	() 시간	평균	() 시간

- ① TV 시청
- ② 채팅 또는 문자를 했다.
- ③ 컴퓨터(게임, 웹서핑 등)를 했다.
- ④ 집안일을 했다.
- ⑤ 돈벌이(직장, 아르바이트 등)를 했다.
- ⑥ 학원에 다녔다.
- ⑦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다.
- ⑧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 ⑨ 취미생활을 했다.
- ⑩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 ⑪ 하고 싶은 일에 관련된 모임(시민단체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했다.
- ⑫ 지역사회 기관(수련관/복지관/공부방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 ⑬ 종교 생활(교회/절/사당 등)을 했다.
- ⑭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을 보냈다.
- ⑮ 기타 ()

문 18.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변화정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2) 심리상태	①	②	③	④	⑤
3)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인간관계(친척, 친구, 지인)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가 학교를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일시직)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9. 학교를 그만 둔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19-1」로 ② 아니오 ⇨ 「문 20」로

문 19-1. 귀하가 지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무엇입니까?

()

※ 문 19-2 ~ 문 19-4 까지는 귀하가 위에서 응답했던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9-2.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귀하가 경험한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 ※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해서 바꾸세요.
- ※ 최대 소수점 1자리까지만 표시해 주십시오.(예: 35일 5.5시간 등)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였습니까?	약 ()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였습니까?	약 ()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약 ()원

문 19-3. 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회사나 고용주(사장)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① 작성했다.
- ② 작성하지 않았다.

문 19-4.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부모동의서'를 회사나 고용주(사장)에게 제출하였습니까?

※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귀하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었다면 ① 해당사항 없음(만 18세 이상)에 응답하세요

- ① 제출했다.
- ② 제출하지 않았다.
- ③ 해당사항 없음(만 18세 이상)

문 19-5.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하고 있거나, 하였던 아르바이트는 평균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 ① 1주 미만
- ② 1주 이상 ~ 1개월 미만
- ③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④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⑤ 6개월 이상 ~ 1년

문 19-6. 귀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없다	한두 번	세 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도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	①	②	③
3)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4)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5)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6)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시켰다.	①	②	③
7)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8) 처음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①	②	③
9)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문 19-7. 귀하가 하였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적성에 맞지 않아서
- ② 보수가 적어서
- ③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④ 동료 또는 주인과의 불화
- ⑤ 근무 조건/환경이 나빠서
- ⑥ 집안의 반대로
- ⑦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 ⑧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⑨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 ⑩ 기타 ()

※ 다음은 귀하가 학교를 그만 둔 후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0. 학교를 그만 둔 후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을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가입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을 경우 '㉔ 아니오'에 기재

- ① 예 ⇨ 「문 20-1」로 ② 아니오 ⇨ 「문 21」로

문 20-1. 동아리 활동(인터넷 카페 활동 포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이유가 두 개 이하인 경우 1개 혹은 2개만 작성)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① 재미를 위해
③ 공모전 등 각종 대회 준비에 도움
⑤ 보다 많은 사람과의 교류
⑦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⑨ 사교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서
⑪ 복학에 도움
⑬ 취업 또는 직업 선택에 도움
⑮ 특별한 이유 없음 | ② 자기계발
④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끼리의 공감대 형성
⑥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⑧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⑩ 검정고시 준비에 도움
⑫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
⑭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

※ 다음은 귀하의 진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1. 다음은 귀하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를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선택한 직업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흥미나 성격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계획한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얻는데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보다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이 권하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2.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②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
| ③ 대안학교 진학 | ④ 해외 유학 |
| ⑤ (대안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 | ⑥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
| ⑦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해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임 | ⑧ 취업과 진학 병행 |
| ⑨ 진학이나 취업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낼 예정임 | |

문 23.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한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과나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4. 다음은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직업에 대해 지니고 있는 가치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업선택 시 흥미와 적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적성도 중요하지만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업을 가진다면 무엇보다 보수가 높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직업은 남이 보았을 때 반듯한 직업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보다는 해오던 일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성공에 대한 기준을 부로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친밀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회에 헌신하는 일이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돈 많은 부자보다 존경받는 사람이 좋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6) 새로운 생활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17) 돈 보다 명예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정년 보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일 할 수 있는 직업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귀하의 심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5. 다음은 평소 귀하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들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슬프거나 힘들 때에도 좌절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하더라도 기운을 내어 새로 시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6. 최근 한 달 동안 자신이 경험한 심리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기분이 울적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허무한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긴장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27. 여러분은 최근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해 보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3)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⑤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보내느라 다른 일을 소홀히 했다	①	②	③	④	⑤
5)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고 즐거웠다	①	②	③	④	⑤
7)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 보았지만 실패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28.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 후 지금까지 귀하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	경험여부	
	있다	없다
1) 집단 따돌림을 당함	①	②
2) 문자나 메신저로 일반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②
3)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김	①	②
4) 심하게 얻어맞음	①	②
5) 성적인 놀림을 당함	①	②
6) 성폭력을 당함	①	②
7) 담배 피우기	①	②
8) 술 마시기	①	②
9)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②
10) 자살 생각	①	②
11) 자살 시도	①	②
12) 약물(마약류)복용	①	②
13) 본드 및 부탄가스 등 출입	①	②
14) 가출	①	②
15) 성매매	①	②

문 30-2.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지원" 중 이용경험에 있어 불편한 점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교통이 불편해서 방문하기 힘들다.
- ② 방문지가 멀어서 찾아가기 힘들다.
- ③ 지원기관 및 센터가 부족하다.
- ④ 지원기관 및 센터가 적어 불편하다.

문 30-3.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지원" 중 이용경험에 있어 불편한 점을 선택해주시시오.

- ① 사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 ②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 ③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 ④ 불편하지 않다.

문 31.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입니다. 각 항목을 읽고 필요성의 정도를 해당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영역	항목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업/진학	1)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①	②	③	④	⑤	
	2)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①	②	③	④	⑤	
	3)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등)	①	②	③	④	⑤	
	4)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지원	①	②	③	④	⑤	
진로/직업	5)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①	②	③	④	⑤	
	6) 직업교육훈련	①	②	③	④	⑤	
	7)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①	②	①	③	④	
	8) 자산관리(본인이 직접 돈이나 통장 등을 관리하는 방법 등)와 관련된 정보 제공	①	②	①	③	④	
건강	신체	9) 건강검진 제공	①	②	①	③	④
		10)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①	②	①	③	④
	심리	11) 성교육 제공	①	②	①	③	④
		12) 각종 고인에 대한 상담제공	①	②	①	③	④
여가활동	13)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①	③	④	
	14)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등 중독 치료 지원	①	②	①	③	④	
	15)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	①	②	①	③	④	
	16) 체육 활동 지원	①	②	①	③	④	
기타	17) 문화예술(그림, 사진, 악기 등) 활동 지원	①	②	①	③	④	
	18) 자유롭게 활용(학습, 동아리활동 등)할 수 있는 공간 제공	①	②	①	③	④	
	19) 봉사활동 기회 제공	①	②	①	③	④	
	20)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①	②	①	③	④	
	21) 각종행사 자격기준을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변경	①	②	①	③	④	
22) 학교 밖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유투, 학습공간, 동아리 활동 등)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 또는 앱 제공	①	②	①	③	④		

문 31-1. 다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학업 및 진학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학업 및 진학 관련 정책>

- ① 복교(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절차 및 방법 안내
- ② 학습 또는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 ③ 진학정보 제공(검정고시, 입시정보, 대안학교)
- ④ 검정고시 준비(학습, 비용 등) 지원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31-2. 다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중 '진로 및 직업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진로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

- ①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
- ② 직업교육훈련
- ③ 근로 중 피해(언어폭력, 임금체불 등)에 대한 보호
- ④ 자산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IV. 배경요인

문 32.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잠시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㉔ 혼자
- ① 친아버지
- ② 친어머니
- ③ 새아버지
- ④ 새어머니
- ⑤ (외)할아버지
- ⑥ (외)할머니
- ⑦ 형제, 자매
- ⑧ 친척
- ⑨ 시설 및 기관 선생님
- ⑩ 동성 친구, 동성 선후배
- ⑪ 이성 친구, 이성 선후배
- ⑫ 남편, 아내
- ⑬ 자녀
- ㉕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33. 친부모님의 혼인 상태는?

	돌아가심	첫 번째 결혼 유지	재혼	별거	이혼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㉔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㉔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A Study on Out of School Youth Survey and Support Plan in Suwon

As the Law on Out-of-School Youth Support was enacted in 2014,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is established nationwide and related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are being establishe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systematic information delivery system for youths to understand and utilize the system outside the school.

The number of out of school adolescents is estimated of 280,000 by the joint Ministry in 2015.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will continue to accumulate when the follow-up survey of out-of-school youths has not been doing properly. However, the basic local government are not able to grasp the actual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out-of-school youth and the demand for support as the role of assisting the stat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upport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eneral condition of out of school youths of Suwon city and to draw out the support plan. In other words, the purpose is to accurately grasp the current situation and situation of the out fo school youths of local government(Suwon city)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out-of-school youths and to find ways to support and care for them by Suwon city itself. The factual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is used as a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Suwon city out-of-school youths were most likely to have stopped studying in high school, and survey respondents were most likely to have more than three years and more than one year to two years of out-of-school . Voluntary withdrawals were the main reason for dropping out of school, physical health reason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and difficulty of getting up in the morning. It was found that parents '(guardians)' s responses to the study

interruption were more conservative and more respectful to their choice of the child than they were in the school - oriented situation. Nearly half (44.4%) of those who quit school after resigning from school reported regrets, and these results show that out of school, many out-of-school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go to school. It can be interpreted as a preparation for the GED, indicating that you are extending your studies in a new environment, not giving up or discontinuing your studies.

The biggest problem in Suwon's out-of-school youth surveys is that psychological distress is more serious than physical pain among adolescents out of schoo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45.9% experienced suicidal thoughts and 20.3% attempted suicide, and the severity of the suicide problem was remarkable. Also, when the current psychological state of that out of youth is asked, they answered mostly that "feeling depressed and lonely" and the number of out-of-school youths with unstable psychology is generally high. In addition, after they left school, they experienced a lot of difficulties(multiple responses) such as "people's preoccupation, prejudices, ignorance about not going to school" and "no one understands me and believes and listens to me" are the responds of most of out of school youths. As a result, the out-of-school youths in Suwon city were found to be psychologically unstable and had many psychological and mentally hurt.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action should be urgently implemented so that counseling and treatment can be supported quickly.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se analysis results.

First, out-of-school youth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psychiatric care support are needed. The results that remind us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re considered to be urgently needed beyond the level of policy recommendations. In other words, Suwon City,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uwon Educational Supporting Authority and others should actively update and monitor the suicide-related status of out-of-school youth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upport field by adding 'medical support' in addition to core support policy consisting of 'academic support' and 'employment support' in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system promoted by the related ministr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out-of-school youth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covery system that allows as many young people as possible to participate in social participation, future design, and physical and mental enhancement of out-of-school youth. An alternative to the excavation system is to establish a linkage system with social welfare service workers such as social workers, nursing care workers, and home welfare workers. The social welfare service worker can help the information gathering of the youth out of the secluded school among the regional welfare inspection because the problem of the local area brightens, and the method of finding out from the youth support institution outside the school should be introduced through this information.

Third, early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outside the school. The process before the out-of-school youth is handled by the Education Office (school), mainly the Ministry of Education. However, after the study was stoppe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as in charge of administering the out - of - school youth support center. In other words, they become out-of-school youths, and they are not able to properly understand basic information about youths outside of school, support policies, programs, and facilities. To complement the existing Abortion Abuse Program, add time for providing information, such as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institutional status and programs, and expand the scope of participation so that the parties and parents can participate togeth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ystem so that it can help to adapt to social life.

Fourth, the school return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ctual survey, it was found that a lot of young people who declared suspension of schooling and lived outside the school, regret their choices and extend their studies again.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need realistic discussions for out-of-school youth who wish to extend their studies and want to go back to school.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est depending on where the adolescents are located. A system of joint integration of the two institutions will be established to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examples of adaptation cases and maladjustment cases for adolescents outside the school. There is a need

to build buffer zones so that joint responsibility can be grant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of the youth out of school. It is a discriminative language expression from the use of two letters which are replaced by 'inside' and 'outside' based on the school. Meaningfully, all of the students except the students are called "out of school", and they are simply differentiated without considering the type of youth belonging to the rest,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call it by one defini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 various types of youth belonging to out-of-school youths and redefine them with a new name. It is also important to be more cautious when defining a new name, so it is not a matter of naming and publishing it in a particular group (eg, experts, stakeholders), but it is also possible to decide through a public offering method that the name can be proposed.

Keyword : out of school youth, survey, youth support, career setting, education and training, youth recognition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이근혁

행정학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위촉연구원(현)

E-mail : nafuza@suwon.re.kr

